

연구보고서 2007-13

한국의 아동빈곤실태와 빈곤아동지원방안

김미숙 조애저 배화옥
김효진 홍 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머리말

아동빈곤 문제는 대부분 국가의 사회문제이다. 아동빈곤은 국가의 경제 수준과 무관하게 오히려 선진국 중에서도 빈곤율이 높은 경우가 있다. 특히,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영미권 국가에서의 아동빈곤율은 15% 이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의 아동빈곤의 원인은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소득 부족에서 파생된 과거의 아동빈곤과는 달리 일련의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가족해체의 가속화,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인한 돌봄노동자의 부족 등과 같은 가족문제는 아동의 경제적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적 요구에 대응해서 유럽에서는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즉, 아동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미래에 부족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고, 아동빈곤으로 인해 파생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사전에 줄인다는 전략이다. 특히 아동빈곤은 여성의 사회진출과 직결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진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가 구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이 건강하지 못할 때, 그 사회의 미래는 밝을 수 없다. 아동의 빈곤으로 교육기회가 감소하게 되면, 이로 인해 성인이 된 후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실업에 처할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도 경제 성장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방치되고 소외된 아동들이 많다. 특히 투표권이 없는 아동에 대한 복지수준은 가장 낙후된 상황이다. 더구나 빈곤아동에 대한 연구는 매우 초보적인

단계이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조차 제시되지 못한 상황에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아동빈곤실태와 빈곤의 원인 및 영향을 진단한 뒤, 빈곤아동지원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주요 탈아동빈곤정책의 탈빈곤율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연구를 통해서 증가하고 있는 아동빈곤에 대해 정책적으로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 아동빈곤을 줄임으로 어떠한 아동도 배제됨 없이 삶의 기회가 보장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도와주신 여러 분이 계시다. 전북대학교 윤홍식 교수, 서울대학교 이봉주 교수, 덕성여자대학교 정익중 교수, 그리고 본 연구원의 김안나 연구위원과 박세경 부연구위원의 유익한 조언에 모든 연구진을 대신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07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 문

목 차

요 약	11
제1장 서론	4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0
제2절 연구내용	44
제3절 연구방법	45
제2장 아동빈곤의 개념 및 연구분석틀	47
제1절 아동빈곤의 개념과 유형	47
제2절 연구분석틀	52
제3장 한국의 아동빈곤실태	54
제1절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	54
제2절 가구특성에 따른 아동빈곤율	59
제3절 빈곤갭	64
제4절 아동빈곤율 국제비교	65
제5절 시사점	72
제4장 아동빈곤의 원인	74
제1절 분석목적	74
제2절 이론적 배경	76
제3절 선행연구 고찰	78
제4절 분석방법	82
제5절 분석결과	84
제6절 정책적 함의	99

제5장 아동빈곤의 영향	102
제1절 분석목적	102
제2절 이론적 배경	104
제3절 선행연구	107
제4절 분석방법	113
제5절 분석결과	117
제6절 정책적 함의	135
제6장 국내외 빈곤아동 지원정책	137
제1절 현금지원 정책	138
제2절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147
제3절 현물지원 정책: 각종 start 사업	150
제4절 국내외 빈곤아동 지원정책의 시사점	177
제7장 주요 빈곤아동 지원정책의 빈곤완화효과	179
제1절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율 감소효과	179
제2절 아동수당제도의 빈곤율 감소효과	184
제3절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빈곤율 감소효과	186
제4절 시사점	187
제8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88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88
제2절 정책적 함의	190
제3절 향후 연구과제	191
참고문헌	193

표 목 차

<표 2- 1> 통계청과 OECD 소득구분 비교	49
<표 2- 2> 1998~2006년 중소도시기준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50
<표 3- 1> 전체가구 및 아동가구의 빈곤율(1998~2006년, 자영업자 제외) ·	55
<표 3- 2> 전체가구 및 아동가구 빈곤율((2003~2006년, 자영업자 포함) ·	57
<표 3- 3> 빈곤아동수 추이	59
<표 3- 4> 가구유형별 아동빈곤율(자영업자 제외)	60
<표 3- 5> 가구주 특성별 아동빈곤율	62
<표 3- 6> 아동수별 아동빈곤율(자영업자 제외)	63
<표 3- 7> 아동절대빈곤가구 빈곤갭 추이	64
<표 3- 8> OECD 국가의 아동빈곤율(중위 50% 이하) 비교(2000년 기준) ·	68
<표 3- 9> OECD 국가의 대상별 빈곤율 비교	70
<표 4- 1>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아동가구 빈곤수준	85
<표 4- 2> 가족구조 특성별 아동가구 빈곤수준	86
<표 4- 3> 취업인원수 및 가구주 직종별 아동가구 빈곤수준	88
<표 4- 4> 아동가구의 빈곤수준별 소득구조 특성	90
<표 4- 5> 아동가구의 빈곤수준별 소비구조 특성	91
<표 4- 6> 아동가구의 빈곤수준별 교육비 지출특성	92
<표 4- 7> 아동빈곤의 결정요인 위계적 회귀분석	95
<표 4- 8> 아동빈곤계층 결정요인에 대한 다항로지분석	98
<표 5- 1> 빈곤 아동의 학구적 성취 관련 선행연구 요약	109
<표 5- 2> 빈곤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관련 선행연구 요약	112
<표 5- 3> 주요변수의 정의	116

<표 5- 4>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18
<표 5- 5> 가구의 특성	119
<표 5- 6> 가구주의 특성	121
<표 5- 7> 빈곤여부에 따른 아동발달 차이	123
<표 5- 8> 빈곤계층에 따른 아동발달 차이	124
<표 5- 9> 연구모형의 적합도 및 설명력	126
<표 5-10> 주의집중 기본연구모형 적합도	127
<표 5-11> 주의집중 기본연구모형의 경로계수	128
<표 5-12> 주의집중 기본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의 효과분해 : 표준화계수 ..	128
<표 5-13> 주의집중 수정모형 적합도	130
<표 5-14> 주의집중 수정모형의 경로계수	130
<표 5-15> 주의집중 수정모형의 경로계수의 효과분해 : 표준화계수 ..	130
<표 5-16> 우울, 비행, 공격성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133
<표 6- 1> 탈아동빈곤정책의 유형과 효과	137
<표 6- 2> 소득이전이 아동빈곤율에 주는 효과(1990년대 초)	140
<표 6- 3> OECD 국가의 아동수당 규모	144
<표 6- 4> 주요국가의 생계부양형태에 따른 빈곤율	148
<표 6- 5> 주요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 비율	149
<표 6- 6>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 소개	156
<표 6- 7> We START 평가결과 요약	159
<표 6- 8> 연도별 헤드스타트 수혜 아동 수 및 연방정부 재정지원 규모	163
<표 6- 9> 영국의 Sure Start Local Programmes 사업효과	175
<표 7- 1> 도시가계조사 소득항목에 따른 시장소득 및 이전소득 구성 ..	180
<표 7- 2> 아동가구의 소득 및 이전소득(자영업자 제외)	181
<표 7- 3> 공·사적 소득이전에 의한 아동빈곤율 감소효과 (자영업자 제외) ·	182
<표 7- 4> 아동수당(1인당 월 10만원) 도입시 연간 소요예산(2006년 기준) ·	185
<표 7- 5> 생계부양자 증가의 아동빈곤감소효과(2006년, 자영업자 제외) ·	186
<부표 1> 주요변수들의 상관계수	202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및 연구방법	46
[그림 2-1] 연구분석틀	53
[그림 3-1] 도시아동가구의 절대빈곤율 추이(1998~2006년, 자영업자 제외) ·	56
[그림 3-2] 도시아동가구의 상대빈곤율 추이(1998~2006년, 자영업자 제외) ·	58
[그림 3-3] 빈곤갭 추이	65
[그림 3-4] OECD 국가의 가구유형별 빈곤율 비교	69
[그림 3-5] OECD 국가의 대상별 빈곤율 비교	71
[그림 4-1] 아동빈곤의 생태체계학적 모델	78
[그림 5-1] 가족과정모델	106
[그림 5-2] 연구 기본모형	125
[그림 5-3] 아동의 주의산만 기본모형	129
[그림 7-1] 공사적 이전소득의 도시아동빈곤율 감소효과 비교(자영업자 제외) ·	183
[그림 7-2] 공사적이전소득의 아동빈곤율 감소효과 비중(자영업자 제외) ···	184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아동빈곤 문제는 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의 정책적 관심사임. 아동빈곤은 국가의 경제수준을 막론하고 모든 사회에 존재하고 있음.
 - 아동이 건강하지 못할 때, 그 사회의 미래는 밝을 수 없다. 빈곤한 아동은 학업중퇴, 10대 자살, 알코올 중독, 비행, 10대 임신 등의 가능성이 많음.
 - 더구나 아동의 빈곤으로 교육기회가 감소하게 되면, 이로 인해 성인이 된 후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실업에 처할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음.
-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신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
 - 아동빈곤의 확대 및 심화는 빈곤규모 추정, 실태파악, 관련요인, 그리고 정책적 대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재조명하게 만들었음.
 - 시대적인 급박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아동빈곤 연구는 일천한 역사를 가지고 있음. 전국적인 통계자료의 미흡 및 아동의 범위의 부정확으로 공식적인 아동빈곤율조차 파악되지 못한 상황임.
- 본 연구의 목적은
 - 첫째, 우리나라 아동의 빈곤수준을 절대빈곤 및 상대빈곤으로 구분한 후 빈곤수준별 아동인구 규모추정과 구성비율 등을 산정함으로써 빈곤아동 관련통계를 생산하며,

- 둘째, 아동빈곤의 원인과 빈곤이 아동에게 주는 영향을 규명하고,
- 셋째, 빈곤아동 특히 빈곤아동가구가 탈빈곤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은 어느 정도나 되나?
- 아동가구의 빈곤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빈곤이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며, 그 영향력 어느 정도인가?
- 효과적인 탈아동빈곤 지원정책은 무엇이며, 주요 탈아동빈곤 정책의 빈곤감소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2. 연구방법

□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

- 첫째, 국내외 문헌연구로서 아동의 개념, 현행 한국의 아동복지정책, 외국의 아동복지정책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고찰하였음. 아울러 정부간행물, 통계자료, OECD 간행물 등을 살펴봄.
-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데이터에 대한 2차 자료를 분석함.
 - 1998년에서 2006년에 이르는 9년간의 아동빈곤율을 추계하기 위해 도시가계조사 데이터(1998~2002년)와, 전국가계조사 데이터(2003~2006년)를 재분석함.
 - 아동빈곤율의 국제비교를 위해서 Luxembourg Income Study(LIS)에서 생산한 조사자료를 2차 분석함.
 - 빈곤의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가장 최근인 2006년 전국가계조사 데이터를 2차 분석함. 빈곤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생산한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2차 분석함.
- 마지막으로, 제3차에 걸친 workshop를 실시하고, 1회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함.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및 연구방법



제2장 아동빈곤의 개념 및 연구분석틀

1. 아동빈곤의 개념과 유형

□ 아동빈곤의 개념과 소득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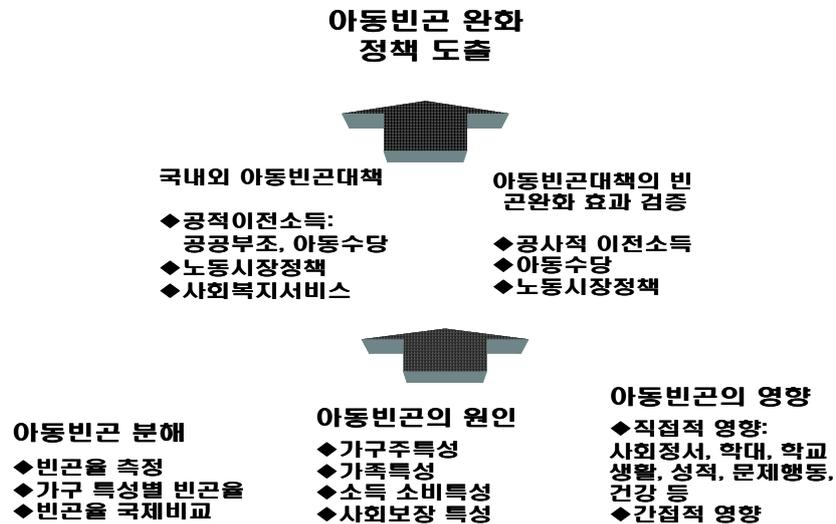
- 아동빈곤이란 성인빈곤이나 노인빈곤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보통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빈곤한 가족에 속해 있는 경우를 말함.
- 빈곤을 측정하기 위해서 가구의 소득(수입, income)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가구의 지출(consumption)을 사용하기도 함.

— 본 고에서는 가구수입을 기준으로 빈곤 대 비빈곤 아동을 구분함.

□ 아동빈곤의 유형: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 절대빈곤이란 가장 오래된 빈곤의 정의로, 생존을 위한 최저한의 물질의 결핍상태를 말함. 본 고에서는 아동이 속한 가족의 월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절대아동빈곤 가구로 규정함.
- 상대빈곤이란 공동체 인식을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의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임.
- 상대빈곤선은 중위소득 40%, 50%, 60% 이하의 소득선임.
- 본 연구에서는 빈곤의 다각적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을 동시에 사용하여 아동빈곤율과 빈곤을 접근하고자 함.

2. 연구분석틀



제3장 한국의 아동빈곤실태

1.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

□ 전체빈곤율

- 전체가구의 절대빈곤율은 1998년에서 2002년까지는 감소하다가 2003년부터 2004년까지는 증가하였고 다시 2004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함.
- 1998년의 빈곤율은 7.4%이었고, 2002년에는 4.1%이었음. 2006년 현재 전체 가구 절대빈곤율은 도시의 경우는 5.0%이고 전국은 5.3%에 이룸. 즉, 농어촌 지역을 포함시킨 전국의 빈곤율은 도시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보다 높아 농어촌 지역의 빈곤층이 도시보다 많음을 알 수 있음.

□ 절대 및 상대 아동빈곤율

- 도시지역 아동빈곤율은 1998년 8.0%에서 2002년에는 4.4%로 감소하다가 2004년을 정점으로 하여(7.4%) 감소하고 있음.
- 전국의 경우도 2003년 5.9%에서 2006년에는 5.0%로 다소 하강한 추세임. 아동빈곤율도 도시보다는 농어촌을 포함한 전국의 빈곤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나 농어촌 아동이 빈곤할 가능성이 약간 더 높음을 시사함.
- 도시지역 상대아동빈곤율(자영업자 제외)은 중위소득 40%, 50%, 60%의 분포를 보면, 1998년에서 2002년에는 6.1%→4.6%, 10.8%→9.7%, 17.2%→17.0%로 약간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2003년부터 다시 증가하다가 절대빈곤율과 마찬가지로 다시 감소하고 있음.

- 2003년에서 2006년의 기간 동안 중위소득 40%, 50%, 60%의 비율은 6.0%→5.9%, 10.4%→10.6%, 16.7%→17.0%로 약간 감소하거나 현상을 유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반면, 전국의 경우는 2003년에 비해 그 이후 아동빈곤율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어,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다양한 탈빈곤정책이 빈곤율 감소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음.

2. 가구특성에 따른 아동빈곤율

□ 가구유형에 따른 아동빈곤율

- 가구유형에 따른 아동빈곤율 추이를 보면 시기를 막론하고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모자가구, 일반가구, 맞벌이가구의 순이었음. 특히 노인가구는 조손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 조손가구의 반이 빈곤함을 알 수 있음.
- 맞벌이가구의 경우는 빈곤율이 매우 낮아서 2인생계부양자 가구의 아동빈곤이 줄어들음을 반증해 줌.

□ 가구주 성에 따른 아동빈곤율

- 가구주 성별 아동빈곤율은 여성가구주 가구의 아동빈곤율이 남성가구주에 비해 3배에서 5개가량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됨.
 - 2006년의 경우 도시 및 남성가구주 가구의 아동빈곤율은 각 3.2%, 3.3%인데 비해, 여성가구주 가구의 아동빈곤율은 각 17.8, 18.8%임. 여성가구주 가구는 대부분 모자가구일 것으로 추정되어 여성가장에 대한 취업 및 보육지원이 개선되어야 함.

□ 가구주 특성에 따른 아동빈곤율

- 가구주 특성을 교육수준, 직업유형으로 나누어 추이를 살펴봄.
- 교육수준별로는 저학력일수록 아동빈곤율이 높았음. 특히 초등졸이하 가구주의 아동빈곤율이 가장 높았고, 대졸 이상 가구주의 아동빈곤율이 가장 낮았음.
- 가구주의 직업의 경우 아동빈곤율이 가장 높은 직업유형은 임시 및 일용노무직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자영업이었음.
 - 반면 아동빈곤율이 가장 낮은 직종은 공무원이었고, 그 다음은 사무직,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의 순으로 파악되었음.

□ 아동수 및 가족수에 따른 아동빈곤율

- 가구의 아동수에 따른 아동빈곤율은 자녀가 1인이거나 2인거나 간에는 커다란 차이가 없으나, 자녀가 3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에는 빈곤율이 월등히 높았음.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가족수는 너무 적거나 많은 경우는 빈곤율이 높았고, 가구원이 3~5명이었을 때 아동빈곤율이 가장 낮았음.

3. 빈곤갭

- 도시의 경우 1998년도의 경상소득 빈곤갭 비율은 38.77%이었는데 점차 비율이 감소하여 2002년에는 최저 수준인 29.80%를 보이다가 다시 상승하여 2006년 현재는 34.20%를 보이고 있음.
- 전국의 경우 2003년에는 38.16%이었는데 2004년에는 약간 상승하다가 감소하여 2006년 현재 33.94%를 보이고 있음.
- 지난 9년간 아동빈곤가구의 도시 평균 빈곤갭은 34.99%, 전국 평균

은 36.51%로 도시보다 전국의 빈곤율이 약간 더 높았음. 이는 농어촌의 경우의 빈곤율이 도시보다 높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임.

4. 아동빈곤율 국제비교

□ LIS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빈곤율을 국제비교하였음.

-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잔여적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영미권 국가에서는 아동빈곤율이 높았음.
- 반면, 노르딕 국가에서는 아동수당이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는 공보육제도가 보편화되어 있고,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이 매우 관대한 편임. 대륙국가들은 양자의 중간으로 아동수당에 제공하고 있는 국가가 많기는 하나,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오히려 약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동빈곤율이 9.8%로 대륙형 국가군의 빈곤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이는 자료의 한계로 인한 것임.

□ OECD 국가의 가구 유형별로 아동빈곤율을 살펴봄.

- 거의 모든 국가에서 모자가족의 빈곤율은 양부모 가족의 빈곤율에 비해서 적게는 3배에서(덴마크 2.0% vs 6.1%) 많게는 13배까지(네덜란드 2.9% vs 37.2%)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양부모 가족의 아동빈곤율 평균은 8.7%이고(전체 가구평균: 11.4%) 모자가족의 아동빈곤율 평균은 27.9%로 3.2배가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 반면 양부모 가족의 아동빈곤율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낮은 편으로 파악되었음. 따라서 아동빈곤에 대책은 모자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으로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는 모자가족의 아동빈곤율이 23.2%로 양부모가구 9.2%에 비해 2.5배 이상 높았음.

- 아동빈곤율을 전체 인구 빈곤율과 노인빈곤율과 비교하여 살펴보았음.
 - OECD 국가의 평균 아동빈곤율은 11.2%이고 전체인구의 빈곤율은 10.3%로 거의 비슷한 수준임. 반면 노인빈곤율은 15.5%로 높았음.
 - 한국을 포함한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벨기에, 오스트리아, 그리스, 호주, 아일랜드, 스페인 등은 노인빈곤율이 아동빈곤율보다 더 높음.

제4장 아동빈곤의 원인

□ 분석목적

- 아동빈곤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아동이 소재한 가구의 빈곤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 아동빈곤 관련요인을 하위범주로 나누어 아동빈곤수준과 교차분석하여 아동빈곤의 내부 특성을 살펴보려고 함.
 - 아동빈곤 관련요인이 아동빈곤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는지 또한 아동빈곤수준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함.

□ 분석틀

- 아동빈곤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생태체계학적 관점을 도입함.
 - 생태학적 관점은 아동빈곤은 단순히 아동 개인의 특성이나 하나의 사회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과 아동을 둘러싼 환경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
 - 생태학적 관점은 아동을 둘러싼 환경이 가족, 지역사회, 국가 등 여러 다양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과의 근접성과 영향성

의 정도에 따라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로 구분하고 있음.

- 생태체계학적 관점을 근거로 아동빈곤 관련요인을 미시체계(가구주 특성), 중간체계(가구특성, 소득·소비특성), 외체계(사회보장제도, 노동시장특성), 거시체계(빈곤문화, 복지철학)로 구분할 수 있음.
 - 선행연구를 통하여 3개 영역에 해당되는 요인으로 가구주의 성, 연령, 학력, 직업유형, 고용형태, 가구유형, 아동수 및 6세 미만 아동유무, 소득이전, 사회보험, 그리고 소비지출을 투입하여 아동빈곤을 예측하는지를 살펴보았음.

□ 분석방법

- 아동빈곤 요인분석은 2단계로 이루어졌음.
 - 첫째,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성, 연령, 학력), 가족구조 특성(가구유형, 6세 미만 보육아동 유무, 가구원수), 소득·소비 특성(가구주 직종, 근로자수, 경상소득 대비 이전소득 비율, 소비지출 대비 교육비 비율)으로 요인집단별 설명력을 비교함.
 - 둘째, 잠재적 복지욕구를 가진 차상위 빈곤계층의 아동에 대한 분석도 포함하고자 아동가구의 빈곤수준에 따라 계층으로 구분하여 관련요인이 아동빈곤 수준에 차이를 유발하는지를 비교분석하였음.
- 요인분석을 위한 빈곤측정은 최저생계비를 빈곤선으로 하여 한 가구의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절대빈곤으로 규정함. 더불어 최저생계비 120%선과 150%선을 산정함.
 - 분석을 위하여 아동가구가 최저생계비 이하를 극빈층, 최저생계비 이상 최저생계비 120% 이하를 차상위층, 최저생계비 120% 이상 150% 이하를 차차상위층, 최저생계비 150% 이상을 비빈곤층

으로 분류하였음.

-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2006년도 통계청의 전국가계조사 자료임.
- 아동빈곤 수준과 관련요인과의 단순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음
- 아동빈곤에 대한 요인의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음.
 - 첫째, 빈곤가구/비빈곤가구를 종속변수로 하여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소득·소비 구조요인의 설명력을 비교하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행하였음.
 - 둘째, 아동빈곤 계층별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행하였음.

□ 분석결과

○ 교차분석

- 2006년도 가계조사로부터 얻어진 아동가구 가운데 극빈층 8.9%, 차상위층 3.7%, 차차상위층 7.1%, 그리고 나머지 비빈곤층 가구는 80.3%를 구성하고 있음.
- 아동가구의 가구주 특성과 가구 특성에 따라 빈곤수준이 달라짐.
 - 아동가구 가운데 가구주가 여성, 노령, 저학력일 경우 빈곤수준이 높아짐.
 - 아동수 및 보육아동수가 많을수록 대체로 가구의 빈곤수준이 높아짐. 또한 조손가구와 모자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빈곤수준이 단연히 높아짐. 조손가구와 모자가구가 극빈층에 속한 비율은 각각 51.2%, 17.0%임.
 - 맞벌이가구에 비해 홑벌이가구의 빈곤수준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주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극빈층에 속한 비율이 무직 다음으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그 뒤를 이었음.
- 아동가구의 소득·소비특성에 따라 빈곤수준이 달라짐.
 - 근로소득의 규모와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질수록 빈곤수준이 악화됨.
 - 반면 이전소득이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질수록 아동가구의 빈곤수준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아동가구의 빈곤수준이 악화될수록 식료품비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짐.
 - 보육비의 경우 아동가구의 빈곤수준이 악화될수록 절대규모는 적어지나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차상위층과 차차상위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아동가구의 빈곤수준이 악화될수록 교육비 지출규모와 전체 소비지출에서의 구성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비빈곤층 아동가구는 빈곤층 아동가구에 비해 보충교육비를 2~3배 더 지출하고 있음.
- 요인분석
 - 생태체계학적 모델이 제시하는 체계 순으로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성, 연령, 학력), 가구 특성(가구원수, 6세 미만 보육아동 유무, 가구유형), 소득소비구조 특성(가구주 직종, 근로자수, 교육비 지출), 사회보장 특성(공적 이전소득)으로 구분한 후 변수집단을 차례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행하였음.
 - 4개 회귀모형 전체에 걸쳐 빈곤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가구주의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가구주의 직종이 있으며, 아동가구의 가구주가 저학력의 고령인 사별여성, 보육아동이 있는 다자녀

가구, 조손가정이나 모자가구, 취업인원수가 적거나 단순노무직이나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하는 경우 빈곤할 확률이 가장 높으며 교육비 지출이 적어지고 동시에 공적 이전소득이 커지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아동가구를 극빈층, 차상위층, 비빈곤층의 3개 계층으로 구분한 후 관련요인들이 빈곤계층을 구분하는지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행하였음.
 - 첫째, 극빈층 대 비빈곤층의 회귀분석 결과, 저학력의 고령 여성 가구주, 조손가구 혹은 모자가구, 보육아동이 있는 다자녀가구, 취업인원수가 적거나 단순노무직이나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하는 경우, 교육비 지출이 적거나 공적 이전소득이 커질 경우 극빈층에 속할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둘째, 차상위층 대 비빈곤층의 회귀분석 결과, 앞서 회귀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얻음.
 - 셋째, 극빈층 대 차상위층의 회귀분석 결과, 가구주가 고등학교 졸업일 경우, 보육아동이 있을 경우, 모자가구일 경우 차상위층에 속할 위험성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적 함의를 보이고 있음.

□ 정책적 함의

- 첫째, 분석결과 여성가구주, 노령, 저학력, 사별, 보육아동이 있는 다자녀가구, 조손가구 혹은 모자가구, 단순·노무직이나 서비스·판매직 종사, 홀벌이가구, 낮은 교육비 지출과 높은 공적 이전소득은 빈곤아동가구의 지표로 밝혀짐.
 - 이러한 아동가구의 빈곤지표에 초점을 두고 제도와 정책을 개선해야 할 것임.

- 둘째, 모자가구가 차상위층에 속한 비율과 차상위층에 속할 확률이 높음.
 - 아동빈곤의 위험성을 경감하기 위해서 제도적 지원에서 모자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선별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특히 모자가구의 단독 취업은 소득수준이 낮아 빈곤수준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여성경제활동의 질 제고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임.
- 셋째, 아동가구의 가구주가 단순·노무직이거나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할 경우 빈곤에 처할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하는 근로빈곤층의 경우 높은 실업 가능성과 낮은 소득수준으로 극빈층으로 떨어질 위험성이 높음. 이러한 근로빈곤층을 지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자활사업의 운용 등 정책적 지원이 긴급히 요구됨.
- 넷째, 보육아동이 있는 차상위층 아동가구는 보육비 지출부담이 큼.
 - 보육시설의 확충, 방과후 아동보육, 보육비 경감방안을 마련함.
- 다섯째, 빈곤수준이 악화될수록 아동가구의 교육비 및 사교육비 지출이 줄어들고 있음.
 - 지역아동센터의 활용, 방과후 학습지도 등 조기개입 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여야 함.

제5장 아동빈곤의 영향

□ 분석목적

- 아동빈곤의 영향 즉 빈곤의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빈곤이 아동발 달에 미치는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 빈곤아동과 비빈곤아동의 아동발달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다시 빈곤계층을 네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여 빈곤수준별로 분석함.
- 가족과정모형을 근거로 부부폭력, 아동학대, 부·모의 우울 변수를 매개로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간접적 영향과 경로를 분석함.

□ 분석틀

- 아동빈곤의 영향의 분석은 가족과정모형(Family Process Model)을 근거로 함.
 - 가족과정모형은 빈곤이 부모의 정서적 안녕과 부부 및 부자 관계와 같은 비물질적 관계, 즉 가족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가족과정을 통해 아동발달이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함.
 -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대개 가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가족내에서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인 부모의 특성 또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나타남.
- 빈곤의 직접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곤여부 및 빈곤계층별로 아동발달의 특성 차이를 분석함. 선행연구를 근거로 아동의 신체·정서·인지발달, 비행, 학대, 학교생활 등 아동발달 및 생활의 모든 영역과 관련하여 빈곤의 영향을 파악 함.
- 빈곤의 간접적 영향과 그 경로를 분석하기 위하여 가족과정모형을 근거로 매개변수로 부부폭력, 아동학대, 부·모의 우울을 투입함.

□ 분석방법

- 아동빈곤의 영향은 직접적 영향과 간접적 영향으로 구분하여 분석.
 - 아동빈곤의 직접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곤여부에 따라 아동발달특성의 차이를 살펴보고, 빈곤계층에 따라 아동발달특성의 차이를 비교함.
 - 아동빈곤의 간접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곤이 부부폭력, 아

동학대, 부·모 우울 변수를 매개로한 모형을 설정하여 이러한 경로가 적합한지에 대하여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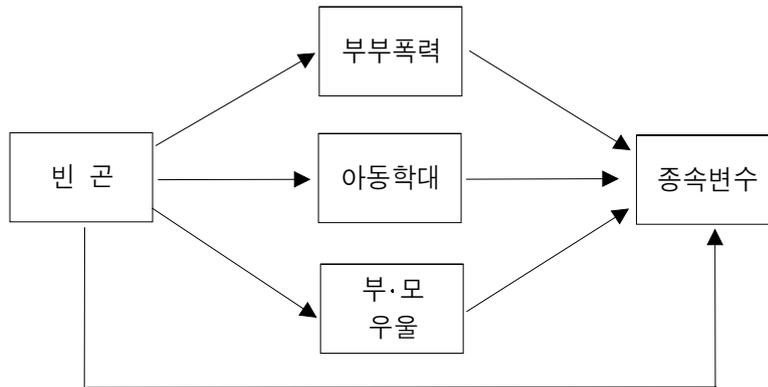
-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2005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KWPS) 1차년도 자료임
 -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자료는 부가적으로 조사된 아동 759명 데이터와 쌍을 이루는 가구데이터와 가구주 데이터로 735사례 분석대상으로 삼음.
 - 분석시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제시한 아동가중치를 적용함.
- 아동빈곤의 직접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간접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경로분석 함.

□ 분석결과

○ 인구사회학적 특성

- 응답자의 빈곤여부별 분포는 최저생계비 120% 기준으로 빈곤아동 8.3%, 비빈곤 아동 91.7%로 나타남.
 - 빈곤계층별로 살펴보면 극빈층 아동 6.0%, 차상위층 아동 2.2%, 차차상위층 아동 5.2%, 비빈곤층 86.5%임.
 - 가구주와의 관계가 조손관계인 경우는 6.1%이며, 빈곤층에서 더 높게 나타나며 특히 극빈층에서 그 비율이 높음.
- 가구형태는 일반가정 92.4%, 모자가정 4.1%, 부자가정 1.5%, 소년소녀가정 0.9%로 나타남. 가구원수는 4인가구가 59.5%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였고, 대부분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거주함.
 - 모부자 가정의 빈곤계층에 속한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모자가정은 부자가정보다 그 비율이 더 높음. 소년소녀가정은 모두 차상위계층 미만에 속하며 극빈층도 85.7%임.

- 2인가구의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절대빈곤층의 비율은 38.5%로 나타남. 2인가구의 대다수가 한부모가정 또는 소년소녀가정의 비율이 높을 거라는 특성을 반영함.
 - 가구주의 성별은 남성이 91.2%, 여성이 8.8%로 나타났으며, 연령층은 청년층이 86.5%로 가장 높음. 학력은 고졸이 43.0%, 대졸이상이 35.0%를 차지함. 결혼상태는 유배우가 89.2%이며 이혼은 7.3%로 나타남.
 -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빈곤한 비율이 높으며, 극빈층에 속한 경우는 28.1%로 나타남.
 - 가구주의 연령대가 65세 이상인 노령의 경우 빈곤한 비율이 약 55%로 높은 편임.
- 아동빈곤의 직접적 영향
- 빈곤과 비빈곤을 구분하여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빈곤한 아동이 비빈곤 아동에 비해 학업성적이 낮음. 선행연구들과 달리 다른 변수들에서는 빈곤의 직접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음.
 - 극빈층, 차상위층 차차상위층, 비빈곤층으로 구분하여 빈곤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극빈층, 차상위층, 차차상위층 아동이 비빈곤층 아동에 비해 학업성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선행연구들과 달리 다른 변수들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예상과 달리 반대의 결과도 보임.
 - 빈곤의 기간 고려 및 표본의 편의성 등 자료의 한계와 우리나라의 빈곤층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추후 심층 연구되어야 함.
- 아동빈곤의 간접적 영향
- 빈곤의 간접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부부폭력, 아동학대, 부모의 우울변수를 매개로 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빈곤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봄.



- 연구기본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종속변수에서 좋은 적합도 지수가 나타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본모형이 적절한 모형임을 알 수 있음. 그러나 모형의 설명력을 보여주는 다중상관자승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SMC)는 .028에서 .178로 전체적으로 높지 않은 결과를 보임.
- 설명력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임의로 설명력(SMC)이 .10보다 작은 변수는 결과제시에서 제외하고 설명력이 10%보다 높은 사회정서발달영역에 속하는 우울, 주의집중, 비행, 공격성 네 변수만을 분석함.
- 빈곤의 영향경로를 분석하기 위하여 설정된 모형은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좋은 편이었으나, 설명력이 너무 낮거나 본 연구에서 찾고자 하였던 빈곤의 영향경로를 보여주는 타당한 모형을 찾지 못함.
- 결과적으로 빈곤의 영향경로를 설명해주는 적합한 모형을 채택하지 못함. 이러한 결과는 빈곤이 아동발달의 전 영역에 걸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불일치에 대한 요인분석도 국내 아동빈곤의 영향이 되는 기제들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함.

□ 정책적 함의

- 한국의 빈곤연구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한국의 아동 빈곤 특성을 반영한 빈곤아동지원정책의 수립과 아동빈곤이 장기화가 되지 않도록 초기 정책투입 및 투자가 필요함.
- 아동빈곤의 간접적 영향의 주요 매개변수가 부·모의 심리적 특성인 우울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빈곤아동지원뿐만 아니라 가구주 및 빈곤가구에 대한 통합적·입체적 지원정책이 필요함.

제6장 국내외 빈곤아동 지원정책

- 탈아동빈곤정책에는 공공부조 및 수당을 통한 소득지원(현금), 세제혜택, 현물지원(사회복지서비스), 노동시장 정책 등이 실시되고 있는데, 본 고에서는 다양한 탈아동빈곤 정책 중에서 공공부조, 아동수당, 노동시장정책, 사회복지서비스(각종 스타트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봄.

1. 현금지원: 공적이전소득

가. 공공부조

- 공적이전소득에는 자산조사를 통해 지원하는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와 보편적인 아동지원제도인 아동수당(Child Allowance), 가족수당, 편부모수당 등이 있음.
- 공적이전소득은 특히 가구가 실업, 저임금, 가족적 위기(출생, 별거 등)에 처해 있을 때 매우 유용한 지원이 됨.
 - 이전소득의 수준은 충분하여 실업자나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빈곤선 이하로 소득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함.

- Solera(2003)은 자유주의 국가인 영국, 사민주의 국가인 스웨덴, 조합주의 국가인 이태리를 대상으로 공적이전소득과 시장소득 등의 아동빈곤율 감소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음.
- 스웨덴의 경우 아동수당은 매우 관대하여 1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제공되며, 액수로는 소득의 6%에 해당되고 이는 면세됨.
 - 대부분의 부모들은 취업한 상태이고 보편적인 급여 및 사회보험이 관대하기 때문에 스웨덴에서는 공공부조는 미미한 역할만을 함. 스웨덴의 총이전소득의 아동빈곤율 감소효과는 84%나 됨.
 - 영국은 아동빈곤율 감소에 있어서 스웨덴보다 덜 효과적으로 나타났음(24%). 소득이전은 선택적으로, 이를 필요로 하는 대상을 선정하여 제공하는 잔여적 급여이면서 급여 수준이 낮은 편임.
 - 보편적인 이전소득이나 사회보험의 급여 수준은 높지 않고, 주로 공공부조 중심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음.
 - 이태리에서는 실업수당은 존재하지 않고, 보편적인 아동수당이나 일반적인 소득지원제도도 없음.
 - 이태리에서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빈곤감소율이 가장 높은 24.2%인데, 이는 유족 연금이나 개인연금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 공적 이전소득에 있어서의 복지국가 유형별 차이가 아동빈곤율에 영향을 주고 있음.
- 스웨덴 같은 관대한 보편주의적 급여를 제공했을 때, 아동빈곤율이 가장 낮고, 자유주의적 국가인 영국의 경우는 자산조사형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하는 잔여적 급여 중심이어서 근로동기를 저해하며, 이태리도 근로를 통한 시장소득이 이전소득보다 빈곤율을 높이고 근로동기를 낮추고 있음.
 - 더욱이 영국과 이태리에서는 여성이 취업할 수 있기 위한 공보육제도가 있지 않아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구비되어 있지 않음.

나. 아동수당

- 아동수당은 근로소득이 부족했을 때 가족을 빈곤화 하는 것을 막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급여임.
 -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된 국가의 경우 일정수준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고 있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속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국가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주요 OECD 국가들 중의 아동수당제도 실시형태는 보편주의적 형태와 소득과 연계된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이후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이전 시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그 증가의 폭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빈곤감소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녀를 키우는 빈곤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를 제도 안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공공부조(TANF) 수급자 선정 시 피부양아동의 유무가 가장 기초적인 기준이 되며, 대부분의 나라들도 아동의 유무, 아동의 연령, 한부모 가정 여부 등을 소득기준과 함께 고려하여 공공부조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아동 수나 연령에 따라 추가급여 제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인구가 지나치게 과소하여 빈곤계층이라 하여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빈곤계층이 상존하고 있으며, 보육서비스 지원 외에 빈곤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만 있으며, 아동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한부모 가족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부조는 지급액은 미미한 수준임. 아동양육비용의 현실화가 요구되고, 아동의 양육부담을 사회가 분

담하고 아동이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의 소득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아동수당제도의 도입배경은 국가별 다양한 정책적 요구와 관련되어 있고, 실시형태 또한 보편주의적 형태와 소득과 연계된 선별주의적 형태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 프랑스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동의 복지향상 및 양육자녀유무에 따른 경제적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소득분배 차원에서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였음.
 - 아동복지권 실현과 자녀유무에 따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의 차이를 경감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미래의 질적인 노동력 확보라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2. 노동시장정책

- 아동빈곤에 대응한 전략으로 Whiteford와 Adema(2007)는 크게 급여를 제공하는 전략(Benefit Strategy)과 부모에게 근로한 기회를 주는 노동 전략(Work Strategy)으로 나눔.
 - 여성의 취업은 탈빈곤에 중요한 요소가 됨. 전세계적으로 이인생계 부양가구는 일인생계부양가구에 비해서 빈곤에 처할 확률이 낮음.
 - 아동빈곤율은 일인생계부양가구의 경우가 이인생계부양가구에 비해서 많게는 7.5배 적게는 1.5배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 아동빈곤율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지출 비율은 대체적으로 반비례한다고 볼 수 있음. 즉, 노동시장정책 지출비율이 높은 국가의 아동빈곤율은 낮다는 것임.
- 단, 여성이 취업할 수 있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보육정책임.
 - 노동시장정책과 함께 보육비용을 낮추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
 - 이 밖에 여성 취업률을 제고시키는 요인으로 부성휴가와 탄력적 근

무제도, 이전소득 규모, 세율, 계약직 관련 공공정책 등이 있음.

3. 현물지원: 각종 start 사업

가. 한국의 희망스타트

-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0~12세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보건·복지·교육(보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보건복지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활용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여건을 보장하는 프로그램
- 시범사업 서비스 수혜아동규모는 1개소당 300명수준으로 16개소 총 4,800명으로 추정
- 사업예산은 1개소 당 운영비 300백만원씩 16개소에 4,800백만원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개발, 정보시스템 구축, 종사자 교육 등 250백만원 등으로 총 5,050백만원 지원

나. 한국의 WE Start

- 0~12세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사례관리, 건강 지원, 보육과 교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인적자본개발서비스
 - WE Start는 아이들에게 복지(Welfare)와 교육(Education)을 지원해 공정한 삶의 출발(Start)를 돕는 시민운동
- 표적집단은 빈곤지역 저소득층 아동인구 300~500명 지역
 - 공공부조 수급자와 근로빈곤층, 태아기부터 12세 아동과 부모 및 가정을 포함
- WE Start운동은 'We Start'마을 만들기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하여 교육출발선 만들기, 건강지킴이, 후견인 맺기, 희망의집 꾸미기 등

의 사업을 5대 사업으로 추진

- 현재 4개 광역 20개 지역이 WE Start마을로 지정
- WE Start운동의 효과는 다음과 같음
 - 아동의 건강상태와 영유아의 영양상태가 호전
 - 사회정서적인 면에서 긍정적 변화 및 학업성취도 향상
 - 부모자녀간 상호작용 및 애착정도 증가
 - 부모의 우울증상이 감소, 정신건강 향상

다. 미국의 헤드스타트

□ 개요

- 미국의 헤드스타트(Head Start)는 빈곤아동의 학습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공되는 조기개입 서비스임.
 - 법적 근거는 1981년 일괄예산조정법(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의 하위법으로 제정된 헤드스타트법(Head Start Act)이며 현재 독자적인 법으로서 사업실행의 근거가 되고 있음.
- 헤드스타트 주대상은 빈곤선 이하 가구에 있는 3~6세 아동임.
 - 대상아동의 90% 이상은 빈곤아동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장애아동은 10% 이상 구성해야 함.
- 주관기관은 보건인적자원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 산하 아동가족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내의 전담부서인 헤드스타트실임.
 - 헤드스타트실은 헤드스타트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영리 및 비영리기관에게 운영예산을 기금형태로 지원함.
- 일선 사업수행기관은 헤드스타트센터(Head Start Center)임.

- 군(county, sub-county), 읍(town), 대도시로 인구조사표준지역(census tract)을 지리적으로 구분하여 이를 기초단위로 삼아 센터를 설치함.
- 센터에는 직원이 상주하며 대상아동 선정, 서비스기관 연계, 프로그램 진행 등 역할을 담당함.
- 헤드스타트에 투입되는 연방정부의 재정은 2005년 68억달러(6조8천억원)를 상회함.
 - 2005년 현재 약 91만명의 아동이 프로그램에 참여함.
 - 헤드스타트 사업이 최초로 시행된 1965년 이래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 2,300만 아동이 헤드스타트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됨.
- 사업내용은 빈곤아동의 사회성, 학습능력, 건강수준을 증진하기 조 기교육을 목표로 하며 이에 따라 빈곤아동 및 가족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함.

□ 헤드스타트 효과

- 헤드스타트는 빈곤아동에 대한 교육적 효과, 성장발달 효과, 기타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단기적 및 장기적 교육효과로는 헤드스타트를 이수한 아동은 인지 및 사회·정서적 영역에서 개선을 보여 줌. 또한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헤드스타트 조기교육을 이수한 아동은 취학 후 학업성취도 향상, 유급비율 감소, 학교진학률 증가, 특수교육 등록 등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으로 보고됨.
- 헤드스타트 참여아동은 보건상태의 개선, 운동신경과 신체발달, 면역력 증가를 나타냄.
 - 조기헤드스타트 참여아동은 인지력과 언어력 발달, 높은 정서적

교감, 낮은 공격성을 보임.

- 헤드스타트로 인한 간접적인 효과로 아동범죄율 감소가 있음.
- 헤드스타트 아동의 부모들은 학업지원에서부터 정책결정에 이르기까지 헤드스타트에 관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임파워먼트를 획득함.

라. 영국의 Sure Start

- Sure Start란 빈곤층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동이 인생을 어려서부터 확실하게(Sure) 출발하도록(Start) 돕는다는 의미임.
 - 1998년 4세 이하의 아동과 부모에게 양질의 보육, 아동보호, 놀이, 산전 및 기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됨.
 - 사업의 목적은 아동의 사회적 및 정서적 발달, 건강 증진, 학습능력 향상, 가족의 역량 강화 등임.
- 서비스를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11개의 부처임.
 - 지방정부는 모든 가족에게 센터를 홍보함. 기존의 서비스가 많이 제공되지 않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함.
 - 2004년 현재 524개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정부는 5억 파운드를 지원함.
- Sure Start의 대상 아동은 5세미만 아동, 특히 저소득층으로서 사회적 지원으로부터 배제된 아동 및 가족을 주요 표적집단으로 함.
 - 영국에서는 서비스의 수혜 대상을 점차적으로 늘려서 현재는 청소년(미혼모 포함)까지 포함함.
- Sure Start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며(사업의 이름을 Sure Start Local Programmes으로 함: SSLPs), 다양한 기관이 영국의 가장 취약한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계획됨. 사업의 최종적인 목적은 0-4세 아동의 복지와 삶의 기회보장 및 성취에 있음.

□ SSLP(지역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의 보건복지 효과

- 260개의 SSLP 실시지역과 영국의 미실시 지역의 보건복지수준을 비교를 했을 때, Sure Start를 실시한 지역에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

□ 사회적 효과

- Sure Start는 행동장애 아동 가족에 대한 개입을 통해서 아동의 행동을 개선시켰음. Morrow와 Malin(2004)에 의하면 Sure Start를 통해서 부모의 임파워먼트가 제고되어 역량강화와 실천기술의 개발되었고, 지역사회내에서 다양한 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됨.
- 전문가와 민간 간, 즉 교육, 보건, 복지, 심리 전문가와 민간단체와의 공동작업이 보다 효과적이 되었다는 연구결과도 나옴.

제7장 주요 빈곤아동 지원정책의 빈곤완화효과

1.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율 감소효과

- 절대빈곤율을 기준으로 공사적 이전소득 전후의 빈곤율을 비교함으로써 빈곤감소효과를 분석함. 공적이전소득에는 공적 연금과 기타 사회보조사수가 포함됨. 사적이전소득은 친인척으로부터의 지원이 포함됨.
 - 공적이전소득은 지난 9년간 꾸준히 증가함. 특히 2002년의 경우는 상승폭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아동빈곤율은 가장 낮게 나타남.
 - 사적이전소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규모면에서는 모든 년도에 있어서 사적이전소득이 공적이전소득보다 2배에서 5배 가량이나 더 많았음.
 -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율 감소효과 상의 비중은 1998년에는 10%대에

불과하였지만 점차 상승하여 2001년에는 40%를 상회하였고, 그 이후에는 약간 감소하여 30%대를 보이다가 다시 점차 상승하여 2006년에는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 아동빈곤율이 감소하기 위해서는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더욱 상승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각종 형태의 현금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2. 아동수당제도의 빈곤율 감소효과

- OECD 아동수당급여 평균인 7.7%를 적용하여 계산된 아동수당 월10만 원을 적용했을 때,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절대아동빈곤율이 4.8%에서 3.4%로 29%나 감소하고,
 - 상대아동빈곤율은 8.4%에서 4.8%로 절대아동빈곤율보다 더 많은 43%가 감소함. 연간 소요예산은 연 13조가 소요됨.

3. 기혼여성 취업정책의 빈곤율 감소효과

- 1인생계부양자와 2인생계부양 가족의 절대아동빈곤율은 각 5.6%와 1.5%로 생계부양자가 가족에 1명 증가함으로 빈곤율이 73.2%나 감소함. 상대아동빈곤율도 9.0%에 3.2%로 64.4%나 감소시킴.
 - 가족성원의 경제활동참여,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은 아동빈곤을 줄이는데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음.

4. 시사점

- 공적이전(공적연금과 사회보장수혜비), 아동수당, 여성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아동빈곤율을 낮추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절대아동빈곤율을 낮추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노동시장정책(73%)이었고, 그 다음이 아동수당(29%) 그리고 공적이전소득(19%)은 아직까지는 가장 미약한 기여만을 하고 있음. 단 사적이전소득을 포함하게 되면 총 아동빈곤감소 효과는 약 37%에 달함.
- 아동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한 정책만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책들은 동시에 강화하거나 도입해 나가야 할 것임.
 - 특히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보육제도도 공고화되도록 함.

제8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아동빈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미래 사회에서 매우 경쟁력 없는 노동력이 배출됨. 이로 인해 사회의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고 이는 국가전체의 발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됨.
 - 가족은 더 이상 복지를 제공해 주는 곳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되 가구주의 직업 활동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고용상태가 안정되어야 하고, 소득이 일정수준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며, 부모들이 안심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육제도가 공고해져야 할 것임.
 - 향후 지원은 차상위계층도 포함하여 지원해야 함.
- 향후에는 각종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후속 작업이 필요함. 또한 선진제국에서 빈곤아동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정책을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타진하는 작업도 요구됨. 아울러 보다 자영업직종을 포함하고 농어촌가구도 포함된 포괄성 있는 데이터분석을 통해서 객관적인 빈곤율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빈곤 문제는 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의 정책적 관심사이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1987년에 정부가 '1990년까지 아동빈곤을 종식시켰다'고 약속하였고, 캐나다에서는 1989년에 '2000년까지 아동빈곤을 제거하는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하였다. 영국에서는 2004-5년까지 저소득층에 사는 아동수를 반으로 줄일 목표를 설정하였고, 2010년까지는 빈곤아동수를 반으로 2020년까지는 빈곤아동수를 제로로 만들 목표를 세우고 있다 (Whiteford and Adema, 2007).

아동빈곤은 국가의 경제수준을 막론하고 존재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영미권 국가에서의 아동빈곤율은 15% 이상으로 국가의 경제수준과 무관한 채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의 아동빈곤은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소득 부족에서 파생된 과거의 아동빈곤과는 달리 일련의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Vleminckx and Smeeding, 2003).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가족해체의 가속화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증가,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등과 같은 사회문제는 아동의 경제적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¹⁾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전통적 남성 일인생계부양자 가구를 전제 한 사회보장 중심의 복지정책의 변환, 즉 복지국가의 재편을 요구한다. 선

1) 임신, 출산, 양육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돌봄의 문제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세계화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배제를 Taylor-Gooby(2007)는 '신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라고 명명하였다.

진 국가들은 과거에는 남성에 대한 소득보전 중심의 복지국가이었다면, 현재는 제조업의 쇠퇴와 서비스 산업의 확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가족의 변화, 저출산과 고령화 등 노동시장과 가족을 둘러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중심의 복지국가로 재편되고 있다(윤홍식, 2007). 한국은 전통적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구사회적 위험에 대처함과 동시에 새로운 복지국가로의 재편의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아동빈곤에 대한 시각은 이와 같이 전통적인 사회적인 위험의 시각으로 뿐 아니라 신사회적 위험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전자는 아동빈곤가족에 대한 소득지원정책이고, 후자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Whiteford and Adema, 2007). 소득지원은 전통적인 탈빈곤 정책으로 공공부조, 아동수당, 세제 지원 등의 소득지원을 통해서 가구소득을 제고하는 것이다. 반면 노동시장정책은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을 통해서 가족이 고정 수입을 가짐으로 탈빈곤하게 하는 것이다. 어느 정책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일고 있으나, 다양한 정책을 혼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동빈곤 축소에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주어진 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효과적인 정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있고, 우리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일련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노동시장정책이 탈아동빈곤에 효과적이다(Adema & Whiteford, 2006; Solera, 2003). 공사적 이전소득에 비해서 생계부양자가 증가할 때 탈빈곤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OECD, 2007). OECD 국가에서 2인생계부양자 가족에서는 아동빈곤율이 1인생계부양자 가족보다 4분 3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Forster and d'Ercole, 2005). 즉, 기혼여성의 사회진출은 가족내 빈곤을 완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Solera, 2003). 그러나 아동양육이나 노인돌봄, 가사노동 등 재생산노동의 책임이 여성에게 부여되어 있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 노르딕 국가의 아동빈곤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Kammerman and Kahn, 2003; Luxley, Dang, Forster & Pellizzari, 2003; Meyers, Gornick, Peck & Lockshin, 2003). 보편적인 복지제도에는 아동수당, 가족수당, 무료 공보육제도 등이 있다.

아동이 건강하지 못할 때, 그 사회의 미래는 밝을 수 없다. 빈곤한 아동은 학업중퇴, 10대 자살, 알코올 중독, 비행, 10대 임신 등의 가능성이 많다(Children's Defense Fund, 2005; Buchel et al. 2003). 더구나 아동의 빈곤으로 교육기회가 감소하게 되면, 이로 인해 성인이 된 후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실업에 처할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구인회, 2003; Crosson-Tower, 2001; Gregg and Machin, 2003; Esping-Andersen, 2002).

빈곤한 아동은 경제적 박탈뿐 아니라 신체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심리적 박탈 등을 경험하게 된다(Korenman et al. 1995; Hill and Sandfort, 1995). 부모가 취업을 하고 있어 돌보아 줄 양육자가 없는 저소득층 아동들은 방임되거나 사회적으로 방치된 상태에서 성장하게 될 위험을 안고 있고, 자존감 저하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비행청소년화 할 위험성도 높다(Esping-Andersen, 2002).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신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증가하고 있는 가족해체, 불안정한 고용율 증가 등은 아동가족의 빈곤을 초래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에 대한 복지정책이 매우 최소한으로 제공되고 있어 빈곤아동은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아동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미약하여 아동의 복지수준은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아동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러한 권리가 우리 사회에서는 약한 상태에 있

는 것이 현실이다.

아동을 위한 복지예산은 다른 분야의 예산에 비해서 적은 상태이다. 2007년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 예산은 723억원인데 비해, 노인복지 예산은 3,929억원으로 아동복지 예산의 8.1배나 된다(보건복지부, 2007). 이를 1인당 복지비로 환산하면, 아동인구는 11,000천명이고, 노인인구는 4,200천명이므로 아동 1인당 복지비는 6,381원, 노인 1인당 복지비는 136,000원이 되는 셈이다(아동의 21배). 공공부문에서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주로 극빈층을 위한 정책이어서, 빈곤아동에 초점을 둔 가족정책이 충실치 못하여 실제로 빈곤아동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및 아동가족을 위한 현금지원제도인 아동수당이나 가족수당이 존재하고 있지 않아서 아동빈곤의 탈출 가능성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빈곤아동의 이러한 사회적 박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동빈곤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현행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짚어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아동빈곤의 연구는 매우 일천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전국적인 통계자료의 미흡 및 아동의 범위의 부정확으로 공식적인 아동빈곤율조차 제대로 제시되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에 들어서야 소수의 연구 및 학위 논문들이 나오고 있다. 기존의 연구는 아동빈곤의 변화경향(류연규·최현수, 2003), 아동빈곤의 원인(이순아, 2005), 공·사적이전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김교성, 2002; 윤홍식, 2004), 가구형태별 아동빈곤현황 비교(류연규·최현수, 2003; 윤홍식, 2004; 이순아, 2005) 등을 다루었다.

향후 사회를 이끌어 갈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위한 사회 환경이 적절하게 조성되어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아동의 '삶의 질' 제고는 출산율 제고 정책과 함께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아동의 빈곤수준을 측정하고 아동빈곤의 원

인과 빈곤이 아동에게 주는 영향을 규명하며, 빈곤아동가구가 탈빈곤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은 어느 정도나 되나?
- 아동가구의 빈곤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빈곤이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며, 그 영향력 어느 정도인가?
- 효과적인 탈아동빈곤 지원정책은 무엇인가?
- 주요 탈아동빈곤 정책의 빈곤감소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본 연구를 통해서 증가하고 있는 아동빈곤에 대해 정책적으로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 아동빈곤을 줄임으로 모든 아동의 삶의 기회가 보장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2절 연구내용

본 연구는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아동빈곤에 대한 개념과 연구 분석틀을 다루고 있다. 제3장의 한국아동 빈곤실태에서는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은 다음과 같은 몇 개의 차원별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절대 및 상대빈곤실태(중위소득의 40%, 50%, 60%), 가구유형별 빈곤실태(노인가족, 모자가족, 일반가족, 한부모가족 등), 가구주 특성별 빈곤실태(성, 학력) 가족규모(아동수 등)별 빈곤규모, 빈곤갭 등을 추계하고, 빈곤율 국제비교를 실시한다.

제4장에서는 아동빈곤의 원인을 살펴본다. 생태체계학적 관점을 도입하여 빈곤의 원인을 미시체계(가구주 특성), 중간체계(가구특성, 소득·소비특성), 외체계(노동시장, 사회보장제도, 빈곤정책)로 구분하여 각 체계별 결정요인을 추출하여 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한다. 여기에는 가구주 특성(성, 연령, 교육, 배우자 유무), 가족구조 특성(가구원 수, 보육아동유무, 가족유

형: 한부모, 조손세대 등), 소득소비구조 특성(가구주 직업, 취업인원수, 교육비/소비지출), 사회보장 특성(공적이전소득/경상소득)이 포함된다.

제5장에서는 빈곤이 아동에게 주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한다. 한국의 복지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빈곤이 아동의 사회심리, 학교성적 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제6장에서는 국내외 빈곤아동지원정책을 고찰한다. 이를 공공부조, 아동수당, 노동시장정책, 사회복지서비스(각종 스타트 사업)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제7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빈곤아동지원정책의 탈빈곤효과를 분석한다. 공적 및 사적이전소득의 탈아동빈곤 효과와 아동수당 도입시 탈아동빈곤 효과, 여성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도입시 아동빈곤을 감소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8장은 결론부분으로 연구의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되, 탈아동빈곤정책 개선방안을 연구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안한다.

제3절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국내외 문헌연구로서 아동빈곤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정부간행물, 통계자료, OECD 간행물, LIS working paper 등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아동복지제도 현황, 복지에 산, 아동복지관련 최근 연구 동향 등을 살펴본다.

둘째, 본 기존의 데이터에 대한 2차 자료를 분석한다. 아동빈곤율을 추계하기 위해 1998년에서 2006년에 이르는 9년간의 도시가계조사 데이터(1998~2002년)와 전국가계조사 데이터(2003~2006년)를 재분석한다. 아동빈곤율의 국제비교를 위해서 Luxembourg Income Study에서 생산한 조사자료를 2차 분석한다. 빈곤의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가장 최근인 2006년 전국가계조사 데이터를 2차 분석한다. 빈곤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생산한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2차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3회에 걸친 workshop를 실시하고, 1회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제1차 workshop에서는 연구의 전체적인 방향과 주제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틀을 확정하고, 제2차 workshop에서는 연구의 중반기로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과 향후 보완점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3차 workshop에서는 연구의 마무리 단계로서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와 정책개선 과제의 내용을 진단한다. 아동복지 관련 공무원, 학계전문가, 아동시설 및 단체실무자와의 정책간담회를 통한 아동복지정책 종합개선방안 마련한다. 연구의 수행체계 및 방법은 [그림 1-1]에 제시하였다.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및 연구방법

연구주제	주요연구내용	연구방법
아동빈곤에 대한 이론적 고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빈곤의 개념과 유형 연구분석틀 	문헌고찰
아동빈곤율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특성별 아동빈곤율 측정 아동빈곤율의 국제비교 	가계조사 분석 UIS 자료 분석
아동빈곤의 원인과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태체계적 관점에서의 아동빈곤의 원인 규명 빈곤의 직접적 및 간접적 영향 분석 	가계조사 분석 복지패널 분석
국내외 탈아동빈곤정책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부조, 아동수당 제도 비교 노동시장정책, 사회복지서비스 정책 비교 	문헌고찰
빈곤아동지원 정책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적 이전소득, 아동수당의 빈곤완화 효과 노동시장정책 정책 효과 분석 	가계조사 분석 모형설계
빈곤아동 지원정책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에서 도입이 필요한 정책 수립 빈곤아동 예방책 마련 	결과종합

제2장 아동빈곤의 개념 및 연구분석틀

제1절 아동빈곤의 개념과 유형

1. 아동빈곤의 개념과 소득유형

아동빈곤이란 성인빈곤이나 노인빈곤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통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빈곤한 가족에 속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아동빈곤은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의 빈곤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들은 피부양자이고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사회정책적인 관심을 덜 받기 때문에 빈곤할 확률이 높는데, 이를 '빈곤의 아동화'(Juvenilization of Poverty)라고 한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남성에 대비하여 여성이 빈곤할 확률이 높은 것을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라고 부른다.

그러면 어떠한 아동(혹은 아동이 속한 가족)을 빈곤한 아동으로 규정할 수 있나? 빈곤이란 소득의 부족, 낮은 지출 수준, 열악한 주거, 낮은 수준의 건강, 교육 및 기타 사회서비스 수준을 말한다(Förster and d'Ercole, 2005). 빈곤한 아동은 이와 더불어 부모로부터의 애정 결핍과 같은 개인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결핍을 경험하기도 한다.

빈곤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지표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구의 소득(수입, income)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가구의 지출(consumption)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Bradbury, Jenkins & Micklewright, 2001). 소득은 가족이 사용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 그런데 아동은 가구의 소비나 저축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동빈곤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소득이 적당하지 않을 수 있다(Bradbury, Jenkins & Micklewright, 2001). 반면, 아동빈곤의 연구에서는

오히려 소비를 기준으로 빈곤가정을 판별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도 함정은 있는데, 소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식 및 비공식 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이나 계절적인 소비 성향 등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더욱이 탈빈곤정책을 모색함에 있어서 공적이전소득이나 세제혜택 등의 소득지원을 통한 정책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을 기준으로 아동빈곤을 측정하는 것이 정책을 평가하고 수립하는데 더 타당한 도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Solera, 2003). 본 고에서는 빈곤율을 측정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용한 가구수입을 기준으로 빈곤 대비빈곤 아동을 구분하고자 한다.

소득은 여러 유형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통계청의 소득구분과 OECD의 소득구분이 차이가 난다(박찬용·강석훈·김태완, 2002). 본 고에서는 빈곤연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OECD의 구분한 소득분류를 사용하였다. OECD에서는 소득을 1차소득, 시장소득, 총소득, 가처분소득으로 나눈다(표 2-1 참조). 1차소득(Primary Income)은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을 말한다. 1차소득에 사적 이전소득(기업연금 및 개인간 이전소득, 예를 들면 부양금, 양육비 등 현금으로 지급되는 정기적인 소득)을 포함시킨 것이 시장소득(Market Income)이다. 시장소득에 공적이전 소득(사회보험 및 사회부조 현금급여)을 포함시킨 것이 총소득(Gross Income)이다. OECD 국가에서 분류한 총소득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상소득과 일치한다. 경상소득(총소득)은 주로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와 대칭된다는 관점에서 사용된다(김미곤·김태완, 2004). 즉 절대빈곤을 측정할 때 많이 활용된다.

한편, OECD에서 제시한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이란 총소득에서 사회보장부담금과 소득세를 제외한 소득으로 빈곤율의 국제비교시 유용한 소득이다. 본 고에서는 아동빈곤율의 국제 비교를 위해서 '가처분소득' 수준도 동시에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빈곤율 수준을 주

요 OECD 국가와 비교하였다.

<표 2-1> 통계청과 OECD 소득구분 비교

통계청		OECD						
소득	비경상 소득	경조소득 폐품매각 대금 기타					가처분소득 (Disposable Income)	
	경상 소득	근로소득		Wage and Salary Income	1차소득 (Primary Income)	시장소득 (Market Income)		총소득 (Gross Income)
		사업 및 부업소득		Gross Self-Employment Income				
		재산소득		Realised Property Income				
		이전 소득	사적	Occupational Pensions & Other Private Cash*				
			공적	Social Insurance, Social Assistance, Other Cash Benefit				
지출	비소비 지출	공적연금	사회보장부담금					
		사회보험						
		조세	소득세					
		기타 비소비지출	재산세, 토지세, 자동차세, 면허세 등					
	소비 지출							

주 *: 정기적인 사적이전소득, 즉 부양금, 양육비, 기타 정기적 현금소득 등

자료: 박찬용·강석훈·김태완, 『소득분배와 빈곤동향 및 변화요인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p28.

2. 아동빈곤의 유형: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일반인 빈곤과 마찬가지로 아동빈곤도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으로 나뉘

다. 둘 다 일정한 빈곤선(poverty line)을 기준으로 빈곤을 규정한다. 절대 빈곤이란 가장 오래된 빈곤의 정의로 생존을 위한 최저한의 물질의 결핍 상태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절대빈곤선을 사용하여 빈곤을 측정한다²⁾. 이는 한 가족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최저한의 액수(Dollars)로 표현된다(Vleminckx and Smeeding, 2003). 최근 학계에서는 빈곤선을 보다 정확하게 책정하여 빈곤정책을 효과를 보다 제고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아동이 속한 가족의 월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절대아동빈곤 가구로 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추계한 지난 9년간의 최저생계비는 <표 2-2>와 같다.

<표 2-2> 1998~2006년 중소도시기준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구분	1	2	3	4	5	6	7
1998	289,012	482,560	678,268	848,195	966,326	1,085,187	1,204,047
1999	314,574	520,984	716,579	901,357	1,024,843	1,156,441	1,288,039
2000	324,011	536,614	738,076	928,398	1,055,588	1,191,134	1,326,680
2001	333,731	552,712	760,218	956,250	1,087,256	1,226,868	1,366,480
2002	345,412	572,058	786,827	989,719	1,125,311	1,269,809	1,414,307
2003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1,307,904	1,456,738
2004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1,353,680	1,507,723
2005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1,652,682
2006	418,306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1,731,522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각 년도(2000~2006년)

김미곤 외, 『199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1998~1999년의 최저생계비는 1994년과 1999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연도별 균등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함.)

2) 미국에서 절대빈곤의 개념은 1960년대 Kennedy와 Johnson 행정내각에서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했을 때 처음으로 사용되었다(Vleminckx and Smeeding, 2003).

상대빈곤이란 공동체 인식을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의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여유진 외, 2006). European Commission에서는 빈민이란 '자원(물질, 문화, 사회)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한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의 수준으로부터 배제된 사람, 가족,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Vleminckx and Smeeding, 2003).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빈곤을 측정할 때, 한 사회의 구성원의 삶의 수준과 '비교하여' 개인이나 가족이 소유한 자원의 양을 측정한다는 데 있다. 상대빈곤선도 절대빈곤선과 마찬가지로 소득(Income)으로 표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공공부조 제도로 인해서 절대빈곤은 상당히 완화되었지만, 사회의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 심화는 구성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따라서 절대빈곤보다는 상대빈곤에 주목하여 빈곤현상을 파악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아동빈곤 문제를 진단하는데 더 적합할 수 있다. 상대빈곤선은 시기와 국가에 따라서 변화하는데, OECD 등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선이지만 중위소득 40%와 60%도 동시에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을 동시에 사용하여 아동빈곤실태를 살펴보았다. 빈곤의 분석 단위로는 가구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아동빈곤율은 전체 아동이 있는 가구 중 빈곤아동가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사용한 빈곤선은 정책빈곤선인 최저생계비와 OECD 및 LIS에서 주로 사용하는 중위소득 40%, 50%, 60%를 사용한다. 특히, 상대빈곤율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빈곤의 역동성을 살펴보려 하였다. 즉, 어느 소득을 중심으로 빈곤층이 밀집되는가를 파악하였다.

빈곤을 측정하기 위한 소득은 절대빈곤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 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포함한 경상소득을 사용하여 정부가 발표한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가구의 빈곤여부를 판별하였다. 상대빈곤의 경우는 경상소득에서 소득세와 연금, 사회보험료 등 사회보장부담

금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을 산출한 후 가구규모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가구균등화지수를 사용하여 균등조정가처분소득을 산출하였다. 이를 상대빈곤선인 중위소득 40%, 50%, 60%와 비교하여 개별가구의 빈곤여부를 판별하였다.

아울러 빈곤갭 비율(Poverty Gap Ratio)을 분석하여 아동빈곤을 뿐 아니라 아동빈곤의 깊이(depth)도 파악하고자 하였다. 빈곤갭 비율이란 개인(또는 가구) n 명으로 구성된 경제에서 빈곤층에 속한 개인(또는 가구) i 의 빈곤갭은 빈곤선과 빈곤성 이하에 있는 개인(또는 가구)의 소득차이다(박찬용 외, 1999). 빈곤갭은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개인(또는 가구)의 소득을 빈곤성 상태로 올리는데 필요한 액수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빈곤갭 비율이 20%이면 이는 최저생계비 이하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0'일 때 이 가구를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비용이 총 비용의 20%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박찬용 외, 1999). 빈곤갭 비율이 커질수록 빈곤의 깊이가 깊다는, 즉 빈곤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빈곤갭은 빈곤의 깊이는 제시하지만 빈곤의 규모는 나타내주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빈곤 측정시 다양한 지표를 사용하여 빈곤의 제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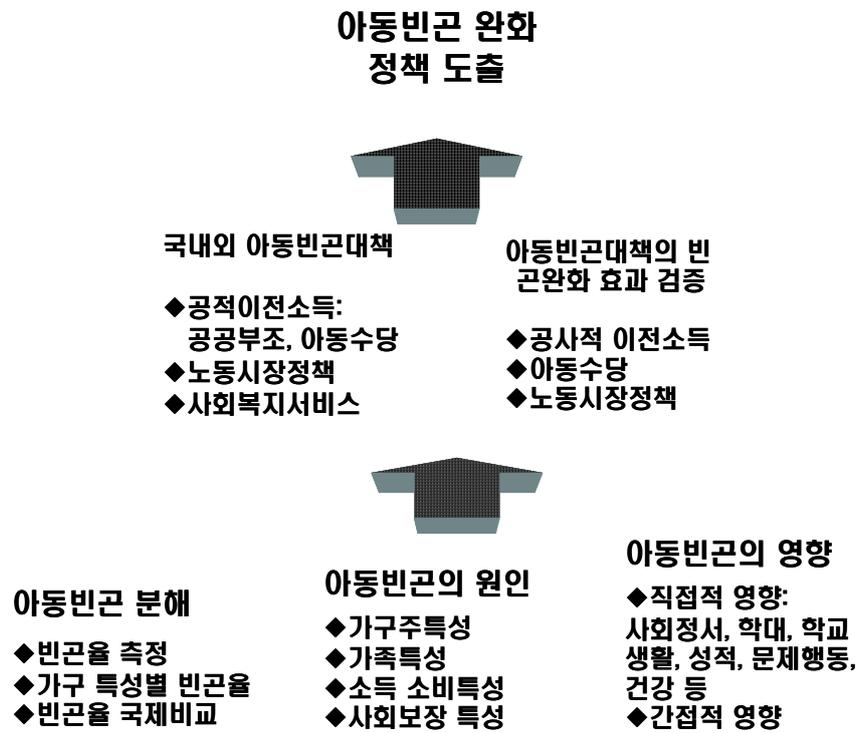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자료의 가용성을 기준으로 1998년에서 2006년의 9년으로 하였다.

제2절 연구분석틀

본 연구의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빈곤수준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아동빈곤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빈곤 완화 정책의 단초를 파악한다. 빈곤이 아동의 사회정서에 주는 부적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빈곤이 아동에 주는 대가와 사회비용을 고찰한다. 국내외 빈곤아동정책에 대한 비교 고찰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도

입이 필요한 빈곤아동 지원제도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대안적 정책을 고찰한다.

[그림 2-1] 연구분석틀



제3장 한국의 아동빈곤실태

제1절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

아동빈곤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절대 및 상대 아동빈곤율, 가구유형, 가구주 성, 교육수준, 직업유형, 아동수, 가족수별 아동빈곤율 추이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빈곤갭과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 수준을 주요 OECD 국가로 국제비교 하였다.

아동빈곤율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지난 9년간 우리나라의 전체빈곤율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표 3-1>에 제시된 것과 같이 전체가구의 절대빈곤율은 1998년에서 2002년까지는 감소하다가 2003년부터 2004년까지는 증가하였고 다시 2004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998년의 빈곤율은 7.4%이었고, 2002년에는 4.1%이었다. 2006년 현재 전체 가구 절대빈곤율은 도시의 경우는 5.0%이고 전국은 5.3%에 이른다. 즉, 농어촌 지역을 포함시킨 전국의 빈곤율은 도시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보다 높아 농어촌 지역의 빈곤층이 도시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도시지역 아동빈곤율은 1998년 8.0%에서 2002년에는 4.4%로 감소하다가 2004년을 정점으로 하여(7.4%) 감소하고 있다. 전국의 경우도 2003년 5.9%에서 2006년에는 5.0%로 다소 하강한 추세이다. 아동빈곤율도 도시보다는 농어촌을 포함한 전국의 빈곤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나 농어촌 아동이 빈곤할 가능성이 약간 더 높음을 시사한다.

<표 3-1> 전체가구 및 아동가구의 빈곤율(1998~2006년, 자영업자 제외)

(단위: %)

연도	대상가구별 절대빈곤율						아동가구 상대빈곤율					
	전체가구		비아동가구		아동가구		중위소득 40%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60%	
	도시	전국	도시	전국	도시	전국	도시	전국	도시	전국	도시	전국
1998	7.4	-	6.3	-	8.0	-	6.1	-	10.8	-	17.2	-
1999	8.4	-	7.8	-	8.8	-	6.2	-	10.6	-	17.1	-
2000	6.4	-	6.0	-	6.7	-	5.2	-	9.8	-	16.7	-
2001	5.2	-	4.9	-	5.4	-	5.0	-	9.9	-	17.0	-
2002	4.1	-	3.8	-	4.4	-	4.6	-	9.7	-	17.0	-
2003	5.4	6.0	5.5	6.2	5.3	5.9	6.0	6.7	10.4	11.4	16.7	18.1
2004	7.6	8.3	7.8	8.8	7.4	8.5	6.3	7.1	10.8	11.8	17.0	18.4
2005	5.7	6.2	5.7	6.4	5.7	6.1	6.3	5.5	10.9	8.8	17.6	14.1
2006	5.0	5.3	5.2	5.9	4.8	5.0	5.9	4.9	10.6	8.4	17.0	13.9

주: 1) 도시가계데이터 자료 특성상 1998-2002년도는 근로자가구만 분석하고 2003-2006년도는 전가구를 모두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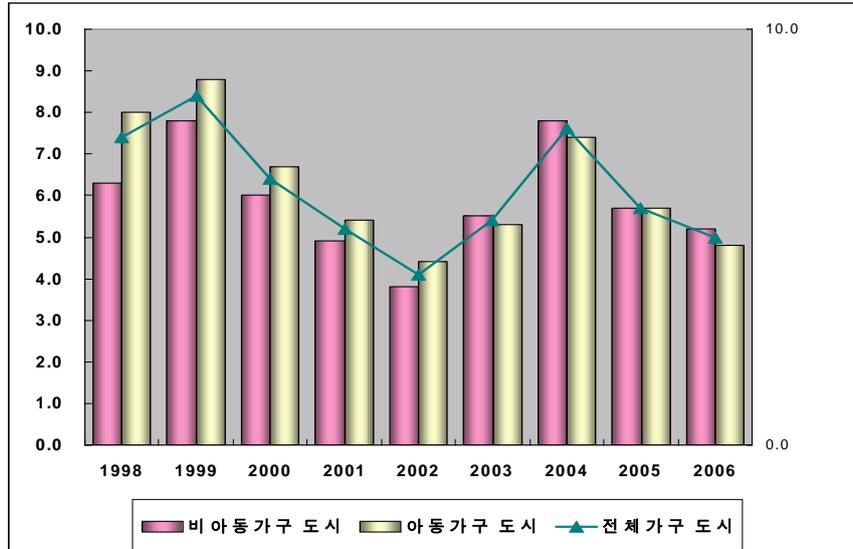
2) 1998-2002년 근로자가구(1인가구, 농어촌지역 제외, 자영업자 제외)

3) 2003-2006년 전가구(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자영업자 제외)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데이터』, 『가계조사데이터』, 각 연도, 원자료 분석.

비아동가구 빈곤율과 아동가구 빈곤율을 비교했을 때, 2002년 이전까지는 아동가구의 빈곤율이 비아동가구에 비해서 약간 더 높았는데, 2003년을 기점으로 비아동가구 빈곤율이 더 높다(그림 3-1 참조). 이러한 변화가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비아동가구 중 노인가구의 급증으로 인한 빈곤율 상승에 기인 한 것인지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림 3-1] 도시아동가구의 절대빈곤율 추이(1998~2006년, 자영업자 제외)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데이터』, 『가계조사데이터』, 각 연도, 원자료 분석.

자영업자를 소득조사에서 포함한 데이터는 2003년 이후인데, 자영업자를 포함한 빈곤율 추이를 보면 전체빈곤율은 2003년 도시 9.6%, 전국 11.2%, 2006년에는 도시 9.9%, 전국 14.2%로 약간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표 3-2 참조). 특히, 자영업자를 포함한 경우 빈곤율이 더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소득이 피고용된 근로자에 비해서 낮음을 알 수 있다. 아동가구의 빈곤율은 2003년 도시는 8.0%에서 2006년 8.0%, 전국은 8.9%→8.5%로 비슷한 하거나 약간 하강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3-2> 전체가구 및 아동가구 빈곤율(2003~2006년, 자영업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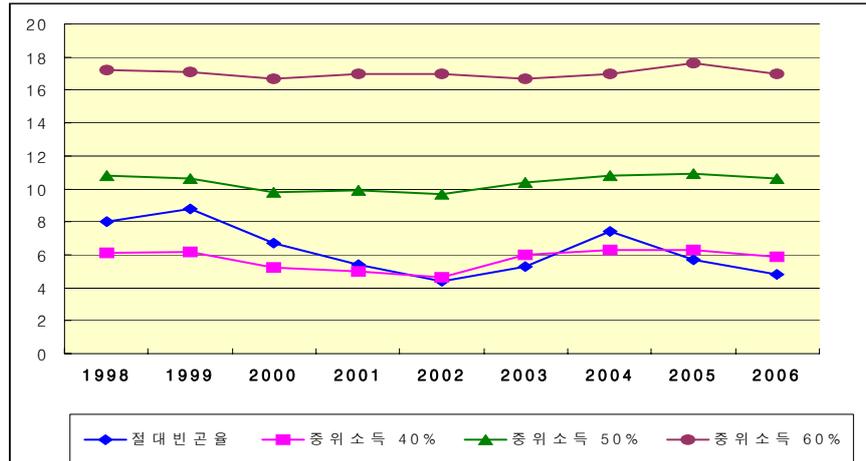
(단위: %, 명)

연도	절대빈곤율		상대빈곤율					
			중위소득 40%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60%	
	도시	전국	도시	전국	도시	전국	도시	전국
전체가구								
2003	9.6	11.2	11.4	11.5	16.6	16.1	23.3	21.5
2004	15.9	17.6	11.8	11.6	17.0	16.3	23.7	22.1
2005	10.2	11.7	10.4	12.0	17.8	16.5	24.8	22.4
2006	9.9	14.2	12.5	16.3	18.3	21.4	25.1	27.4
아동가구								
2003	8.0	8.9	8.8	8.3	13.5	12.6	20.4	17.7
2004	13.0	13.8	9.3	8.4	14.2	12.7	20.7	18.4
2005	8.4	9.0	7.8	8.4	14.5	12.4	21.4	18.1
2006	8.0	8.5	9.4	8.5	14.6	12.7	21.5	18.4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데이터』, 『가계조사데이터』, 각 연도, 원자료 분석.

도시지역 상대아동빈곤율(자영업자 제외)은 중위소득 40%, 50%, 60%의 분포를 보면, 1998년에서 2002년에는 6.1%→4.6%, 10.8%→9.7%, 17.2%→17.0%로 약간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2003년부터 다시 증가하다가 절대빈곤율과 마찬가지로 다시 감소하고 있다(표 3-1, 그림 3-2 참조). 2003년에서 2006년의 기간 동안 중위소득 40%, 50%, 60%의 비율은 6.0%→5.9%, 10.4%→10.6%, 16.7%→17.0%로 약간 감소하거나 현상을 유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전국의 경우는 2003년에 비해 그 이후 아동빈곤율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어,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다양한 탈빈곤정책이 빈곤율 감소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도 향후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그림 3-2] 도시아동가구의 상대빈곤율 추이(1998~2006년, 자영업자 제외)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데이터』, 『가계조사데이터』, 각 연도, 원자료 분석.

빈곤아동의 수는 <표 3-3>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6년의 경우 자영업자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절대빈곤아동수는 545,193명(도시: 523,386명)이고, 상대빈곤아동수는 915,925명(도시: 1,155,810명)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를 포함시킬 경우 빈곤아동수는 더 늘어나서 2006년 절대빈곤아동수는 926,829명(도시: 872,310명), 상대빈곤아동수는 1,384,791명(도시: 1,591,965명)으로 추정된다. 지역적으로 절대빈곤아동수는 전국이 더 많은 반면, 상대빈곤아동수는 도시지역이 더 많았다. 이는 농어촌의 절대 빈곤아동이 도시보다 많음을 시사한다. 즉, 농어촌의 경우는 절대적인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아동가구가 많아, 정책적으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3-3> 빈곤아동수 추이

(단위: %, 명)

년도	전체아동수	절대빈곤아동		상대빈곤아동 (중위 50%)	
		절대아동 빈곤율	추정아동수	상대아동 빈곤율	추정아동수
1998	12,550,763	8.0	1,004,061	10.8	1,355,482
1999	12,303,275	8.8	1,082,688	10.6	1,304,147
2000	12,077,392	6.7	809,185	9.8	1,183,584
2001	11,872,394	5.4	641,109	9.9	1,175,367
2002	11,665,981	4.4	513,303	9.7	1,131,600
2003	11,478,537	5.3	608,362	10.4	1,193,768
		8.0	918,283	13.5	1,549,602
2004	11,297,516	7.4	836,016	10.8	1,220,132
		13.0	1,468,677	14.2	1,604,247
2005	11,105,069	5.7	632,989	10.9	1,210,453
		8.4	932,826	14.5	1,610,235
2006	10,903,869	4.8	523,386	10.6	1,155,810
		8.0	872,310	14.6	1,591,965

주: 음영을 칠한 부분은 전국수치임. 2003-2006년의 둘째줄은 자영업자를 포함한 수치임. 아동수 추계에 있어 도시아동수는 전체아동수와 동일하다고 가정함. 이에 따라 도시 빈곤아동수가 전국보다 높게 추계된 년도도 있음.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데이터』, 『가계조사데이터』, 각 연도, 원자료 분석. 비음영 부분은 도시, 음영부분은 전국임.

제2절 가구특성에 따른 아동빈곤율

어떠한 아동가구가 빈곤한지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에서는 가구유형, 가구주 성, 교육수준, 가구주 직업, 아동수 및 가족수별 아동빈곤율을 살펴 보았다(표 3-4, 3-5, 3-6 참조). 우선, 가구유형에 따른 아동빈곤율 추이를 보면 시기를 막론하고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모자

가구, 일반가구, 맞벌이가구의 순이었다. 특히 노인가구는 조손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전 조손가구의 반이 빈곤함을 알 수 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는 빈곤율이 매우 낮아서 OECD에서 주장하듯이 2인생계부양자 가구에서 아동빈곤이 확연하게 줄어들음을 반증해 주고 있다. 모자가구의 빈곤율도 높은 편으로 이는 한부모가구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을 시사한다.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저렴하면서 양질의 보육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육의 질과 비용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은 상황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저소득 및 저학력의 저소득 여성을 위한 취업기회가 주로 임시직 및 일용직에 집중되어 있어서 모자가족의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다.

<표 3-4> 가구유형별 아동빈곤율(자영업자 제외)

(단위: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체	8.0	8.8	6.7	5.2	4.4	5.3	7.4	5.7	4.8
가구유형						5.9	8.5	6.1	5.3
노인가구	20.8	42.9	50.0	24.4	53.5	64.0	100.0	80.1	67.8
						47.1	85.7	65.0	63.7
모자가구	15.4	19.6	12.6	12.0	13.4	16.3	30.0	14.9	16.1
						16.7	33.9	16.4	17.7
맞벌이가구	3.1	4.3	2.8	2.3	1.6	1.9	2.4	2.8	1.6
						2.0	2.5	2.6	1.5
일반가구	9.9	10.4	8.0	6.6	5.1	6.2	8.3	6.6	5.4
						7.2	9.0	7.2	5.6

주: 음영을 칠한 부분은 전국수치임.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데이터』, 『가계조사데이터』, 각 연도, 원자료 분석

가구주 성별 아동빈곤율은 여성가구주 가구의 아동빈곤율이 남성가구주의 아동빈곤율에 비해 3배에서 5개가량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2006

년의 경우 도시 및 남성가구주 가구의 아동빈곤율은 각 3.2%, 3.3%인데 비해, 여성가구주 가구의 아동빈곤율은 각 17.8%, 18.8%로 남성가구주의 약 5.6~5.7배가 됨을 알 수 있다. 여성가구주 가구는 대부분 모자가구일 것으로 추정되어 여성가장에 대한 취업 및 보육지원이 개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른 빈곤율을 살펴보면, 저학력일수록 아동빈곤율이 높았다. 특히 초등졸이하 가구주의 아동빈곤율이 가장 높았고, 대졸 이상 가구주의 아동빈곤율이 가장 낮았다. 그 다음은 초대졸, 고졸, 중졸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이 세습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동에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매우 핵심적임을 시사한다. 인적자본 투자는 공교육 뿐 아니라 학력수준에 영향을 많이 주는 사교육영역에도 지원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교육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가구주의 직업의 경우 아동빈곤율이 가장 높은 직업유형은 임시 및 일용노무직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자영업이었다. 반면 아동빈곤율이 가장 낮은 직종은 공무원이었고, 그 다음은 사무직,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즉, 고용이 안정될수록, 사무직일수록 아동빈곤율이 낮았다. 우리나라에서 특이한 사항은 자영업자의 아동빈곤율이 높다는 점인데, 자영업에는 전문직은 소수이고 대부분은 영세소상인이 많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직업에서 자영업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아동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공식부문에서의 소득이 안정화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표 3-5> 가구주 특성별 아동빈곤율

(단위: %)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체	8.0	8.8	6.7	5.2	4.4	5.3	7.4	5.7	4.8
가구주 성						5.9	8.5	6.1	5.3
남자	6.8	6.9	5.1	4.1	3.0	3.8	4.7	4.1	3.2
여자	22.1	25.9	18.7	15.4	14.5	4.2	5.1	4.5	3.3
가구주 교육수준						15.4	32.1	19.3	17.8
초등졸이하	22.5	25.9	19.2	11.6	10.4	17.0	34.3	20.4	18.8
중졸	15.8	18.0	14.9	9.0	10.1	13.9	32.8	20.8	13.0
고졸	8.7	9.5	7.3	5.7	5.3	14.8	34.3	21.8	19.1
초대졸	4.7	4.7	5.9	2.7	1.7	9.5	22.6	19.6	16.8
대졸이상	2.3	3.0	1.6	1.7	1.9	11.4	24.7	19.6	17.7
가구주 직업						6.6	9.3	7.6	6.2
공무원	0.4	0.6	0.3	0.3	0.2	6.7	10.0	8.1	6.1
사무직	2.8	3.3	2.1	2.5	2.7	3.1	3.6	3.0	2.5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	9.5	10.1	7.9	6.3	5.2	3.2	3.6	3.4	2.5
임시 및 일용노무자	31.0	35.0	26.3	20.5	12.4	1.5	3.0	1.9	2.1
자영업자	-	-	-	-	-	2.1	3.2	1.9	2.0
						0.2	0.0	0.1	0.2
						0.2	0.1	0.1	0.2
						2.1	3.5	2.3	2.0
						2.7	3.7	2.4	2.0
						4.9	4.6	6.3	5.6
						5.7	5.0	6.8	5.8
						18.0	22.9	22.9	18.5
						19.4	25.9	24.3	19.7
						13.6	23.6	13.5	13.7
						14.8	24.0	14.7	14.4

주: 음영을 칠한 부분은 전국수치임(자영업자 제외, 단 직업의 경우는 포함시킴).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데이터』, 『가계조사데이터』, 각 연도, 원자료 분석

가구의 아동수에 따른 아동빈곤율은 자녀가 1명인 경우가 아동빈곤율이 가장 낮았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빈곤율이 증가하는데, 특히 아동수가 4명인 경우의 빈곤율은 매우 높았다. 즉 저출산 시대에 오히려 다자녀가구의 아동빈곤율이 더 높아, 다자녀 출산이 가족에게는 커다란 비용부담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비용지원이 충분하지 않는 한 다자녀를 원하는 가정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과감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 3-6> 아동수별 아동빈곤율(자영업자 제외)

(단위: %)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체	8.0	8.8	6.7	5.2	4.4	5.3 5.9	7.4 8.5	5.7 6.1	4.8 5.3
아동수									
1명	7.2	7.3	5.9	4.7	3.9	4.9 5.4	7.5 8.0	4.9 5.3	4.2 4.3
2명	8.1	8.9	7.0	5.5	4.5	6.3 7.2	7.2 7.9	6.2 6.5	5.5 5.5
3명	10.8	14.7	8.7	10.0	6.1	8.4 9.2	14.0 18.7	15.5 17.0	6.6 9.2
4명	20.0	25.3	6.3	3.8	8.3	4.2 10.1	9.9 9.4	31.6 27.8	34.4 24.5
5명	-	30.0	66.7	-	-	-	-	67.6	-
가족수									
2명	10.1	11.3	3.5	5.8	6.3	15.1 13.4	22.6 22.5	13.0 15.4	12.7 15.2
3명	7.1	8.8	7.5	6.2	5.4	6.6 6.7	10.4 11.4	5.9 6.2	5.1 5.1
4명	7.9	8.0	6.3	5.2	3.7	4.3 5.0	4.7 5.6	4.0 4.5	3.5 3.7
5명	9.5	10.9	6.2	5.1	5.0	4.8 6.0	9.4 10.5	10.3 10.6	7.8 7.6
6명	8.0	11.6	8.2	5.7	2.3	9.5 9.4	11.1 10.7	12.6 12.5	3.5 4.3
7명	6.8	9.7	9.9	3.7	1.8	16.5 15.7	16.2 16.0	30.4 30.4	20.6 20.6
8명	10.8	3.2	21.6	12.9	24.4	- 4.7	4.5 3.3	27.7 22.6	- -
9명	6.3	7.7	5.6	=	11.1	-	-	-	-

주: 음영을 칠한 부분은 전국수치임.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데이터』, 『가계조사데이터』, 각 연도, 원자료 분석

가족수는 너무 적거나 많은 경우는 빈곤율이 높았고, 가구원이 3~5명이었을 때 아동빈곤율이 가장 낮았다. 즉 양부모가 있고 자녀수는 1명에서 3명 사이일 때 빈곤율이 낮고, 반면 부모 중 1명이 부재하거나 자녀수가 4명 이상인 경우는 빈곤율 확률이 높았다.

제3절 빈곤갭

아동빈곤가구의 빈곤갭 추계결과 도시의 경우 1998년도의 경상소득 빈곤갭 비율은 38.77%이었는데 점차 비율이 감소하여 2002년에는 최저 수준인 29.80%를 보이다가 다시 상승하여 2006년 현재는 34.20%를 보이고 있다(표 3-7, 그림 3-3 참조). 전국의 경우 2003년에는 38.16%이었는데 2004년에는 약간 상승하다가 감소하여 2006년 현재 33.94%를 보이고 있다. 지난 9년간 아동빈곤가구의 도시 평균 빈곤갭은 34.99%, 전국 평균은 36.51%로 도시보다 전국의 빈곤갭이 약간 더 높았다. 이는 농어촌의 경우의 빈곤갭이 도시보다 높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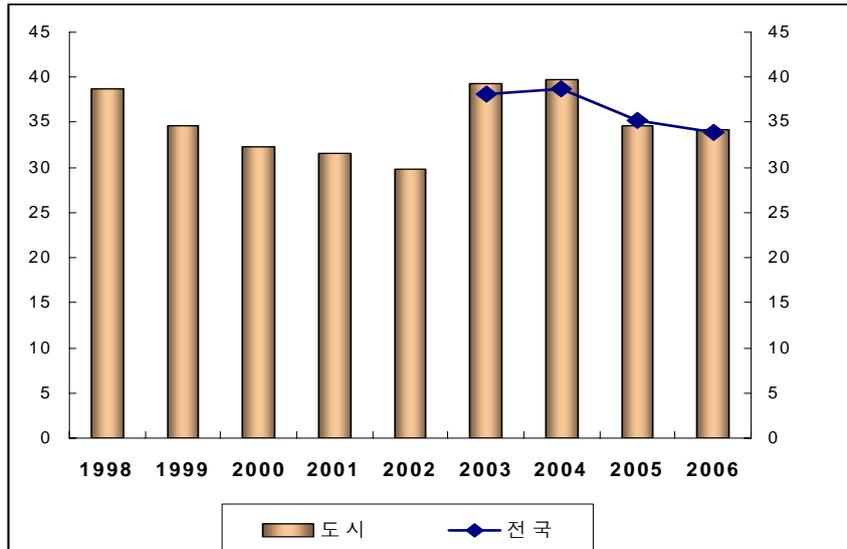
<표 3-7> 아동절대빈곤가구 빈곤갭 추이

(단위: %)

년도	도시	전국
1998	38.77	-
1999	34.63	-
2000	32.31	-
2001	31.50	-
2002	29.80	-
2003	39.34	38.16
2004	39.75	38.71
2005	34.58	35.22
2006	34.20	33.94
평균	34.99	36.51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데이터』, 『가계조사데이터』, 각 연도, 원자료 분석

[그림 3-3] 빈곤갭 추이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데이터』, 『가계조사데이터』, 각 연도, 원자료 분석

제4절 아동빈곤을 국제비교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을 수준을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세계적 수준에서의 아동빈곤을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LIS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LIS 자료에서는 2000년도 각국의 아동빈곤을 측정하기 위해서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빈곤을 측정하였다. 가구유형도 양부모가족, 모자가족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빈곤율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LIS의 데이터가 없어서 도시가계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도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농어촌이나 자영업자가 데이터에 누락되어 있어 아동빈곤율이 낮게 추정되었음을 고려하면서 비교해야 한다.

<표 3-8>와 [그림 3-4]에 제시되었듯이 아동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멕시코로 26.9%이고, 그 다음은 미국으로 21.9%를 보인다. 이어서 영국 17.0%, 이태리 16.6%, 스페인 16.0%, 아일랜드 15.8%, 캐나다 15.5%, 호주 14.9% 등 주로 앵글로 색슨국가와 남유럽국가의 아동빈곤율이 높았다. 반면,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아동빈곤율은 덴마크 2.7%, 핀란드 2.8%, 노르웨이 3.4%, 스웨덴 4.2% 등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중간수준의 아동빈곤율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은 대륙의 조합주의 국가인 오스트리아 7.8%, 프랑스 7.9%, 독일 9.0%, 룩셈부르크 9.1% 등이다.

이러한 아동빈곤율 분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잔여적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영미권 국가에서는 아동빈곤율이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아동수당을 실시하는 국가도 있기는 하지만, 극빈층 아동을 중심으로 사회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여성의 사회진출과 아동의 인지능력을 제고시키는 공보육 비율이 낮은 편이다. 반면, 노르딕 국가에서는 아동수당이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공보육제도가 보편화되어 있고,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이 매우 관대한 편이다. 대륙국가들은 양자의 중간으로 아동수당에 제공하고 있는 국가가 많기는 하나,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 결과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탈아동빈곤율의 단초는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요 국가의 아동빈곤율의 추이가 분명하게 이해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동빈곤율이 9.8%로 대륙형 국가군의 빈곤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가 잔여적임을 고려할 때 이는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이유로 고려할 수 있는 점은 우리나라의 자료는 도시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농어촌 가구를 제외시켰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200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생산한 국민생활실태조사(농어촌 가구 포함)를 기초로 한 아동빈곤율 추정에 의하면 한국의 아동빈곤율은 14.9%이

었다(김미숙, 2006). 따라서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은 영미권 국가의 수준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빈곤율을 저하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가구 유형별로 아동빈곤율을 살펴보았다.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가족해체 현상은 아동과 가족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의 위험성은 아동빈곤율의 분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거의 모든 국가에서 모자가족의 빈곤율은 양부모 가족의 빈곤율에 비해서 적게는 3배에서(덴마크 2.0% vs 6.1%) 많게는 13배까지(네덜란드 2.9% vs 37.2%)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부모 가족의 아동빈곤율 평균은 8.8%이고(전체 가구평균: 11.2%) 모자가족의 아동빈곤율 평균은 27.7%로 3배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모자가족의 빈곤율이 약 40%를 넘는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아동빈곤율이 낮은 노르딕 국가 중 덴마크와 핀란드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모자가족의 아동빈곤율도 1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양부모 가족의 아동빈곤율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낮은 편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아동빈곤에 대책은 모자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으로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모자가족의 여성가구가 아동양육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있도록 보육제도 및 방과후 보육제도가 잘 구비되어야 하겠고, 고용이 안정되고 생활을 보장하는 소득을 보장하는 직업을 갖도록 하는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모자가족의 아동빈곤율이 23.2%로 양부모가구 9.2%에 비해 2.5배 이상 높았고, 외국의 평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모자가족이 양부모가족에 비해 아동이 빈곤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8> OECD 국가의 아동빈곤율(중위 50% 이하) 비교(2000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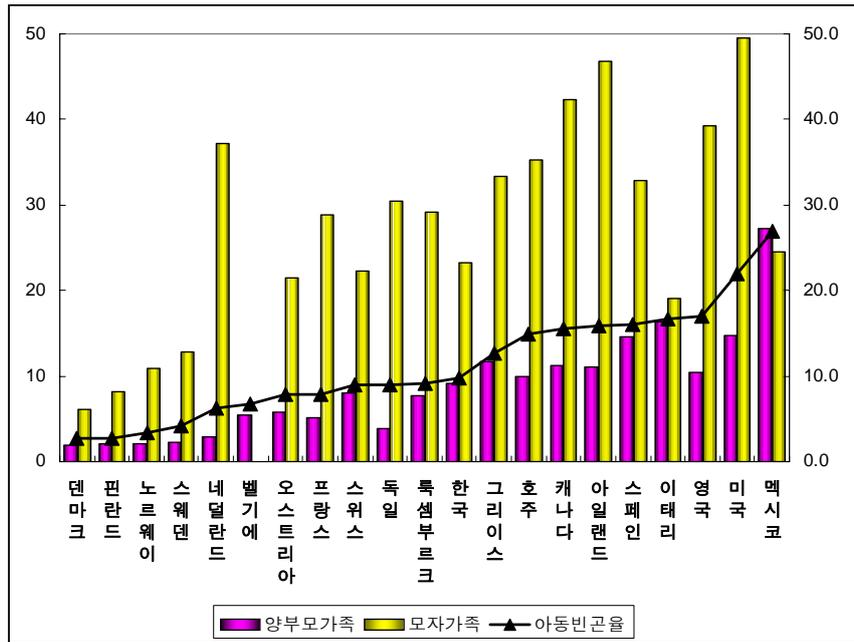
아동빈곤율 수준	국가	아동빈곤율	양부모가족 아동빈곤율	모자가족 아동빈곤율
저빈곤율 국가: 7% 미만	덴마크(2000)	2.7	2.0	6.1
	핀란드(2000)	2.8	2.1	8.1
	노르웨이(2000)	3.4	2.1	10.9
	스웨덴(2000)	4.2	2.3	12.9
	네덜란드(1999)	6.3	2.9	37.2
	벨기에(2000)	6.7	5.4	-
중빈곤율 국가: 7~10% 미만	오스트리아(2000)	7.8	5.8	21.4
	프랑스(2000)	7.9	5.1	28.8
	스위스(2000)	8.9	8.0	22.3
	독일(2000)	9.0	3.8	30.5
	룩셈부르크(2000)	9.1	7.7	29.1
	한국(2000)	9.8	9.2	23.2
고빈곤율 국가: 10~20%미만	그리스(2000)	12.7	11.7	33.4
	호주(2001)	14.9	10.0	35.2
	캐나다(2000)	15.5	11.2	42.3
	아일랜드(2000)	15.8	11.0	46.8
	스페인(2000)	16.0	14.6	32.8
	이태리(2000)	16.6	16.4	19.0
	영국(1999)	17.0	10.4	39.2
최고빈곤율 국가: 20% 이상	미국(2000)	21.9	14.8	49.5
	멕시코(2000)	26.9	27.3	24.5
	평균	11.2	8.8	27.7

주: 한국의 경우는 1인가구와 농어촌 가구와 자영업자를 제외한 도시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따라서 한국의 빈곤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낮게 측정되었을 확률이 높음.

자료: LIS database, 2007.

[그림 3-4] OECD 국가의 가구유형별 빈곤율 비교

(단위: %)



이번에는 아동빈곤율을 전체 인구 빈곤율과 노인빈곤율과 비교하여 살펴 보았다. <표 3-9>와 [그림 3-5]에 제시된 바와 같이 OECD 국가의 평균 아동빈곤율은 11.2%이고 전체인구의 빈곤율은 10.3%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노인빈곤율은 15.5%로 높게 나타났다. 캐나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는 노인빈곤율이 아동빈곤율보다 낮은 국가군에 분류되고,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 미국, 멕시코 등은 아동빈곤율과 노인빈곤율이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을 포함한 나머지 국가인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벨기에, 오스트리아, 그리스, 호주, 아일랜드, 스페인 등은 노인빈곤율이 아동빈곤율보다 더 높다. 노인빈곤율은 해당 국가의 노인복지정책 수준에 따라서 규모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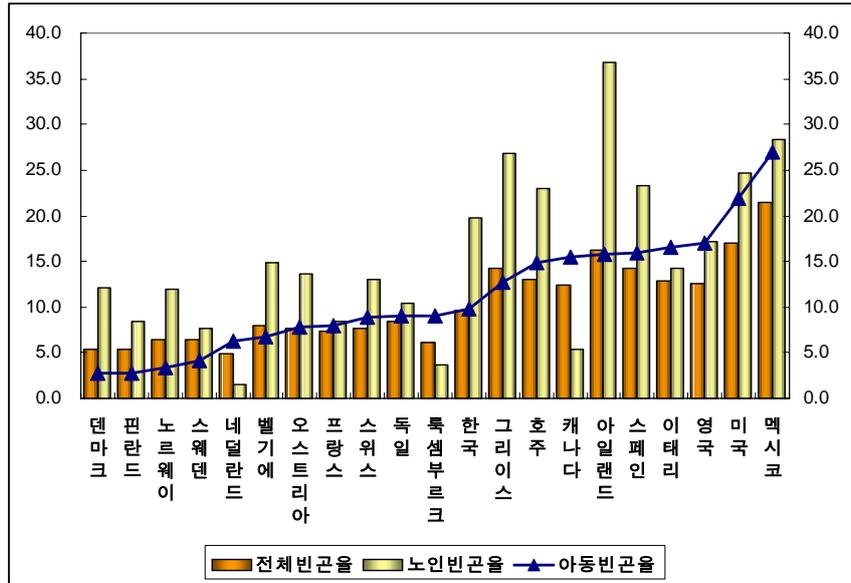
<표 3-9> OECD 국가의 대상별 빈곤율 비교

(단위: %)

아동빈곤율 수준	국가	중위소득 50% 이하 아동빈곤율	중위소득 50% 이하 전체 빈곤율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빈곤율
저빈곤율 국가: 7% 미만	덴마크(2000)	2.7	5.4	12.1
	핀란드(2000)	2.8	5.4	8.5
	노르웨이(2000)	3.4	6.4	11.9
	스웨덴(2000)	4.2	6.5	7.7
	네덜란드(1999)	6.3	4.9	1.6
	벨기에(2000)	6.7	7.9	14.8
중빈곤율 국가: 7~10% 미만	오스트리아(2000)	7.8	7.7	13.6
	프랑스(2000)	7.9	7.3	8.5
	스위스(2000)	8.9	7.7	13.1
	독일(2000)	9.0	8.4	10.4
	룩셈부르크(2000)	9.1	6.1	3.7
고빈곤율 국가: 10~20%미만	한국(2000)	9.8	9.6	19.8
	그리스(2000)	12.7	14.3	26.8
	호주(2001)	14.9	13.0	23.0
	캐나다(2000)	15.5	12.4	5.4
	아일랜드(2000)	15.8	16.2	36.8
	스페인(2000)	16.0	14.2	23.3
	이태리(2000)	16.6	12.8	14.3
최고빈곤율 국가: 20%이상	영국(1999)	17.0	12.5	17.2
	미국(2000)	21.9	17.0	24.7
	멕시코(2000)	26.9	21.5	28.3
평균		11.2	10.3	15.5

자료: LIS data base(아동빈곤율), SOCX data, 2003. 한국 아동빈곤율: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분석; 전체 및 노인빈곤율: 김태완 외 『2007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그림 3-5] OECD 국가의 대상별 빈곤율 비교



자료: LIS data base(아동빈곤율), SOCX data, 2003. 한국 아동빈곤율: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분석; 전체 및 노인빈곤율: 김태완 외 『2007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전체적으로 아동빈곤율과 전체빈곤율 간의 상관관계는 .949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아동빈곤율과 노인빈곤율 간의 상관관계는 .640로 역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즉, 아동빈곤율이 높은 국가가 전체빈곤율 및 노인빈곤율이 높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동빈곤율과 전체 빈곤율은 비슷한 9%의 수준인데 반해 노인빈곤율은 19.8%나 되는 OECD 주요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즉, 현 노인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각종 노인복지정책의 수혜를 별로 받고 있지 못하여 빈곤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이 성숙되면 현재보다는 노인빈곤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5절 시사점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은 지난 9년간의 추이를 보았더니 8%대에서 점차 감소하여 2002년에는 가장 낮은 4.4%를 보이다가 점차 상승하여 2006년 현재는 4.8%(전국: 5.0%)를 보이고 있다. 비아동가구의 빈곤율과 비교했을 때, 아동가구의 빈곤율은 2002년 이전까지는 높다가 그 이후에는 비아동가구보다 낮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아동가구 중 노인가구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고령화로 인해서 노인가구는 증가하였지만, 이에 상응하는 노후보장제도가 잘 구비되지 못하여 노인가구는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단 빈곤정도가 왜 2003년 이후에 더욱 심각해졌는가에 대해서 향후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절대빈곤의 감소로 인해서 그리고 국제적인 비교를 위해서 상대빈곤율의 의미가 더 부각되고 있다. 상대아동빈곤율은 지난 9년간 10% 내외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영업자를 포함시켰을 때는 상대아동빈곤율이 14% 내외로 전체적인 비율은 높으나, 지난 4년간(2003년~2006년)의 추이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종합하면 아동 100명중 5명은 절대빈곤아동이고, 100명중 10명 내외는 상대빈곤아동이다.

숫적으로는 절대빈곤아동수는 545,193명(도시: 523,386명)이고, 상대빈곤아동수는 915,925명(도시: 1,155,810명)으로 추정되었다. 자영업자를 포함시킬 경우 빈곤아동수는 더 늘어나서 2006년 절대빈곤아동수는 926,829명(도시: 872,310명), 상대빈곤아동수는 1,384,791명(도시: 1,591,965명)으로 추계되었다.

가구별로는 모자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1인생계부양자 가구, 저학력, 임시 및 일용직 종사자와 자영업자, 아동수가 많은 가족의 경우, 가족수는 2인 이하이거나 7인 이상의 경우 빈곤할 확률이 높았다. 따라서 탈빈곤아

동을 위해서는 모자가구 및 여성가구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특히 이러한 가구주에 대한 안정적인 직업을 알선하는 일이 시급히 요청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불안정한 고용에 있거나 자영업에 종사할 경우 아동빈곤율이 높았으므로, 고용의 안정을 위한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자영업 종사자에 대해 충분한 소득이 확보될 수 있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다자녀가족일수록 아동빈곤율이 높은 점을 염두에 두어 아동지원정책이 보완되어야 한다. 저출산시대에 다자녀를 지원하는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각종 세제혜택과 지원금, 수당 등을 통해서 다자녀가구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아동빈곤율의 국제적 비교를 통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상대)아동빈곤율 수준은 중간수준에 있었다. 그러나 이는 자료의 한계 때문에 낮게 추정된 것으로 놓여준 아동을 포함한다면, 우리나라도 아동빈곤율 수준이 그렇게 낮은 국가는 아닐 것으로 본다. 아동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이 고려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공식적인 아동빈곤율을 측정할 수 있는 온전한 자료가 필요하다. 다행히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국민생활실태조사를 통해서 전국적인 수준과 모든 직업군을 포함한 빈곤율 측정이 가능해졌다. 단, 이 자료는 2003년에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2007년에 2차년도 자료 수집을 하여 빈곤율 추이를 보는데 한계가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이 데이터를 통해서 국제기관에 제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아동빈곤율 측정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정확한 국제비교를 통한 아동빈곤의 연구가 향후에는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4장 아동빈곤의 원인

제1절 분석목적

앞 절에서 전체 아동빈곤율의 시계열적 추이를 살펴보았으며 타 인구집단과의 빈곤수준을 비교해 보았다. 또한 아동빈곤가구의 인구사회학적 및 경제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아동빈곤의 정태적 현황을 파악한 바 있다. 본 절에서는 아동빈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관련요인들을 접목하여 관련요인 특성이 아동빈곤 수준에 차이를 유발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우선 관련요인을 하위범주로 쪼개어 아동빈곤 수준과 교차분석하여 아동빈곤의 내부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다음 단계인 아동빈곤의 요인분석에 앞서 실행되는 기초 작업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관련요인들이 아동빈곤의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또한 아동빈곤 수준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지를 분석하여 아동빈곤의 원인을 밝히려는 것이다.

아동빈곤의 원인을 규명하는 일은 아동이 소재한 가구의 빈곤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아동은 근로능력이 없는 관계로 아동을 돌보는 부모나 보호자가 없을 경우 노인, 장애인과 더불어 빈곤에 처할 확률이 가장 큰 인구집단이 된다. 아동이 전통적으로 빈곤취약인구임에는 분명하나 노인, 장애인과 달리 개인적으로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근로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근로능력이 형성되지 못한 인구집단이기 때문에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빈곤 결정요인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정책적 지원과 관련해서도 아동에게 개인적 책임성이나 사회적 책임성을 묻지 못하며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가 양육·보호·교육의 일차적 책임을,

부모나 보호자가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국가와 사회가 이차적 책임을 지는 인구집단이다. 즉 아동빈곤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아동빈곤 수준을 감소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수립하고자 할 때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의 개인적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며, 부모나 보호자가 부재할 경우 혹은 부모나 보호자가 일차적 아동보호 기능을 담당하지 못할 경우 그 정도와 특성에 따라 지지적, 보완적, 대리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Downs, et al., 2004).

아동빈곤의 실태와 원인을 규명하는 등 아동빈곤 문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반드시 거론하여야 할 점은 절대적 빈곤아동 뿐만 아니라 상대적 빈곤아동에 대해서도 동일한 정책적 및 실천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사회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차상위 빈곤계층, 특히 아동이 있는 차상위층의 삶은 극빈층의 삶보다 더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괄급여제도로써 일단 생활보장대상 가구로 선정이 되면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 모든 면에서 혜택을 입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의료급여는 만성질환이나 각종 질병에 취약한 저소득층에게는 매우 커다란 혜택이 된다. 최근 의료급여 대상자가 확대 개편되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³⁾ 엄격한 수급자 기준 혹은 확대된 의료급여 대상 기준에 못 미쳐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상위 빈곤계층의 생활은 심히 어려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보육아동이 있거나 학령기 아동이 있는 가구에서는 보육비 및 교육비 부담으로 인하여 절대빈곤선 이하로 떨어질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즉 공적이전소득이 없는 차상위층은 공적이전소득이 있는 극빈층에 비해 실질적으로 더 빈곤선 이하의 피폐한 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다.

3) 의료급여 수급자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의 가정에 까지 확대되었다.

이와 더불어 일을 하지만 여전히 빈곤선 이하에 머무르는 근로빈곤층 문제도 상대적 아동빈곤과의 연계선 상에서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다. 빈곤아동은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에 속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이현주 외, 2006). 특이할만한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같이 빈곤이 개인의 나태나 의존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비자발적 실업과 같이 사회적 원인에서 발견된다는 점이다(김안나 외, 2005).

법제도적 사회안전망에서 누락된 채 빈곤선 주변 즉 잠재적 절대빈곤층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차상위층에 속한 아동인구의 실태나 특성을 파악하려 했던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이현주 외(2005)는 차상위층 가구의 전체 빈곤실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에서 잠재적 복지욕구를 가진 아동인구 규모를 추정할 바 있다. 따라서 아동이 있는 차상위 빈곤계층의 실태와 특성에 대한 별도의 분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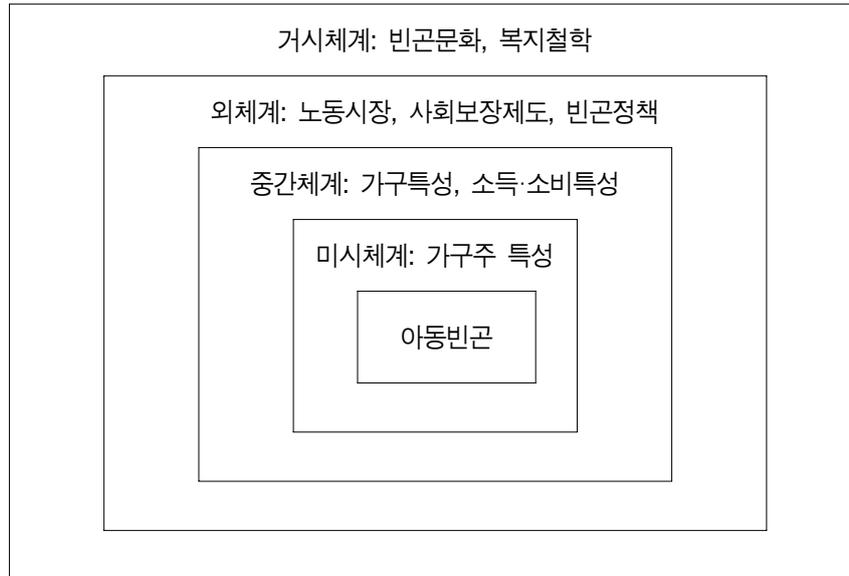
제2절 이론적 배경

아동빈곤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동빈곤 수준에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생태체계학적 관점(Ecological perspective)을 도입하기로 한다. 생태체계학적 관점은 일반체계이론(General Systems Theory)과 사회생태학(Social Ecology)이 융합된 것으로 유기체와 환경 사이에 발생하는 복잡다단한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관점이다. 특히 생태체계학적 관점은 아동빈곤, 아동학대, 학교폭력과 같이 아동, 가족, 지역사회, 국가와 같이 여러 다양한 요인이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쳐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Belsky, 1993; Garvarino, 1977; Sidebotham, 2001).

이 관점에 의하면 아동빈곤과 같은 사회적 문제는 단순히 아동 개인의 특성이나 하나의 사회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과 아동을 둘러싼 환경간의 상호영향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이 관점은 아동을 둘러싼 환경이 가족, 지역사회, 국가 등 여러 다양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체계를 아동과의 근접성과 영향성의 정도에 따라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한 체계만이 단선적으로 또는 독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체계가 영향을 미쳐 아동빈곤이 유발한다고 해석하는 관점이다(Belsky, 1003; Garvarino, 1977; Sidebotham, 2001).

생태체계학적 관점을 근거로 아동빈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요인 즉 아동가구의 소득·소비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요인을 체계별로 분류하여 보면, 미시체계는 아동이 소재한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같은 개인적 요인, 중간체계는 개인적 요인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개인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가족 구조와 같은 가족적 요인, 외체계는 가족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변동과 일자리 증감과 사회경제적 요인, 그리고 사회경제적 요인에 반응하는 정책지원과 같은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거시체계는 의존성과 같은 빈곤문화와 빈곤정책에 영향을 주는 복지철학을 의미한다(Allen-Meares, et al., 1996; Downs, et al., 2004). 따라서 본 절의 목적은 생태체계학적 관점에 따라 아동빈곤 결정요인을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로 분류한 후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체계별 요인을 요약하여 아동빈곤에 대한 생태체계학적 모델을 구성하여 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4-1] 아동빈곤의 생태체계학적 모델



제3절 선행연구 고찰

우리나라에서 아동빈곤에만 초점을 두고 원인과 실태를 규명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주로 전국적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빈곤의 인구학적 구조 분석에서 노인, 장애인과 함께 빈곤인구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고(김안나 외, 2005; 이현주 외, 2005; 이현주 외, 2006), 가구의 빈곤지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하나로 6세 미만 아동의 소재나 아동을 포함한 가구원 수 등이 고려된 연구들이 있다(구인회, 2002; 김교성, 2002). 또한 여성빈곤을 탐구하는 과정에 아동빈곤이 언급하는 연구가 포착되기도 한다(석재은, 2004; 윤희식 2004). 앞서 언급하였듯이 아동빈곤은 노인, 장애인과 달리 아동 개인이 아니라 아동이 소재한 가족이 빈곤이라는 상황에 처하게 됨

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동가구의 빈곤 결정요인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빈곤의 원인을 규명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함으로써 아동빈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요인들을 추출해 보기로 한다.

아동이 소재한 가구의 빈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과 동시에 특성에 따라 아동빈곤 수준을 달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미시체계 요인으로 가구주 특성을 들 수 있다.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한 가구의 빈곤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받는데,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노동시장에서 근로가능성과 노동가치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가구주의 성, 연령, 학력은 가구소득의 근간이 되는 취업여부와 고용형태와 상관성이 단연히 높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근로가능성과 노동가치성에서 평가절하되는 여성가구주와 고령가구주, 그리고 저학력 가구주는 아동빈곤과 상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안종범 외(2002), 황덕순(2002)은 빈곤에 영향을 주는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가구주의 성, 연령, 학력 등이 빈곤의 결정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그 결과 가구주가 여성일 경우, 연령이 낮거나 높을수록(U자형), 학력이 낮을수록 빈곤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빈곤화를 규명한 석재은(2004)도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여성가구주가 연령이 적거나 많을수록(U자형),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아동빈곤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가구주의 취업유무와 고용상태를 꼽을 수 있다. 가구주의 취업유무와 고용상태는 가구소득의 증감과 직결되어 있어 아동빈곤 여부를 뚜렷하게 가리는 기준이 된다. 이와 더불어 가구 내 부가적 소득을 증가시키는 취업자 수도 아동가구의 빈곤 수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가구주의 취업유무와 고용상태, 그리고 취업자 수는 가구주와 가구원의 연령과 학력에 의해서도 결정되기도 하지만 외체계인 경기변동이나 노동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안중범 외(2002)는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임시직 및 일용직일 경우 빈곤가능성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황덕순(2002)의 연구에 의하면 가구주가 무직이거나 분류불능인 직종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 단순노무직보다 판매 서비스직이나 기능직의 경우, 가구내의 취업자 수가 적을수록 빈곤할 확률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이순아(2005)는 빈곤아동가족을 모자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누었을 때 취업상태가 모든 가구유형에서 빈곤지위를 결정하는 유의미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상호작용을 하는 중간체계 요인으로 가구 특성이 있다. 가구 특성으로 가구유형과 가구원 수는 아동빈곤의 주요 원인이 된다. 가구유형은 가구주의 혼인상태와 배우자 유무에 따라 구분하게 되는데 한부모가정 특히 모자가구는 아동빈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석재은(2004)에 의하면 배우자가 없는 여성가구주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가구주에 비해 더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순아(2005)는 가구주가 여성일 경우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모자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연령이 빈곤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가구원 수나 아동 수는 교육비를 포함한 소비지출의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동빈곤의 주요 원인이 된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빈곤할 확률이 높거나 또는 빈곤상태에 머무를 확률이 높음이 김교성(2002), 황덕순(2002), 이순아(2005)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단 안중범 외(2002)의 연구에서는 가구원 수는 빈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특히 구인회(2002)는 빈곤가구의 특징으로 6세미만 아동으로 인한 배우자의 취업의 어려움을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아동빈곤의 요인체계 가운데 외체계에 초점을 둔 연구는 구인회(2002)와 김교성(2002)에게서 찾을 수 있다. 구인회(2002)는 빈곤가구의 빈곤원인을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부족에서 찾고 있다. 그는 빈곤가구의 과반수는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인적자본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

을 겪어 장기화된 실업과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다른 외체계 가운데 빈곤정책이나 사회보장급여를 들 수 있다. 사적이전, 공적이전, 사회보험의 존재는 소득구조의 변화를 야기함으로써 빈곤 완화의 효과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김교성(2002)은 근로소득, 자산소득, 이전소득의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할수록 빈곤상태가 될 확률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윤홍식(2004)은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빈곤에 영향을 주는 영향을 규명하였는데, 그 결과 사별여성의 경우 비취업상태이고, 정부보조가 적을수록 빈곤할 확률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그는 결혼해체의 증가가 여성의 복지의존을 증가시킨다는 기존의 연구를 뒤엎고, 오히려 결혼해체 경험여성들의 소득구성에서 근로소득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그는 이러한 여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주요한 탈빈곤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밖에 안중범 외(2002)는 실업이 빈곤을 유도하는 계수를 보기 위하여 사회보험 수급과 실업의 상호효과를 살펴본 결과, 실업급여 수급이 빈곤을 준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이순아(2005)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적이전 등이 빈곤지위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 본 결과 사적이전 및 사회보험이 적을수록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부조는 빈곤지위 변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들 선행연구들을 앞서 생태체계학적 관점에 근거하여 분류하여 보면 안중범(2002), 황덕순(2002), 석재은(2004), 이순아(2005)는 미시체계와 중간체계 요인에 집중하였고, 구인회(2002), 김교성(2002), 윤홍식(2004)은 외체계 요인에 좀 더 초점을 둔 연구라 하겠다.

종합하면 가구주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 저연령이나 고연령, 저학력, 가구원수, 가구유형, 실업이나 미숙련 직종, 이전소득과 사회보험 등이 아동빈곤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아동

빈곤의 요인을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족구조 특성, 소득·소비구조 특성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한 후 가구주의 성, 연령, 학력, 직업유형, 고용형태, 가구유형, 아동수 및 6세 미만 아동유무, 소득이전, 사회보험, 그리고 소비지출을 투입하여 아동빈곤을 예측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같은 아동빈곤의 요인분석은 아동빈곤 정책 수립을 위한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4절 분석방법

1. 분석내용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 아동빈곤의 관련요인을 모두 투입하여 아동빈곤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는지를 예측하고자 한다. 아동빈곤 요인분석은 2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성, 연령, 학력), 가족구조 특성(가구유형, 6세 미만 보육아동 유무, 가구원수), 소득·소비 특성(가구주 직종, 근로자수, 경상소득 대비 이전소득 비율, 소비지출 대비 교육비 비율), 지역으로 구분한 후 요인집단별 설명력을 비교하고자 한다.

둘째, 앞서 잠재적 복지욕구를 가진 차상위 빈곤계층의 아동에 대한 분석도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아동가구의 빈곤수준에 따라 계층으로 구분하여 관련요인이 아동빈곤 수준에 차이를 유발하는지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아동빈곤의 요인분석을 위한 빈곤측정은 정부가 가구인당 책정하는 최저생계비를 빈곤선으로 하여 한 가구의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절대빈곤으로 규정한다. 더불어 최저생계비 120%선과 150%선을 산정한다. 분석을 위하여 아동가구가 최저생계비 이하를 극빈층, 최저생계비 이상 최저생계비 120% 이하를 차상위층, 최저생계비

120% 이상 150% 이하를 차상위층, 최저생계비 150% 이상을 비빈곤층으로 분류한다. 즉, 빈곤아동가구를 빈곤과 비빈곤으로 나누는 이분화 작업이 아닌 단계별 층화방식을 택하여 아동빈곤의 결정요인을 보다 세밀히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빈곤계층 구분과 단계적 접근은 빈곤수준 경감을 위한 정책입안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자료와 통계기법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2006년도 통계청의 전국가계조사 자료이며 이는 통계청이 매년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도시가계조사와 5년 단위로 조사한 가구소비실태조사를 통합한 조사로 1인 가구를 포함하여 전국의 모든 가구유형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아동빈곤을 연구하는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의 정보가 활용되지 못하였다.

아동빈곤 수준과 관련요인과의 단순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차분석을 실시하고, 아동빈곤에 대한 요인의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회귀분석은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2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빈곤가구/비빈곤가구를 종속변수로 하여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소득·소비 구조요인의 설명력을 비교하기 위해서 변수집단을 점진적으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행한다. 위계적 회귀모델은 가구주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족구조 특성, 소득·소비구조 특성 순으로 투입한다. 둘째, 아동빈곤 계층별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종속변수가 '극빈층,' '차상위층,' '비빈곤층'의 서열범주이고 또한 3개 계층이 정상분포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비선형회귀분석인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즉 다항로지스틱모델(multinomial logit model)을 활용한다. 따라서 극빈층 대비 비빈곤층, 차상위층 대비 비빈곤층, 그리고 극빈층 대비 차상위층의 오즈(odds)를 구하는 방식으로 3개의 회귀모형이 도출된다.

제5절 분석결과

1. 아동빈곤 수준과 관련요인 특성

2006년도 가계조사의 전체 14,014,651 가구 가운데 만18세 미만 아동이 1명이라도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45.7%인 6,404,146가구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이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행하였다.⁴⁾ 이 가운데 최저생계비 이하의 경상소득을 가진 극빈층 가구는 8.9%, 경상소득이 극빈층 이상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층 가구는 3.7%, 최저생계비 120% 이상 150%선 이하인 차차상위층 가구는 7.1%였다. 나머지 비빈곤층 가구는 80.3%를 구성하고 있었다.

아동가구의 가구주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84.9%, 15.1%를 구성하고 있으며, 가구주 대부분이 장년층이었다(73.4%). 가구주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비율이 47.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40.0%는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빈곤계층을 교차분석하여 보면 여성가구주가 있는 아동가구가 빈곤한 비율이 약 40%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극빈층에 속한 가구비율도 21.0%나 되었다(표 4-1 참조). 가구주가 장년층인 아동가구가 가장 빈곤하지 않았으며 연령대별 아동빈곤 계층의 구성은 U자형을 구성하고 있다. 가구주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빈곤과 부적 인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음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4) 조사가구 90,696가구에 통계청에서 제시한 가중치를 준 결과임.

<표 4-1>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아동가구 빈곤수준

	빈곤계층				전체
	극빈	차상위	차차상위	비빈곤	
가구주 성					
남	6.7	2.9	6.5	83.8	100.0
여	21.0	7.9	10.4	60.7	100.0
가구주 연령대					
청년(18~34)	8.3	3.5	7.9	80.3	100.0
장년(35~49)	7.5	3.4	6.7	82.4	100.0
중고령(50~64)	13.3	4.4	8.4	73.9	100.0
노령(65+)	42.0	10.6	9.3	38.2	100.0
가구주 교육수준					
초졸	30.8	9.9	12.1	47.2	100.0
중졸	18.3	7.0	12.3	62.4	100.0
고졸	9.2	4.3	8.4	78.1	100.0
전문대졸	5.8	2.6	5.8	85.7	100.0
대졸 이상	3.4	1.1	3.5	92.1	100.0
전체	8.9	3.7	7.1	80.3	100.0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데이터』, 2006 원자료 분석.

4인으로 구성된 아동가구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50.9%). 가구내 아동이 2명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53.3%), 보육아동이 1명이라도 있는 가구는 37.4%였다. 즉 보육아동을 포함한 아동이 2명 있는 4인 가구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수 및 보육아동수와 아동가구의 빈곤수준과는 단순한 선형 상관관계가 이루고 있지 않지만 대체로 아동의 수와 보육아동의 수가 많을수록 가구의 빈곤수준이 높아지고 있다(표 4-2 참조). 아동수 및 보육아동수와 아동가구 빈곤계층과의 교차분석에서 아동이나 보육아동이 3~4명 있는 가구는 극빈층에 속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보육아동이 2명 있는 가구는 극빈층에 속한 비율은 가장 낮지만 반면에 차상위층, 차차상위층에 속한 비율은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보육아동의 유무가 아동가구의 빈곤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지는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아야 할 필

요가 있다.

가구유형과 빈곤계층과의 교차분석 결과 조손가구와 모자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빈곤수준이 단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손가구의 경우 아동이 1명 있는 비율이 높은 반면(57.6%), 모자가구와 일반가구는 2명 있는 비율이 더 높았다(57.7%, 51.7%). 즉 아동이 1명 있는 조손가구가 가장 빈곤하며 다음으로 아동이 2명 있는 모자가구가 빈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록 조손가구와 모자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아동의 수가 적거나 비슷하더라도 보육비와 교육비 등 아동으로 비롯된 생활비 부담이 일반가구보다 더 큰 것으로 해석된다.

<표 4-2> 가족구조 특성별 아동가구 빈곤수준

	빈곤계층				전체
	극빈	차상위	차차상위	비빈곤	
아동수					
1	9.9	3.6	5.8	80.7	100.0
2	7.6	3.4	7.5	81.5	100.0
3	11.8	5.0	10.6	72.6	100.0
4	17.5	16.9	11.8	53.8	100.0
보육아동수					
0	9.1	3.6	6.5	80.8	100.0
1	8.5	3.3	7.5	80.7	100.0
2	8.0	4.7	10.1	77.2	100.0
3	22.1	7.9	16.2	53.8	100.0
4	10.3	0.0	16.0	73.7	100.0
가구유형					
조손가구	51.2	11.4	6.8	30.6	100.0
모자가구	17.0	7.8	9.4	65.8	100.0
일반가구	10.9	4.0	8.4	76.6	100.0
전체	8.9	3.7	7.1	80.3	100.0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데이터』, 2006 원자료 분석.

아동가구에 취업자 수가 1명인가 혹은 2명인가는 소득의 증감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조손가구, 모자가구, 일반가구를 포함하여 홑벌이가구로 묶은 후 맞벌이가구와 빈곤계층을 교차분석하였을 때 맞벌이가구에 비해 홑벌이가구의 빈곤수준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조손가구와 모자가구를 포함한 이유도 일부 있겠으나 홑벌이가구는 맞벌이가구에 비해 빈곤을 결정짓는 소득에서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맞벌이가구의 보육아동수가 일반가구에 비해 적어 보육아동으로 인한 소비지출의 부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가구의 여성배우자가 근로함으로써 아동출산에 지장을 받았다고 해석이 될과 동시에 보육아동이 있더라도 보육시설 이용 등 제도적인 혜택을 더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아동가구 내 취업자 수를 자세히 살펴보면 취업자가 1인 있는 가구의 비율이 2인 있는 가구의 비율 보다 약간 높았다(각각 54.3%, 42.2%). 취업자 수와 빈곤수준과는 뚜렷한 선형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가구내 취업자 수가 1명일 경우 극빈층에 속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극빈층을 포함하여 빈곤층에 속한 비율이 22.2%로 가장 높았다. 앞서 홑벌이가구 가운데 조손가구와 모자가구 전체는 취업자가 1인이었으며, 일반가구는 취업자 1인 비율이 80.1%, 취업자 2인 비율이 17.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일반가구는 조손가구와 모자가구에 비해 빈곤층에 속한 비율이 그만큼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구내 취업자 수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취업자의 고용상태와 직종 등 취업의 질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아동가구의 가구주 직종을 살펴보면 관리자·전문직 11.6%, 준전문직 13.0%, 사무직 12.6%, 서비스·판매직 17.3%, 기능직 31.5%, 단순·노무직 6.3%⁵⁾, 무직 7.7%를 구성하고 있

5) 단순노무직 안에는 농업직이 0.2% 포함되어 있음.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가 전국가계조사 사임을 고려할 때 도시근교에서 영세 농업 가구로 기능하여 단순·노무직으로 분류하였음.

었다. 가구주 직종과 아동가구의 빈곤수준과의 교차분석 결과 가구주가 실업상태일 경우 당연히 빈곤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가구주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극빈층에 속한 비율이 무직 다음으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즉 가구주의 직종이 단순·노무직이거나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하게 되면 아동가구가 빈곤층에 속할 가능성이 단연 높아지게 된다.

<표 4-3> 취업인원수 및 가구주 직종별 아동가구 빈곤수준

	빈곤계층				전체
	극빈	차상위	차차상위	비빈곤	
가구주 취업형태					
홀벌이가구	12.1	4.5	8.5	75.0	100.0
맞벌이가구	2.0	1.8	4.2	92.0	100.0
취업인원수					
1	9.2	4.4	8.7	77.8	100.0
2	3.3	2.5	5.3	88.8	100.0
3	1.9	1.9	4.0	92.2	100.0
4	0.0	0.4	2.0	97.6	100.0
5	0.0	0.0	0.0	100.0	100.0
가구주 직종					
관리자·전문직	2.0	0.9	3.1	93.9	100.0
준전문직	3.3	1.9	3.7	91.1	100.0
사무직	2.2	1.1	3.3	93.4	100.0
서비스·판매직	9.2	4.8	9.9	76.1	100.0
기능직	6.6	4.0	9.0	80.4	100.0
단순·노무직	15.5	8.7	10.6	65.2	100.0
무직	42.8	6.9	8.1	42.1	100.0
전체	8.9	3.7	7.1	80.3	100.0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데이터』, 2006 원자료 분석.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점은 가구주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극빈층에 속한 비율도 높지만 차상위층과 차차상위층을 합쳐 상대적 빈곤층에 속한 비율이 낮지 않다는데 있다(19.3%). 앞서 맞벌이가구가 빈곤층에

속한 비율이 무려 8.0%에 이르고 있으며 2.0%는 극빈층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주가 일하되 상대적 빈곤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동가구가 6.0%나 되고 있다. 따라서 맞벌이가구일지라도 고용형태가 임시직·일용직일 경우 빈곤층에 속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이러한 잠재적 빈곤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되는 이유는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실업할 가능성이 높고 소득수준이 열악하며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정부시혜에서 배제되어 극빈층으로 떨어질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가구주 직종을 성별로 살펴보면 모자가구의 빈곤수준을 악화시키는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여성가구주는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35.1%),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다음으로 높았다(10.7%). 그러나 고소득 직종인 관리자·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남성가구주의 2/5~3/5 수준이었다.

아동가구 내 취업자 수와 가구주의 직종 외에 소득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이 있다. 이전소득은 가구의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이 정부가 책정한 최저생계비 수준을 넘지 못할 경우 추가됨으로써 가구의 소득구조를 변화시킴과 동시에 빈곤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이전소득의 규모와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아동가구의 빈곤수준과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대표적인 소득지표인 아동가구의 근로소득과 빈곤수준과의 상관성을 살펴보면 빈곤수준이 악화될수록 근로소득의 규모와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상관성을 보였다(표 4-4 참조). 즉 비빈곤 아동가구의 근로소득 규모는 빈곤아동가구의 근로소득의 2.7~8.3배에 이르렀다.

반면 이전소득의 규모는 빈곤수준별로 큰 차이가 없으나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동가구의 빈곤수준이 악화될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가구가 빈곤할수록 공적 이전소득이 전체 이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 비빈곤층의 2배 이상에 달하였다. 극빈층일 경우

공적 이전소득이 전체 이전소득의 58.0%로 절반을 넘고 있으나 비빈곤층 일 경우 그 비율이 17.7%에 불과하였다. 이는 기초생활보호급여 등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보장 수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빈곤층에 대한 공적 이전소득이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적 이전소득의 고비중이 아동가구의 탈빈곤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극빈층이기 때문에 기초생활보호급여를 받음으로 해서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커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4> 아동가구의 빈곤수준별 소득구조 특성

(단위: 천원, %)

	빈곤계층						비빈곤	
	극빈		차상위		차차상위			
경상소득	641	100.0	1233	100.0	1552	100.0	3606	100.0
근로소득	296	46.2	635	51.5	900	58.0	2454	68.1
사업소득	168	26.2	375	30.4	455	29.3	896	24.9
재산소득	19	3.0	18	1.5	16	1.0	39	1.1
이전소득	158	24.6	205	16.6	180	11.6	217	6.0
(공적이전)	92	(58.0)	105	(51.1)	84	(46.5)	38	(17.7)
(사적이전)	66	(41.9)	100	(48.8)	96	(53.6)	179	(82.3)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데이터』, 2006 원자료 분석.

아동이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 지출인 보육비·교육비는 아동가구의 소비구조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보육비·교육비의 규모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아동가구의 빈곤수준과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가구의 보육비 지출은 빈곤수준별 큰 차이가 없으나 교육비 지출은 그 차이가 심해지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기본적인 지출인 식료품비의 경우 아동가구의 빈곤수준이 악화될수록 절대규모는 적어져도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짐으로 해서 빈곤계층을 뚜렷하게 구분하고 있다(표 4-5 참조).

아동가구의 보육비는 빈곤수준이 악화될수록 절대규모는 적어지나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차상위층과 차차상위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잠재적 빈곤층의 보육비 부담이 극빈층이나 비빈곤층에 비해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아동가구의 교육비는 빈곤수준이 악화될수록 지출규모와 전체 소비지출에서의 구성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빈곤층은 비빈곤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를 덜 지출하며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낮아 빈곤층 아동가구의 아동에 대한 교육투자 환경이 열악함을 확연히 보여준다. 이와 함께 아동가구의 소비지출 항목에 대하여 비빈곤층 대비 극빈층 비례치를 구하여 보면 주거비가 가장 높으며 교육비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극빈층 가구내 아동들의 교육기회의 박탈을 짐작할 수 있다.

<표 4-5> 아동가구의 빈곤수준별 소비구조 특성

(단위: 천원)

	빈곤계층						비빈곤층		극빈/비빈 곤
	극빈층		차상위층		차차상위층				
	지출	비율	지출	비율	지출	비율	지출	비율	
소비지출	1338		1407		1608		2541		0.527
식료품	367	27.4	400	28.5	451	28.1	624	24.5	0.589
주거	69	5.2	76	5.4	68	4.2	79	3.1	0.875
교육	176	13.2	193	13.7	234	14.5	413	16.2	0.427
보육	21	1.5	31	2.2	31	1.9	40	1.6	0.513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데이터』, 2006 원자료 분석.

우선 비빈곤층 아동가구는 빈곤층 아동가구에 비해 2배 정도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표 4-6 참조). 그렇더라도 빈곤층 아동가구가 지출하는 교육비의 절대규모는 비빈곤층 아동가구에 비해 적지 않아 빈곤층 아동가구의 소비지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아동가구의 교육비 지

출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빈곤계층을 불문하고 보충교육비가 전체 교육비의 60~70%를 차지하고 있어 방대한 사교육비 지출 규모를 알 수 있다. 특히 비빈곤층 아동가구는 빈곤층 아동가구에 비해 납입금을 2배 가까이 지출하고 있으며, 보충교육비를 2~3배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납입금이 전체 교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빈곤층일수록 높은 반면, 보충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적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충교육비의 비빈곤층 대비 극빈층 비례치가 0.372에 불과하여 사교육비 지출의 양극화를 엿보게 함과 동시에 빈곤층 아동에 대한 열악한 교육투자 환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표 4-6> 아동가구의 빈곤수준별 교육비 지출특성

(단위: 천원)

	빈곤계층						비빈곤		극빈/비빈곤
	극빈층		차상위		차차상위				
	지출	비율	지출	비율	지출	비율	지출	비율	
교육비	176	100.0	193	100.0	234	100.0	413	100.0	0.427
납입금	55	31.0	55	28.6	70	30.0	100	24.2	0.547
교재·문구료	13	7.2	13	6.8	13	5.5	20	4.7	0.648
보충교육비	109	61.9	125	64.6	151	64.4	293	71.0	0.372

자료: 통계청, 『도시경제데이터』, 2006 원자료 분석.

2. 아동빈곤 결정요인

아동가구의 빈곤을 결정짓는 요인분석은 2단계로 이루어졌다. 우선 생태체계학적 모델이 제시하는 체계 순으로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성, 연령, 학력), 가구 특성(가구원수, 6세 미만 보육아동 유무, 가구유형), 소득소비구조 특성(가구주 직종, 근로자수, 교육비 지출), 사회보장 특성(공적 이전소득)으로 구분한 후 변수집단을 차례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행하여 변수집단별 설명력을 비교하였다. 종속변수는 빈곤여부가

되며 이때 빈곤은 절대빈곤선 이하 즉 극빈층을 의미한다.

가구주 특성만을 투입한 첫 번째 회귀모형에서 남성가구주는 여성가구에 비해 빈곤할 확률이 40.9% 수준이었고, 모든 연령대가 노령층에 비해 빈곤할 확률이 낮았으며 특히 장년층은 노령층의 31.6%로 가장 낮았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높아질수록 빈곤할 확률이 감소하였으며, 동거와 별거를 불문하고 배우자가 있는 가구주가 없는 가구에 비해 빈곤할 확률이 낮았다. 요약하면 아동가구의 가구주가 저학력의 고령인 사별여성일 경우 빈곤할 확률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가구주 특성에 가족구조 특성을 추가 투입한 두 번째 회귀모형에서 앞서 가구주 모형에 포함되었던 변수들은 회귀계수의 크기와 방향에서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조 특성을 살펴보면 가구원수가 늘어날수록 빈곤할 확률이 커지며, 보육아동이 있는 경우, 그리고 조손가구와 모자 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빈곤할 확률이 높았다. 요약하면 보육아동이 있는 다자녀 조손가정이나 모자가구가 빈곤할 확률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가구주 특성을 통제하고 4개 변수를 추가 투입한 가족구조 모형은 앞서 가구주 모형에 비해 설명력에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소득소비 특성을 추가 투입한 세 번째 회귀모형에서 앞서 가구주 모형에 포함되었던 모든 변수들은 회귀계수의 방향이 동일하나 크기는 상당히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 동거하는 가구주와 보육아동은 회귀계수의 방향을 바꾸었다. 즉 배우자와 동거여부와 보육아동의 유무 보다 가구주의 직종이 아동가구의 빈곤 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소비 모형에 투입된 전체 변수들의 설명력이 앞서 가족구조 모형에 비해 훨씬 커진 것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소득소비 특성은 가구주 특성과 가족구조 특성을 포함한 가구특성 보다 아동가구의 빈곤여부에 더 결정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약하면 사무직을 제외하고 무직과 모든 직종이 관리자·전문직에 비해 빈곤할 확률이 높았으며 취업인원이 증가할

수록 그리고 소비지출에서 교육비 지출비중이 높아질수록 빈곤할 확률이 낮았다. 그러나 교육비 지출비중과 빈곤과의 상관성에 대한 해석은 앞서 교차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비 지출비중이 높을수록 빈곤할 확률이 낮아지기보다 빈곤하지 않을수록 교육비 지출비중이 높아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 사회보장 회귀모형에서 공적 이전소득이 경상소득에서 차지한 비율을 추가 투입하였을 때 전체 변수의 설명력이 1.1% 포인트 변화함으로써 빈곤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요인임을 알 수 있다. 직종 가운데 사무직의 회귀계수는 다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이전소득이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빈곤할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비 지출과 마찬가지로 공적 이전소득도 빈곤할수록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4개 회귀모형 전체에 걸쳐 빈곤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가구주의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가구주의 직종이 있으며, 아동가구의 가구주가 저학력의 고령인 사별여성, 보육아동이 있는 다자녀가구, 조손가정이나 모자가구, 취업인원수가 적거나 단순노무직이나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하는 경우 빈곤할 확률이 가장 높으며 교육비 지출이 적어지고 동시에 공적 이전소득이 커지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표 4-7> 아동빈곤의 결정요인 위계적 회귀분석

	가구주 모형		가족구조 모형		소득소비구조 모형		사회보장 모형	
	β	Exp(B)	β	Exp(B)	β	Exp(B)	β	Exp(B)
상수	-1.011		-1.657		-2.614		-2.912	
가구주 특성								
남성(여성 기준)	-0.895	0.409	-0.789	0.454	-1.322	0.266	-1.296	0.274
연령대(노령 기준)								
청년(18~34)	-0.892	0.410	-0.826	0.438	-0.492	0.611	-0.496	0.609
장년(35~49)	-1.151	0.316	-0.933	0.393	-0.399	0.671	-0.390	0.677
중고령(50~64)	-1.032	0.356	-0.913	0.401	-0.443	0.642	-0.456	0.634
교육수준(대졸 이상 기준)								
초등학교	1.657	5.246	1.695	5.446	1.025	2.788	0.993	2.699
중학교	1.536	4.647	1.529	4.612	1.222	3.395	1.225	3.405
고등학교	0.959	2.608	0.952	2.591	0.680	1.974	0.687	1.988
전문대	0.501	1.651	0.419	1.520	0.414	1.514	0.443	1.557
배우자(무 기준)								
동거	-0.461	0.630	-0.228	0.796	0.131	1.141	0.148	1.160
별거	-0.915	0.401	-0.999	0.368	-0.481	0.618	-0.397	0.673
가족구조 특성								
가구원수			0.118	1.126	0.420	1.522	0.415	1.515
보육아동 유(무 기준)			0.094	1.098	-0.053	0.948	-0.064	0.938
가구유형(일반가구 기준)								
조손가구			0.120	1.128	0.737	2.090	0.821	2.274
모자가구			0.228	1.256	0.067	1.070	0.072	1.075
소득소비구조 특성								
가구주직업(전문직 기준)								
무직					1.681	5.369	1.770	5.873
단순노무직					1.477	4.381	1.550	4.710
기능원·장치직					0.934	2.544	1.054	2.870
서비스·판매직					0.878	2.407	1.011	2.748
사무직					-0.061	0.941	0.019	1.019
준전문직					0.461	1.585	0.576	1.778
취업인원수					-0.978	0.376	-0.927	0.396
교육비/소비지출					-0.024	0.976	-0.024	0.976
사회보장 특성								
공적 이전소득/경상소득							0.011	1.011
Cox & Snell R ²	0.062		0.069		0.081		0.084	
Nagelkerke R ²	0.137		0.133		0.181		0.192	

주: 든 회귀계수가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남.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데이터』, 2006 원자료 분석.

앞서 잠재적 복지욕구를 가진 차상위 빈곤계층의 아동에 대한 분석도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아동가구를 계층으로 구분하여 관련요인들이 아동가구의 빈곤수준에 차이를 유발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때 종속변수는 '극빈층,' '차상위층,' '비빈곤층'의 서열범주이고 또한 3개 계층이 정상분포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비선형회귀분석인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즉 다항로지트모델(multinomial logit model)을 활용하였다. 종속변수가 3 개이고 기준범주가 '비빈곤층'이므로 두 개의 회귀모형이 나타나며, 첫 번째 회귀모형에는 '극빈층/비빈곤층', 두 번째 회귀모형에는 '차상위층/비빈곤층'의 확률(odds)이 제시된다. 다음으로 관련요인들이 빈곤수준의 차이를 유발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하여 비빈곤층을 제외하고 종속변수를 극빈층과 차상위층으로 구분한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극빈층 대 비빈곤층, 차상위층 대 비빈곤층, 극빈층 대 차상위층인 3개의 회귀모형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 극빈층 대 비빈곤층의 회귀모형을 살펴보면, 앞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변수들을 모두 다 투입한 마지막 모형과 회귀계수의 방향과 크기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재요약하면 저학력의 고령 여성가구주, 조손가구 혹은 모자가구, 보육아동이 있는 다자녀가구, 취업인원수가 적거나 단순노무직이나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하는 경우, 교육비 지출이 적거나 공적 이전소득이 커질 경우 극빈층에 속할 위험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차상위층 대 비빈곤층의 회귀모형은 첫 번째 극빈층 대 비빈곤층의 회귀모형과 두 가지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동거 유무를 막론하고 배우자가 있는 가구주는 차상위층에 속할 위험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나 보육아동이 있으면 앞서 극빈층에 비하여 오히려 차상위층에 속할 위험성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말하면 보육아동으로 인한 보육비 지출이 아동가구의 잠재적 빈곤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앞서 교차분석에서 보육아동이 2명 있는 가구는 극빈층에 속한 비율은 가장 낮지만 반면에 차상위층, 차상위층에 속한 비율은 오히려 높게 나타난 것에서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차상위층의 평균 보육아동 수가 0.57명으로 극빈층의 0.46명에 비해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극빈층 대 차상위층의 회귀모형을 살펴보면 몇 가지 주요한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중고령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극빈층에 속할 위험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육아동이 있거나 모자가구일 경우 극빈층 보다 오히려 차상위층에 속할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 모형의 분석결과와 일관성이 있다. 보육아동이 있는 모자가구의 경우 보육비 지출부담이 큰 가운데 정부시혜로부터 배제되어 실제 극빈층 보다 더 열악한 경제수준에 처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차상위층에 속해 있는 보육아동이 있는 모자가구에게 적절한 소득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 극빈층으로 이전할 위험성이 극대화됨을 유추할 수 있다.

<표 4-8> 아동빈곤계층 결정요인에 대한 다항로지분석

	극빈층/비빈곤층		차상위층/비빈곤층		극빈층/차상위층	
	β	Exp(B)	β	Exp(B)	β	Exp(B)
상수	-2.777		-3.635		0.857	
가구주 특성						
남성(여성기준)	-1.390	0.249	-0.929	0.395	-0.461	0.631
연령대(노령 기준)						
청년(18~34)	-0.564	0.569	-0.407	0.666	-0.158	0.854
장년(35~49)	-0.450	0.638	-0.334	0.716	-0.116	0.891
중고령(50~64)	-0.545	0.580	-0.587	0.556	0.042	1.043
교육수준(대졸 이상 기준)						
초등학교	1.046	2.846	1.095	2.990	-0.049	0.952
중학교	1.290	3.633	1.214	3.367	0.076	1.079
고등학교	0.718	2.050	0.923	2.516	-0.205	0.815
전문대	0.456	1.578	0.647	1.910	-0.191	0.826
배우자(무 기준)						
동거	0.122	1.130	-0.214	0.807	0.336	1.400
별거	-0.486	0.615	-0.622	0.537	0.137	1.147
가족구조 특성						
가구원수	0.439	1.551	0.259	1.296	0.179	1.196
보육아동(무 기준)	-0.053	0.948	0.105	1.110	-0.158	0.854
가구유형						
조손가구	1.042	2.836	0.888	2.429	0.155	1.167
모자가구	0.117	1.124	0.315	1.370	-0.197	0.821
소득소비구조 특성						
가구주 직종(전문직 기준)						
무직	1.852	6.374	1.463	4.321	0.389	1.475
단순노무직	1.618	5.043	1.290	3.632	0.328	1.388
기능원·장치직	1.087	2.964	0.986	2.681	0.100	1.105
서비스·판매직	1.031	2.805	0.890	2.435	0.141	1.152
사무직	-0.005	0.995	-0.212#	0.809	0.207	1.230
준전문직	0.581	1.788	0.545	1.724	0.036	1.037
취업인원수	-0.969	0.379	-0.464	0.629	-0.505	0.604
교육비/소비지출	-0.025	0.975	-0.014	0.986	-0.011	0.989
사회보장 특성						
공적이전/경상소득	0.014	1.014	0.014	1.014	-0.001	0.999
Cox & Snell R ²			0.117			
Nagelkerke R ²			0.193			

주: 차상위층/비빈곤층에서 '사무직'을 제외하고 모든 회귀계수가 p<.01 수준에서 유의미함.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데이터』, 2006 원자료 분석.

제6절 정책적 함의

아동빈곤의 관련요인 특성별 교차분석과 계층별 결정요인 분석을 통하여 아동빈곤을 감소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획득할 수 있다. 아동빈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요인들을 선정한 후 이들을 생태체계학적 모델을 바탕으로 가구주 특성, 가족구조 특성, 소득소비구조 특성, 사회보장 특성으로 분류하여 교차분석과 요인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가구주의 성,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가구원수, 보육아동 유무, 가구유형, 가구주의 직종, 취업인원수, 교육비 지출, 공적 이전소득은 아동가구의 빈곤여부와 빈곤수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가구주, 노령, 저학력, 사별, 보육아동이 있는 다자녀가구, 조손가구 혹은 모자가구, 단순·노무직이나 서비스·판매직 종사, 홀별이 가구, 낮은 교육비 지출과 높은 공적 이전소득은 빈곤아동가구의 지표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이러한 아동가구의 빈곤지표에 초점을 두고 제도와 정책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분석 결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보육아동이 있는 모자가구가 차상위층에 속한 비율과 차상위층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유사한 연구에서도 모자가구는 극빈층보다 오히려 차상위층에 머무는 비율과 확률이 큰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김미숙·배화옥, 2007). 모자가구가 이처럼 차상위층에 머무는 비율과 확률이 높은 것은 모가 가진 여러 가지 특성에 의해서이다. 회귀분석에 의하면 여성가구주, 고령, 사별, 저학력, 서비스·판매직 종사 등은 극빈층 뿐만 아니라 차상위층에 속할 확률을 크게 높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모자가구의 경우에는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도적 지원에서 우선 대상으로 선별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아동빈곤의 위험성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모자가구의 단독 취업은 노동시장의 성 편향성으로 인

해 고용안정성과 소득수준이 떨어져 빈곤수준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여성경제활동의 질 제고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OECD에서는 아동빈곤 탈피를 위한 방안으로 모에 대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Forster and d'Ercole, 2005; Solera, 2003).

둘째, 아동가구의 가구주가 단순·노무직이거나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할 경우 무직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직종보다 빈곤에 처할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가구라 할지라도 부부의 직종이 단순·노무직이거나 서비스·판매직일 경우 차상위층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일하되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의 경우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실업할 가능성이 높고 소득수준이 낮은데다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정부시혜에서 배제되어 극빈층으로 떨어질 위험성이 오히려 커진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빈곤층을 지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자활사업의 운용 등 정책적 지원이 긴급히 요구된다.

셋째, 가구내 6세 미만 아동의 존재는 다른 생활비 지출과 함께 보육비 부담을 높인다. 특히 보육아동이 있는 차상위층 아동가구는 보육비 지출 부담이 큰 가운데 정부시혜로부터 배제되어 실제 극빈층 보다 더 열악한 경제수준에 처할 것이다. 따라서 보육아동이 있는 차상위층 가구에 적절한 소득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 극빈층으로 이전할 위험성이 극대화됨을 유추할 수 있다.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은 일차적으로는 부모에게 있지만 부모가 여건 상 아동을 보호할 수 없을 때 사회가 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Downs, et al., 2004). 따라서 보육시설의 확충은 빈곤아동의 효과적인 보육서비스가 될 뿐만 아니라 탈빈곤을 위한 주요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또한 방과후 아동보육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데에 주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빈곤아동가구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낮은 빈곤층 특히 근로빈곤층인 임시직·일용직에 종사하는 맞벌이부모에게 아

동보육을 위하여 저렴한 보육시설 공급과 보육비 경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보육비 외에 교육비 및 사교육비 지출은 아동빈곤의 극명한 지표가 됨을 알 수 있다. 빈곤수준이 악화될수록 교육비 지출 규모는 줄어들면서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커지는 점을 보아 교육비 지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문제는 교육을 통하여 계층의 상승 이동이나 하강이동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즉, 교육을 통해서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아동이 받아야 마땅한 교육기회의 누설은 빈곤의 세대간 전승을 강화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었을 때, 방과후 학습지도를 통한 아동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충은 빈곤계층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핵심적인 사안이 될 것이다(김미숙, 2006). 그런 점에서 최근 저소득층 아동의 학습지원과 학력증진을 위하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의 내실화를 꾀하는 것도 아동빈곤 감소의 효과적인 방책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사교육비 지출규모가 빈곤층과 비빈곤층을 가르는 지표가 되는 것인지 사교육비 지출로 인하여 빈곤층의 세대간 이전을 강화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연구가 더 필요한 영역이다.

제5장 아동빈곤의 영향

제1절 분석목적

앞의 4장에서 아동빈곤계층의 결정요인 즉 아동빈곤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였다면, 본 장에서는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즉 빈곤의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4장의 분석틀과 동일하게 빈곤의 여부 및 계층이 아동의 발달과 삶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살펴본다. 그리고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간접적 영향과 경로를 밝히고자 한다.

빈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빈곤의 원인을 규명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빈곤의 부정적 영향을 예측하여, 빈곤의 결과를 제거 및 최소화하거나 빈곤의 결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현재 빈곤 환경에 처해 있는 아동에게 더욱 중요하다. 특히 빈곤의 영향은 세습되므로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빈곤의 영향을 줄이고, 빈곤이 아동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역사회 및 정부가 보호막이 되어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빈곤으로 인한 결과가 아동의 학습부진이라면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업증진 프로그램의 제공은 빈곤의 영향을 감해줄 것이다.

빈곤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아동기가 신체, 정서, 인지 발달 등 모든 영역의 발달에서 결정적 시기라는 점에서 아동빈곤은 더욱 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Brooks-Gunn과 Duncan(1997)은 저소득층 빈곤이 아동의 삶과 심리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아동의 능력과 성취, 심지어 정서적 측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곽금주, 유제민, 김정미, 2007 재인용). 또한 아동기 빈곤은 그 악영향이 다른 발달단계보다 큰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빈곤을 다른 인간 발달 단계보다 아동기에 겪을 경우, 그 악영향이 훨씬 큰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이러한 악영향이 학업중퇴나 결혼, 노동 능력과 소득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기환, 1997; Duncan & Brookks-Gunn, 1997b; Hill & Sandfort, 1995, Mayer, 1997; 김광혁, 2006 재인용)

빈곤이 아동발달 나아가 삶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은 당연시되고 있으며, 많은 선행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러한 빈곤의 영향은 복합적 요인들의 작용으로 인해 그 영향이 미치는 정도와 범위가 단순하지 않다. 따라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 상태에서 빈곤의 영향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빈곤시기, 빈곤기간, 빈곤의 정도에 따른 비교를 통해 아동기 빈곤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에는 빈곤의 사회적, 관계적 맥락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빈곤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분석에 강조를 두고 있다(박현선, 정익중, 구인회, 2006). 특히 아동의 삶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가정과 주양육자인 부모에 초점을 맞추어 빈곤의 영향을 분석한다. 이와 같이 가정의 역기능과 주양육자의 양육태도, 부모자녀관계 등의 변수를 중심으로 하는 대표적 연구모델은 가족과정모델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가 제공하고 있는 변수들의 범위 내에서 빈곤의 영향을 설명하는 변수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빈곤아동과 비빈곤 아동의 아동발달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다시 절대빈곤층,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비빈곤 네 가지 계층으로 구분하여 빈곤계층별로 분석한다. 그리고 빈곤의 간접적 영향, 즉 빈곤이 어떠한 경로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부부폭력, 아동학대, 부·모의 우울을 매개로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어떠한가?
 - 1-1. 빈곤여부에 따라 아동발달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1-2. 빈곤의 수준에 따라서 아동발달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빈곤이 아동발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무엇인가?
3. 빈곤아동의 발달에 대한 빈곤의 영향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경로는 무엇인가?

본 연구결과는 이론적으로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경로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아동기 빈곤의 직접적·간접적 경로에 대한 실증적인 모형을 제공할 것이다. 실천적으로는 빈곤의 영향에 대응하는 아동기 빈곤의 부정적 영향들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어 이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등의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 정책적으로는 아동빈곤의 영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빈곤의 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보호변인들을 밝힘으로써 빈곤정책의 대상, 목적, 내용의 다양화를 유도하여 효과적인 빈곤아동지원정책을 제안할 것이다.

제2절 이론적 배경

빈곤이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비단 최근에 거론된 것만은 아니다. 최근에는 빈곤의 영향에 대한 직선적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벗어나, 빈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빈곤은 상당히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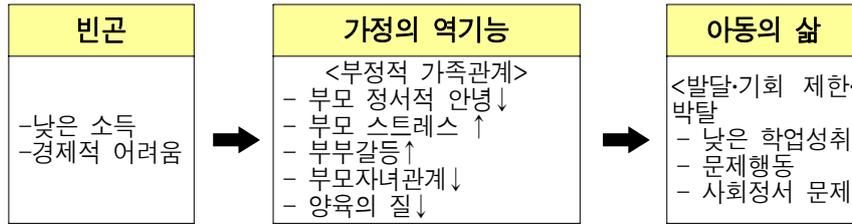
빈곤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과정을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은 인적자본투자이론과 가족과정모형이다. 두 이론은 주로 가족과정이나 가족 내 사회적 자본에 중점을 두어 부모의 스트레스나 부부갈등, 양육태

도나 훈육 등의 변수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예컨대 '빈곤이나 경제적 어려움'은 양육자인 '부모의 스트레스'나 '부부간의 갈등'을 야기하게 되며 이로 인해 부모는 '비일관적이고 혹독한 양육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빈곤가정 부모의 잘못된 양육행동은 결과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Lempers, Clark-Lempers, and Simons, 1989; Conger, Ge, Elder, Lorenz, and Simons, 1994; Felner, Brand, Bubois, Adan, Mulhall, and Evans, 1995; Mcloyd, 1998; 박현선, 정익중, 구인회, 2006 재인용).

빈곤의 영향에 대한 연구 중에서 빈곤의 부정적 영향을 낮은 소득자체가 아니라 다른 요인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구조, 이웃 환경 등의 통제변수를 넣자 소득만을 변수로 하였을 때보다 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다. 이를 한편에서는 가족과정모델(family process model)로 설명한다. 빈곤이 부모의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좋지 않은 양육태도를 보이게 되고, 이것이 아동의 인지능력과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McLoyd, 1990, 임세희 2007 재인용). 낮은 소득의 원인인 실업과 불안정한 고용이 부모와 자녀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해 청소년의 정서와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힌 연구들은 이러한 가족과정 모델을 지지하고 있다(Conger, Conger & Elder, 1997, Brooks_Gunn & Duncan, 1997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특히 가족과정모델을 근거로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과정모델에서는 빈곤이 부모의 정서적 안녕(well-being)과 부부 및 부자 관계와 같은 비물질적 관계, 즉 가족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가족과정을 통해 아동발달이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즉, 빈곤이 가족구성원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부부관계나 부모-자녀관계 등 가족관계를 악화시키고, 부정적 아동양육을 유발하여 아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5-1] 가족과정모델



이처럼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대개 가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가족 내에서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인 부모의 특성 또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나타난다. 빈곤의 효과를 매개하는 주요 변수로 가족 내 역기능을 고찰하고 있는 연구들이 있다. 이들은 주로 비일관적이고 부적절한 양육, 재정적 갈등으로 인한 부모의 정서적 불안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논의들이다(Brody, Stoneman, Flor, McGray, Hastings, and Conyers, 1994). 이들 연구들에서는 빈곤이나 경제적 불이익은 부정적 부모-자녀 상호작용, 일관적이지 못한 양육태도, 낮은 부모의 자녀교육관여 및 기대, 부부갈등, 부모의 심리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자녀의 학업실패 및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심각한 역기능 상황인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에 아동이 노출된 경우에는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심각한 아동학대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나 다중인격장애와 같은 정신장애를 가져올 수 있으며, 보다 일반적으로는 인지와 정서체계를 왜곡시켜 불안이나 우울, 손상된 자아감 등을 유발시키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과정모델에서 설명하는 많은 변수 중 본 연구의 분석 자료인 한국복지패널데이터가 제공하고 있는 부부폭력, 아동학대, 부모의 우울 변수를 중심으로 빈곤의 간접적 영향경로를 검증할 것이다. 많은 가족과정모델에서는 매개변수로 부부갈등, 양육태도, 양육 스트레스 등

의 변수를 사용하나, 복지패널데이터는 일반가구의 복지를 중심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보다 적절한 변수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제3절 선행연구

최근에는 빈곤이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련연구들이 축적되고 있다. 여기서는 본 연구에서 분석될 변수를 중심으로 빈곤의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의 직접적·간접적 영향으로 아동의 학업성취, 사회정서발달(우울, 위축, 주의집중, 공격성), 학교적응, 건강상태, 비행,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을 분석하였다.

1. 학업성취⁶⁾

일반적으로 빈곤은 아동들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빈곤가정의 자녀는 실제 학업성취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영향이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형태를 통해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Mayer, 1997). Brook-Gunn과 Duncan(1997)에 따르면 빈곤이 아동의 교육성취에 주는 영향은 균질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다. 빈곤의 시기와 지속성, 정도에 따라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과 영향의 지속성이 달라진다고 한다. 연구에 따르면 극심한 빈곤과 장기빈곤아동의 경우 더 나쁜 학업성취도를 보인다. 취학 전이나 학령기 초기에 빈곤을 경험한 아동이 그 후에 빈곤을 경험한 아동보다 학업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6) 학업성취는 아동의 인지적 발달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아동의 인지능력과 학업성취도를 종속변수로 하며 빈곤의 영향을 분석하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연구 중에서 최근의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5-1〉과 같다.

빈곤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빈곤의 부정적 영향을 간접적으로 매개하는 변인이 무엇인지 검증하는 연구들로 집중되어 있다. 윤현선(2006)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사회적 자본이론과 가족매개모델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두 이론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사회에서 사회경제적 배경이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보다 잘 설명하는 모형을 규명하였다. 김광혁(2006a)은 빈곤이 가족기능, 이웃환경, 사교육, 자기 신뢰감 등의 변수를 통해 아동의 학구적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빈곤의 속성(기간, 시기, 정도)에 따른 분석도 시도되어지고 있으며 특히 시간적 차원을 고려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임세희(2007)는 빈곤의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빈곤기간과 부모자녀(애착)관계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김광혁(2006b)은 아동의 학구적 성취에 대한 빈곤의 영향을 시간적 차원인 빈곤의 시기와 기간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표 5-1> 빈곤 아동의 학구적 성취 관련 선행연구 요약

연구자/연도	자료와 분석방법	종속변수	주요한 결과
김광혁 (2006a)	한국청소년패널조사 1차년도 자료 2838사례 구조방정식모형	아동의 학구적 성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빈곤의 직접적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과정변수(이웃환경, 사교육투자, 가족기능, 자기신뢰감)를 통해 아동의 학구적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김광혁 (2006b)	한국노동패널 (1998-2003) 자료 이용 OLS Regression analysis	아동의 학구적 성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빈곤/이른시기에 빈곤을 경험과한 아동은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국어와 수학성적의 성취도가 낮음. 다른계층보다 극심한 빈곤을 경험한 아동의 학구적 성적이 다른계층에 비해 낮음.
임세희 (2007)	노동패널 6차년도 데이터(1998-2003)자료 이용	아동의 학업성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빈곤은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가구에 비해 학업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 부모자녀(애착)관계가 아동의 학업성취를 결정하는 주요요인 장기빈곤가구더라도 부모자녀관계가 좋으면 아동의 학업성취가 좋아질 수 있음.
이경혜, Lebanc, 심희옥 (2006)	캐나다의 NLSCY데이터 사용, 한국 대구지역 초등학생1학년 167명 구조방정식모형	학업수행 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아기때의 부모빈곤은 학령초기 아동의 학업수행능력을 예측함. 유아기 및 학령초기 때의 부모양육행동은 학업수행부진과 밀접한 관계있음
윤현선 (2006)	한국청소년패널조사 1차년도(2003년) 자료 이용 구조방정식모형	학업성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자본모형과 가족매개모형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설명하는 적합한 모형임. 가족내사회적 자본과 부정적 가족관계는 빈곤가정의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임

2. 사회정서발달

빈곤이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학구적 성취에 대한 연구만큼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학

구적 성취 관련 연구와 같이 빈곤이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과정을 분석하고 매개변인을 밝히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매개변인은 빈곤아동의 보호요인 또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오경자 외(2005)의 연구는 빈곤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가족의 정서적 환경, 친구의 비행성향, 그리고 회피적 대처방식이 우울, 외현화 문제행동 등 부적응의 지표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났고, 부모, 또래의 사회적 지지는 열악한 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켜주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하였다. 오경자와 문경주(2006)는 빈곤가정에서 높은 빈도로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족위험요인이 부모자녀관계를 매개요인으로 하여 청소년의 부적응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간접적 영향 및 그 과정의 매개변인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현선,정익중,구인회(2006)는 빈곤과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의 관계에서 성인역 부담의 기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빈곤과 가족의 구조적 결손이 가족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아동의 성인역 부담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아동의 사회정서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정익중과 그의 동료들(2005)은 빈곤아동의 보호요인 즉 사회심리 적응 문제에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변인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으로 규정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아동의 사회심리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만족스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비행수준을 낮추는데 기여하는 것을 밝혔다.

그 밖의 연구들에서도 빈곤은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사회정서 발달에 대표적 지표라 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과 관련하여 김광혁(2005)은 아동의 주관적 빈곤상태가 자아존중감

에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으며, 강희경(2003)은 장기빈곤을 경험한 아동일수록 단기빈곤아동에 비해 낮은 자존감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3. 학교적응

가족과정모델에서는 빈곤이 가족전체의 스트레스 수준 및 상호작용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빈곤하지 않은 가족의 청소년들에 비해 낮은 학교적응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김광혁, 차유림(2007)의 연구에서는 빈곤이 부모의 교육적 관여와 부모자녀관계를 매개변수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준다고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아동의 유급 및 퇴학비율⁷⁾에 대한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참고로 아동빈곤의 영향에 대한 대표적 연구인 Brooks-Gunn과 Duncan(1997)의 연구에 따르면 빈곤아동의 유급율은 비빈곤아동보다 2.0배 높으며, 제적 또는 유예율은 2배, 고등학교 중도탈락율은 2.2배 높게 나타났다.

7) 빈곤아동의 유급율은 빈곤아동의 학업성취에서 다루어지나,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 영역을 학업성취와 달리 단독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 다루는 것임.

<표 5-2> 빈곤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관련 선행연구 요약

연구자(연도)	자료와 분석방법	종속변수	주요한 결과
오경자, 문경주 (2006)	빈곤가정 밀집지역 중학교 1,2학년 청소년 483명 대상 1년간 추적조사 구조방정식 모형	우울, 외현화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학생: 빈곤이 부부갈등, 문제성 음주 등 가족위험요인 및 부모자녀관계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우울 및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매개모형지지 • 남학생: 우울은 가족위험요인과 부모자녀관계의 매개효과가 지지되었으나, 외현화 문제행동은 가족위험요인과의 직접경로만이 지지
오경자 외 (2005)	기초생활보호대상인 빈곤가정 청소년 146명과 비교집단 청소년 327명 Regression analysis	우울, 외현화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및 또래환경요인은 우울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모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는 반면 사회적 지지요인은 우울에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매우 적음.
김광혁 (2005)	비빈곤아동 350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150명을 대상 OLS Multiple Regression	자아존중감, 내재화, 외현화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존중감은 주관적 빈곤과 관강한 관련성이 나타남. • 절대적 빈곤과 주관적 빈곤 모두 아동의 내재화, 외현화 행동문제와 관련성이 없으며 가족구조만이 관련되어 있음
강희경 (2003)	2001년 제주지역 19개 초등학교 아동 167명 regression Analyses	자아존중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아동의 자아존중감에는 가정환경과 부모자녀의 갈등, 빈곤기간이 관련됨
박현선, 정익중, 구인회 (2006)	2004년도 서울아동패널연구 자료를 빈곤아동과 비빈곤아동으로 구분 구조방정식모형	우울/불안, 주의력 결핍, 공격성, 비행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과 가족의 구조적 결손은 가족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아동의 성인역부담을 증가시키게 되고 결과적으로 아동의 사회정서적 문제를 야기
정익중 외 (2005)	보건복지부 결연사업 대상아동 904명 regression	사회적 위축, 우울/불안, 비행, 공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족스런 사회복지 이용이 빈곤아동의 비행감소 또는 예방에 긍정적 효과

4. 건강상태⁸⁾

빈곤이 아동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아동의 건강관련성 연구를 통해 검증되고 있다. 아동빈곤의 대표적 연구인 Brooks-Gunn과 Duncan(1997)의 연구에 따르면 빈곤아동은 비빈곤 아동보다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고 보고한 비율이 1.8배 높으며, 질병경험일수도 1.4배, 병원입원일수도 2.0배 높다. 그밖에 아동의 건강상태 및 환경을 보여줄 수 있는 저체중아율 1.7배, 납중독률 3.5배, 영아사망률 1.7배, 아동기 사망률 1.5배, 발육부진 2.0배 높게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빈곤과 아동의 신체적 건강상태의 관련성을 고찰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며 다른 시각으로 빈곤의 결과라 할 수 있는 결식경험이 아동의 건강상태 및 영양상태와 관련된 연구는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의 아동결식의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아동기에 필요한 영양이 결핍되면 각종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약화되고, 각종 건강질환에 대한 발병률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4절 분석방법

1. 분석내용

본 연구에서는 빈곤의 영향을 직접적 영향과 간접적 영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빈곤의 직접적 영향은 빈곤⁹⁾과 비빈곤을 구분하여 빈곤 여부에 따라 아동발달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4장의 분석틀과

8) 건강의 범위에는 정신건강도 포함되어야 하나, 사회정서발달에서 따로 설명되고 있으므로 제외함.

9) 빈곤은 최저생계비 120% 미만을 빈곤으로 정의하며, 이러한 빈곤선의 정의는 OECD통계에서 사용하는 빈곤선인 중위소득 50%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같이 빈곤을 극빈층, 차상위 계층, 차차상위 계층으로 구분하여¹⁰⁾ 빈곤계층에 따라 아동발달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빈곤의 간접적 영향 즉, 빈곤의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서 가족과정모델을 적용하였다. 매개변인으로는 부부간의 관계의 질 및 갈등을 보여주는 부부간의 폭력 변수를, 부모자녀관계와 양육의 질이 반영되는 아동학대 변수를, 부모의 정서적 안정 및 스트레스 등과 관계있는 부·모의 우울 변수를 투입하였다. 즉, 빈곤이 가정의 역기능 즉, 부부 폭력, 아동학대, 부·모의 우울을 매개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2. 자료와 통계기법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2005년에 조사한 한국복지패널조사(KWPS) 1차년도 자료이다.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조사는 2006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조사로서 표본규모는 700가구주이며, 조사대상은 표본가구, 표본가구에 속하는 15세이상 가구원과 부가조사 대상으로 구분한다. 부가조사의 경우 아동, 장애인, 노인을 3년 단위로 조사할 계획으로 1차년도 조사는 초등학교 4~6학년 아동 759명이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될 분석 자료는 부가 조사된 아동 759명 데이터와 쌍을 이루는 가구데이터, 가구주 데이터이며 본 연구에서는 사용되는 주요 변수의 응답을 성실히 하지 않은 케이스를 제외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빈곤의 직접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735사례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빈곤의 간접적 영향 즉, 빈곤의 영향경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10) 가구의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극빈층, 최저생계비 이상 최저생계비 120%이하를 차상위층, 최저생계비 120%이상 150%이하를 차차상위층, 최저생계비 150%이상을 비빈곤층

이론적 토대를 근거로 가구주와 아동이 부모자녀관계에 속하는 666사례만을 사용하였다¹¹⁾. 그리고 분석시, 한국복지패널에서 제시한 아동용 가중치를 적용하였다¹²⁾.

본 연구에서는 SPSS 12.0과 AMOS 7.0을 활용하여 연구문제를 분석하였다. SPSS 12.0을 사용하여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치 및 신뢰도와 빈곤의 직접적 영향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또한 빈곤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AMOS 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모델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χ^2 값, CFI(Comparative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등 다양한 적합도 지수가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변수는 <표 5-2>에 제시하였다.

11) 빈곤의 영향경로를 설명하는 매개변수로 가족관계 관련 변수들이 투입됨으로 인하여, 가구주와 아동의 관계가 부모자녀관계로 한정하여야 하였다.

12) 그러나 AMOS 7.0 통계프로그램에서는 데이터 분석시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음.

<표 5-3> 주요변수의 정의

변수명	변수정의	M(SD)	
빈곤	빈곤은 경상소득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 (빈곤=1, 비빈곤=0)		
아동 성별	남성=1, 여성=0		
가구주	성별	남성=1, 여성=0	
	학력	고졸미만=1, 고졸이상=0	
	자아존중감	Roseberg의 10문항의 평균 (전혀그렇지않다 1점 - 항상그렇다 4점, $\alpha=.94$)	2.41(.87)
	우울	CESD의 우울 11문항의 평균 (극히드물다=1점 - 대부분그렇다 4점 $\alpha=.97$)	1.67(.94)
가족구조	구조적 결손여부 (일반가구=0, 결손가구(모·부자/소년소녀가장)=1)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우울/불안	K-CBCL의 우울/불안 13문항의 평균 (전혀아니다 1점-자주그렇다 3점 $\alpha=.81$)	1.32(.30)
	주의집중	K-CBCL 주의집중 11문항의 평균 (전혀아니다 1점-자주그렇다 3점 $\alpha=.77$)	1.39(.33)
	위축	K-CBCL 위축 9문항의 평균 (전혀아니다 1점-자주그렇다 3점 $\alpha=.79$)	1.32(.33)
	비행	K-CBCL 비행 12문항의 평균 (전혀아니다 1점-자주그렇다 3점 $\alpha=.50$)	1.11(.13)
	공격성	K-CBCL 공격성 19문항의 평균 (전혀아니다 1점-자주그렇다 3점 $\alpha=.83$)	1.23(.24)
아동의 자아존중감	Roseberg의 자아존중감 10문항의 평균 (대체로그렇지않다 1점 - 항상그렇다 4점 $\alpha=.80$)	2.56(.31)	
아동학대	신체적학대(5문항), 정서적학대(3문항), 방임(7문항) (전혀없었다 1점 - 일주일에 1~번정도 5점, $\alpha=.61$)	1.13(.44)	
학교생활	학교생활적응	9문항 (전혀그렇지않다 1점 - 항상그렇다=4점, $\alpha=.72$)	3.26(.70)
	또래애착	4문항 (전혀그렇지않다 1점 - 항상그렇다=4점, $\alpha=.79$)	3.36(.72)
	친구의비행경험	6문항 (전혀그렇지 않다 1점 - 항상그렇다=4점, $\alpha=.65$)	1.27(.55)
	학교폭력	학교폭력피해경험 6문항 (전혀없다=1점 - 일년에4번이상=4점, $\alpha=.70$)	1.29(.62)
학업성적	전과목성적 1문항 (아주못함= 1점 - 아주잘함=5점, $\alpha=.80$)	3.54(.83)	
문제행동	음주, 흡연, 물건훔치기, 폭행, 금품갈취 등 10문항 (그런적없다=1점 - 일년에5번이상=6점, $\alpha=.42$)	1.06(.41)	
건강상태	아동의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건강상태 1문항 (1=매우좋다 - 5=아주나쁘다)	1.74(.82)	

제5절 분석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¹³⁾

가. 아동의 특성

본 연구의 대상 2006년 조사시점에서 초등학교 4~6학년의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써 빈곤아동이 8.3%(62명)이며 비빈곤 아동이 91.7명(677명)이다. 이를 자세히 계층별로 살펴보면, 극빈층 아동은 6.0%(45명), 차상위층 아동은 2.2%(17명), 5.2%(38명), 비빈곤층은 86.5%(63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52.9% 여아가 47.1%이다.

가구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자녀관계인 경우가 93.5%, 조손관계인 경우는 6.1%로 나타났다. 빈곤계층에 따라서는 비빈곤층보다 빈곤층이 특히, 극빈층은 조손관계 및 친인척 관계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조손관계는 비빈곤층이 50%를 약간 넘어섰을 뿐, 조손관계는 차차상위 이하 빈곤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13) 모든 통계치에는 한국복지패널조사의 아동용 가중치가 적용됨.

<표 5-4>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명)

구분	빈곤계층				전체
	극빈	차상위	차차상위	비빈곤	
성별					
남	5.6	1.8	4.6	88.0	100.0(391)
여	6.3	2.6	6.0	85.1	100.0(348)
가구주와의 관계					
부 또는 모	4.9	1.9	4.3	88.9	100.0(692)
조손	22.2	8.9	17.8	51.1	100.0(45)
친인척 등	33.3	0.0	0.0	66.7	100.0(3)
장애					
장애없음	6.1	2.3	5.3	86.3	100.0(738)
장애있음	0.0	0.0	0.0	100.0	100.0(2)
전체	6.0	2.2	5.2	86.5	100.0

※ 무응답에 따라 표본수 달라질 수 있음.

주: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이어서 유효한 Chi-square 검증결과를 보증할 수 없게 되어서 Chi-square값을 보고하지 않음.

나. 가구의 특성

가구형태를 살펴보면 일반가정은 92.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모자가정 4.1%, 부자가정 1.5%, 소년소녀가정은 0.9%로 나타났다. 가구원수는 4인으로 구성된 가구가 59.5%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였으며, 5인가구 19.7%, 3인가구 7.8%의 순이었으며, 6인 이상의 대가족도 8.9%, 2인의 가구주와 아동으로만 구성된 가구도 1.6%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중소도시 51.1%, 대도시 42.2%를 차지하였으며 농어촌은 6.8%로 낮게 나타났다.

가구의 특성과 빈곤계층을 교차분석하여 보면, 소년소녀가정은 모두 차상위계층 미만으로 빈곤계층에 속하였으며, 극빈층도 85.7%로 나타났다. 일반가정과 달리 모부자가정의 빈곤계층의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모자가정은 부자가정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인가구의 빈곤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절대빈곤층의 비율은 38.5%에 달하였다. 2인가구인 경우는 대부분은 가구주 1인과 아동으로 구성된 한부모가정이거나, 소년소녀가정일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가정보다 결손가정의 빈곤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가구원수가 7인이 상인 경우 절대빈곤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구원수와 빈곤의 상관을 보여준다.

<표 5-5> 가구의 특성

(단위: %, 명)

구분	빈곤계층				전체
	극빈	차상위	차차상위	비빈곤	
형태					
모자가정	18.4	10.5	15.8	55.3	100.0(38)
부자가정	9.1	9.1	9.1	72.7	100.0(11)
소년소녀가정	85.7	0.0	14.3	0.0	100.0(7)
일반가정	4.7	1.6	4.5	89.2	100.0(684)
가구원수					
2명	38.5	0.0	7.7	53.8	100.0(13)
3명	2.7	5.5	17.8	74.0	100.0(73)
4명	4.8	1.6	3.2	90.5	100.0(441)
5명	8.2	2.1	6.2	83.6	100.0(146)
6명	5.6	1.9	3.7	88.9	100.0(54)
7명	16.7	8.3	0.0	75.0	100.0(12)
지역					
대도시	6.1	2.6	3.5	87.8	100.0(312)
중소도시	5.8	1.3	6.1	86.8	100.0(378)
농어촌	8.0	8.0	8.0	76.0	100.0(50)
전체	6.0	2.2	5.2	86.5	100.0

※ 무응답에 따라 표본수 달라질 수 있음.

주: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이어서 유효한 Chi-square 검증결과를 보증할 수 없게 되어서 Chi-square값을 보고하지 않음.

다. 가구주의 특성

가구주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91.2%(675명), 여성이 8.8%(64명)이다. 가구주의 연령층은 청년층이 86.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장년층이 6.2%, 노년층 4.2%의 순이었다. 학력은 고졸이 43.0%, 대졸이상이 35.0%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고졸미만의 학력도 13.8%를 나타냈다. 가구주의 결혼상태는 유배우인 경우가 89.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혼은 7.3%를 나타냈다. 경제참여활동상태는 상용직 임금근로자인 경우가 43%, 임시직·일용·자활근로가 20.3%, 자영업자 20.3%, 고용주 7.6%로 나타났다으며, 실업 및 비경제활동, 무급가족종사자도 8.5%를 차지하였다. 가구주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는 5.9%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빈곤계층을 교차분석하여 보면,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빈곤한 비율이 높았으며, 극빈층에 속한 경우는 28.1%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연령대가 50세미만 중고령 이하인 경우 빈곤하지 않은 비율이 높았으나, 65세 이상인 노령의 경우 빈곤한 비율이 약 55%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빈곤한 경우 무학과 초졸 미만의 학력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결혼상태를 살펴보면, 빈곤층에서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가 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상태인 경우가 빈곤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임시·일용·자활근로 비율도 빈곤층이 높은 편이었다.

<표 5-6> 가구주의 특성

(단위: %, 명)

구분	빈곤계층				전체
	극빈	차상위	차차상위	비빈곤	
성별					
남	4.0	1.6	3.7	90.7	100.0(675)
여	28.1	9.4	20.3	42.2	100.0(64)
연령층					
청년(19~34)	12.5	0.0	6.3	81.3	100.0(16)
장년(35~49)	4.3	1.9	3.9	89.9	100.0(646)
중고령(50~64)	13.0	2.2	15.2	69.6	100.0(46)
노령(65+)	29.0	9.7	16.1	45.2	100.0(31)
학력					
무학	35.7	14.3	14.3	35.7	100.0(14)
초졸	22.0	9.8	19.5	48.8	100.0(41)
중졸	8.3	6.3	6.3	79.2	100.0(48)
고졸	5.0	1.3	6.3	87.4	100.0(318)
전문대졸	1.6	1.6	4.9	91.8	100.0(61)
대졸이상	3.9	1.2	1.2	93.8	100.0(259)
결혼상태					
유배우	3.9	1.4	3.9	90.8	100.0(660)
사별	44.4	11.1	11.1	33.3	100.0(18)
이혼	16.7	11.1	18.5	53.7	100.0(54)
별거 및 기타	22.2	0.0	11.1	66.7	100.0(9)
경제참여활동상태					
상용직임금근로자	0.3	0.3	1.3	98.1	100.0(318)
임시·일용·자활근로	8.7	4.7	11.3	75.3	100.0(150)
고용주	1.8	0.0	1.8	96.4	100.0(56)
자영업자	5.4	1.4	4.7	88.5	100.0(148)
실업자·비경제활동	31.0	10.3	15.5	43.1	100.0(58)
무급가족종사자	20.0	0.0	0.0	80.0	100.0(5)
장애여부					
있음	9.1	6.8	6.8	77.3	100.0(44)
없음	5.9	2.0	5.2	86.9	100.0(697)
전체	6.0	2.2	5.2	86.5	100.0

※ 무응답에 따라 표본수 달라질 수 있음.

주: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이어서 유효한 Chi-square 검증결과를 보증할 수 없게 되어서 Chi-square값을 보고하지 않음.

2. 빈곤의 직접적 영향

가. 빈곤여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빈곤과 비빈곤을 구분하여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빈곤한 아동과 비빈곤한 아동을 학업성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1.784$, $p<.10$). 즉, 빈곤한 아동($M=13.44$)이 비빈곤한 아동($M=14.23$)에 비해 학업성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통해 예상하였던 것과 달리, 대부분의 변수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빈곤의 기간을 고려하지 못한 분석 자료의 한계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단기빈곤가구는 근로활동을 하면서 빈곤선의 경계에 머물고 있는 가구로 활발한 빈곤이행을 보여주는 가구들(구인회, 2005)임을 감안할 때 비빈곤가구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수 있다. 또한 작은 표본의 편의성 등 분석데이터의 한계로 인한 것일 수 있다.

<표 5-7> 빈곤여부에 따른 아동발달 차이

종속변수	빈곤계층		t값
	빈곤	비빈곤	
자아존중감	2.98(0.49)	3.01(0.40)	.404
우울/불안	1.35(0.32)	1.33(0.31)	-.494
주의집중	1.38(0.36)	1.39(0.33)	.123
위축	1.32(0.33)	1.32(0.35)	-.021
비행	1.11(0.13)	1.11(0.13)	-.350
공격성	1.23(0.23)	1.23(0.23)	-.060
아동학대	1.11(0.19)	1.13(0.20)	.273
학교적응유연성	3.24(0.42)	3.26(0.38)	.238
또래애착	3.27(0.69)	3.36(0.55)	1.153
친구의 비행경험	1.27(0.30)	1.27(0.33)	-.058
학교폭력	1.34(0.43)	1.28(0.42)	-.973
학업성적	3.37(0.88)	3.56(0.82)	1.758+
문제행동(일반비행)	1.05(0.15)	1.06(0.14)	.640
건강상태	1.71(0.84)	1.74(0.81)	.301

+p<.10

나. 빈곤계층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빈곤계층에 따라 아동의 발달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학업성적과 문제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계층별 차이를 보였다. 극빈층, 차상위층, 차차상위층 아동은 비빈곤한 아동보다 학업성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2.503, p<.05$). 아동의 문제행동은 차차상위층 아동이 극빈층과 차상위층 비빈곤층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F=4.207, p<.01$).

그러나 다른 변수들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빈곤의 직접적 영향은 대부분 나타나지 않았으며, 예상했던 것과의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빈곤의 기간 및 우리나라의 빈곤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과 자료의 한계로 인한 것이라 해석될 수 있다.

<표 5-8> 빈곤계층에 따른 아동발달 차이

종속변수	빈곤계층				F값
	극빈	차상위	차차상위	비빈곤	
자아존중감	2.99(.48)	2.97(.53)	2.93(.43)	3.02(.41)	.570
우울/불안	1.32(.30)	1.42(.37)	1.42(.39)	1.32(.30)	1.904
주의집중	1.38(.35)	1.39(.39)	1.49(.38)	1.38(.33)	1.373
위축	1.32(.31)	1.33(.38)	1.39(.35)	1.31(.35)	.612
비행	1.11(.14)	1.12(.12)	1.13(.20)	1.10(.13)	.720
공격성	1.23(.24)	1.25(.21)	1.29(.31)	1.23(.22)	.919
아동학대	1.11(.17)	1.15(.24)	1.10(.16)	1.13(.20)	.535
학교적응유연성	3.25(.41)	3.23(.46)	3.27(.38)	3.25(.38)	.052
또래애착	3.35(.60)	3.06(.87)	3.27(.60)	3.36(.55)	1.796
친구의 비행경험	1.24(.24)	1.35(.42)	1.26(.33)	1.27(.33)	.489
학교폭력	1.34(.41)	1.33(.49)	1.42(.64)	1.27(.40)	1.897
학업성적	3.38(.87)	3.33(.92)	3.29(.75)	3.58(.82)	2.503*
문제행동(일반비행)	1.05(.15)	1.04(.15)	1.14(.27)	1.05(.13)	4.207**
건강상태	1.69(.79)	1.74(.99)	2.01(.96)	1.72(.81)	1.528

+p<.10, **<.01.

3. 빈곤의 간접적 영향(빈곤의 영향경로)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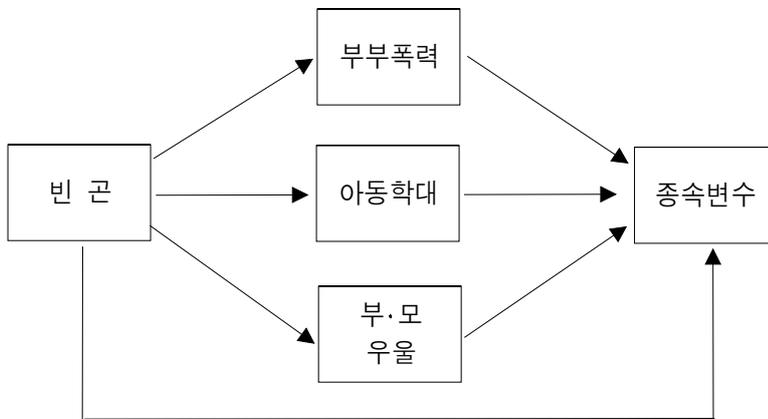
가. 연구모형의 적합도 및 설명력

빈곤의 간접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앞에서 가족과정모델을 토대로 제시한 매개변수로 본 연구의 분석모형을 [그림 5-2]와 같이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모형을 기본모형으로 설정하고 검증한 후 이론적 의미와 통계적 유의미도 등을 고려해서 불필요한 매개경로를 순차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을 취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빈곤의 간접적 영향력을 설명하는 간명하면서도 이론적 설명력을 갖춘 최적의 모델을 제

14) 빈곤의 간접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한 데이터 수는 부모자녀관계로 확인된 666케이스로 분석시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빈곤 92케이스(13.8%), 비빈곤 574케이스(86.2%)이다.

시하고자 한다. 종속변수에 따라 빈곤의 영향을 설명해주는 경로는 다를 수 있어서 최적의 모델은 다양하게 제시될 것이다.

[그림 5-2] 연구 기본모형



각각의 종속변수에 따라 연구기본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종속변수에서 좋은 적합도 지수가 나타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본모형이 적절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형의 설명력을 보여주는 다중상관지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SMC)¹⁵⁾는 .028에서 .178로 전체적으로 높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¹⁶⁾. 이는 변수간의 인과구조를 밝히기 위한

15) R²를 의미한다.

16) 종속변수의 R²가 높다는 것은 독립변수들에 의해 잘 설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R²가 낮으면 구조모델에서 전반적으로 종속변수들이 강력한 독립변수를 갖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종속변수의 많은 분산이 독립변수들에 의해 설명되지 않고, 교란(disturbance)의 분산에 들어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종속변수의 R²이 낮다고 해서 모델이 현상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R²이 낮아도 적합도는 높을 수 있다. 구조방정식 모델링은 가능한 한, 간명한 모델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종속변수에 독립변수의 수가 많아 할 필요가 없고, 종속변수의 R²이 높아야 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모델 적합도가 높다 하더라도 R²이 낮으면 모델이 결코 개념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배병렬, 2007).

기본적 요건인 변수들간의 상호상관¹⁷⁾이 전체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은 이론적으로는 타당하며, 충분한 이론적 검토로 제시된 모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수정보다는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 더욱 의미 있다고 판단된다.

<표 5-9> 연구모형의 적합도 및 설명력

종속변수	모형적합도				설명력 (SMC)
	χ^2 (df)	TLI(NNF)	CFI	NFI	
자아존중감	1.222(3)	1.056	1.000	.990	.041
우울/불안	1.222(3)	1.034	1.000	.993	.128
주의집중	1.222(3)	1.030	1.000	.994	.153
위축	1.222(3)	1.041	1.000	.992	.087
비행	1.222(3)	1.027	1.000	.995	.175
공격성	1.222(3)	1.027	1.000	.995	.178
학교적응유연성	1.222(3)	1.051	1.000	.990	.053
또래애착(친구관계)	1.222(3)	1.069	1.000	.987	.015
친구의 비행경험	1.222(3)	1.049	1.000	.991	.061
학교폭력(따돌림)	1.222(3)	1.043	1.000	.992	.079
학업성적	1.222(3)	1.026	1.000	.995	.028
문제행동(일반비행)	1.222(3)	1.042	1.000	.992	.086
건강상태	1.222(3)	1.057	1.000	.989	.039

주) 수용기준 : $\chi^2=p>.05$, TLI=.9이상, CFI=.9이상, NFI=.9이상

이러한 낮은 설명력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임의로 SMC가 .10보다 작은 변수는 결과제시에서 제외하고 SMC가 .10보다 높은 종속변수에 대한 결과만은 이후 제시하고자 한다. 빈곤과 가족과정 모델이 미치는 영향이 설명력이 10%보다 높은 종속변수로는 사회정서발달영역에 속하는 우울, 주의집중, 비행, 공격성 네 변수만이 해당된다.

이러한 모형의 검증과정에서 이론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모델은 통계적으로 모형이 적합하여도 그 결과는 제외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모델추정

17)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부록 1에 제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경로를 설명하는 최적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빈곤이 아동의 주의산만에 미치는 영향

1) 기본모형

종속변수를 아동의 주의산만으로 투입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본모형의 적합도지수를 살펴본 결과 $\chi^2=1.222$, TLI=1.030, CFI=1.000로 NFI=.934로 좋은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기본모형의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는 0.153로 기본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이 최종산물인 아동의 주의산만을 15.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0> 주의집중 기본연구모형 적합도

	$\chi^2(p)$	자유도	RMSEA	TLI(NNF)	CFI	NFI
연구모델1	1.222	3	-	1.030	1.000	.994
수용기준	p>.05		.05이하	.9이상	.9이상	.9이상

아동의 주의산만의 연구모형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개별 모수치와 경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빈곤할수록 부·모가 우울하며(.327), 부·모가 우울할수록 아동의 주의산만도 높아지는 것(.099)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빈곤의 영향이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부모변인을 통해 간접적 나타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특히, 우울은 부모의 정신건강의 대표적 변수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빈곤은 부모의 정신건강 또는 심리·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것은 다시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빈곤과 연계된 경로는 아니나, 아동학대경험도 아동의 주의산만을 높이는 변수

(.380)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주의산만도는 빈곤을 경험한 부모의 우울정도가 높을수록, 아동학대 경험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것이다.

<표 5-11> 주의집중 기본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경로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값
빈곤→부부폭력	-.071	-.018	.148	-.484
빈곤→아동학대	-.007	-.013	.019	-.346
빈곤→부·모우울	.469	.327	.050	9.383***
부부폭력→주의집중	-.002	-.009	.007	-.274
아동학대→주의집중	.635	.380	.057	11.182***
부·모우울→주의집중	.060	.099	.022	2.760**
빈곤→주의집중	-.038	-.044	.031	-1.237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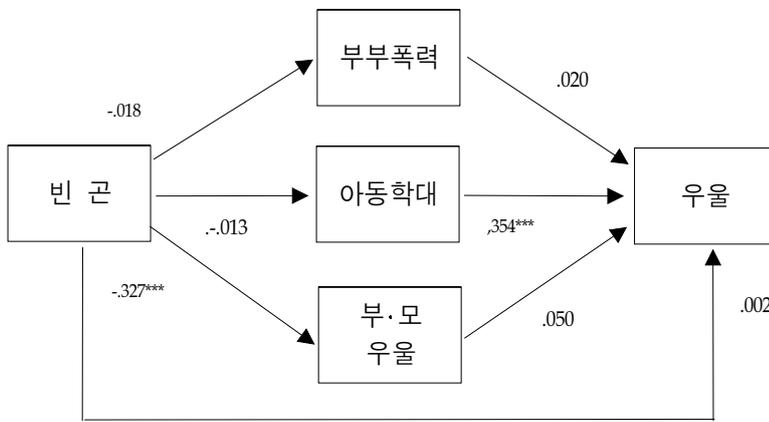
빈곤이 아동의 주의산만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44, 간접효과는 .028로, 즉 총 효과는 -.0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적으로 예상했던 결과와 달리 빈곤의 총효과에서는 빈곤이 오히려 주의산만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2> 주의집중 기본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의 효과분해 : 표준화계수

경로계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빈곤→부·모우울	.327	-	.327
빈곤→아동학대	-.013	-	-.013
빈곤→부부폭력	-.018	-	-.018
빈곤→주의집중	-.044	.028	-.017
부·모우울→주의집중	.099	-	.099
아동학대→주의집중	.380	-	.380
부부폭력→주의집중	-.009	-	-.009

따라서 본 모형은 이론적 기대와 일치하지 못하므로 모형의 수정이 필요하다. 연구자는 최대한 다양한 모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최적의 모형을 찾아야 한다.

[그림 5-3] 아동의 주의산만 기본모형



경로계수 : 표준화계수, ***p<.001

2) 새로운 모형 추정

아동의 주의산만을 종속변수로 하는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두개의 변수를 통한 경로가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적의 모형을 얻기 위해 통계적 유의미성이 떨어지는 경로를 제외하여 모형을 다시 수정하였다. 수정된 모델의 적합도 지수는 $\chi^2=1.919$, TLI=.969, CFI=.990로 NFI=.979로 좋은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수정된 모형의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는 0.009로 기본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이 최종산출인 아동의 주의산만을 0.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너무 낮은 설명력을 보였다.

<표 5-13> 주의집중 수정모형 적합도

	$\chi^2(p)$	자유도	RMSEA	TLI(NNF)	CFI	NFI
연구모델3	1.919	1	.035	.969	.990	.979
수용기준	p>.05		.05이하	.9이상	.9이상	.9이상

수정한 모형의 경로계수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면, 빈곤할수록 빈곤할수록 부·모가 우울하며(.327), 부·모가 우울할수록 아동의 주의산만도 높아지는 것(.096)으로 확인되었다.

<표 5-14> 주의집중 수정모형의 경로계수

경로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값
빈곤→부·모우울	.469	.327	.050	9.383***
부·모우울→주의집중	.058	.096	.022	2.610**

수정된 모형의 효과를 살펴보면, 빈곤이 아동의 주의산만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없으며 부모우울변수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 즉 총 효과는 .03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5> 주의집중 수정모형의 경로계수의 효과분해 : 표준화계수

경로계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빈곤→부·모우울	.327	-	.327
빈곤→주의집중	-	.031	.031
부·모우울→주의집중	.096	-	.096

그러나 새로운 모형의 설명력(SMC)는 .009로 모형이 설명력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며 이러한 모형으로 빈곤의 효과를 설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

3) 최적 모형의 선택

빈곤이 아동의 주의집중에 미치는 영향경로를 설명하는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하여 기본모형에서 나타난 유의미한 경로를 바탕으로 모형을 수정하였다. 그러나 수정된 모형의 설명력과 효과는 너무 낮게 나타나 수정된 모형도 빈곤의 영향경로를 설명하는 적절한 모형으로 채택하지 못하였다¹⁸⁾.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빈곤이 아동의 주의산만에 미치는 영향경로를 설명하는 타당한 모델을 찾지 못하였으며, 이론적 기대에 합치하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의 한계상 적절한 변수를 선정하지 못한 것과, 빈곤의 케이스가 상대적으로 너무 미비한 이유 등이 사유가 될 것이다. 또한 아동빈곤과 관련된 국내연구들에서 빈곤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긍정적으로 미친다는 결과가 상당수 나온 바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 아동빈곤관련 연구는 외국의 선행연구들의 이론적 기대와 불일치하는 결과를 얻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일치되는 연구결과들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빈곤에 대한 이론적 모형의 잘못되었다고 결론내리기 보다는 국내의 빈곤의 특성, 가정의 특성, 빈곤 및 사회복지정책 등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유추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것에 대한 논의는 결론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18) 비록 수정된 모형의 간명성이 기본모형에 비하여 높을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간명성이 높아짐으로 하여 모형의 설명력을 잃는 치명적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

다. 빈곤이 아동의 우울, 비행,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앞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중에서 설명력(SMC)가 10%가 넘는 종속 변수인 아동의 우울, 비행, 공격성 모형에 대한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표 5-15>와 같다. 주의집중 모형은 부모의 우울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빈곤의 간접적 영향을 설명하였지만, 우울, 비행, 공격성은 이러한 빈곤과 아동발달의 결과를 연결해주는 유의미한 매개변수, 경로를 찾을 수 없다. 우울, 비행, 공격성 종속변수를 투입한 모형의 적합도는 타당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검증하려고 시도했던 빈곤의 간접적 영향을 설명하는 경로는 발견할 수 없었다. 각각의 연구모형에서 빈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총 효과도 우울 .014, 비행 .015, 공격성-.013로 나타나, 그 효과가 미비하거나 이론과는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모형도 빈곤의 영향을 설명하는 적합한 경로로 채택하지 못하였다.

<표 5-16> 우울, 비행, 공격성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경로계수	우울				비행				공격성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값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값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값
빈곤→부부폭력	-.071	-.018	.148	-.484	-.071	-.018	.148	-.484	-.071	-.018	.148	-.484
빈곤→아동학대	-.007	-.013	.019	-.346	-.007	-.013	.019	-.346	-.007	-.013	.019	-.346
빈곤→부·모우울	.469	.327	.050	9.383***	.469	.327	.050	9.383***	.469	.327	.050	9.383***
부부폭력→아동우울	.004	.020	.007	.571	-.005	-.059	.003	-1.758	.003	.017	.005	.522
아동학대→아동우울	.548	.354	.053	10.277***	.288	.413	.023	12.301***	.517	.420	.041	12.540***
부·모우울→아동우울	.028	.050	.020	1.381	.006	.024	.009	.683	.016	.035	.016	1.002
빈곤→아동우울	.002	.002	.029	.064	.008	.022	.013	.608	-.012	-.019	.023	-.528

4. 분석결과 요약 및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에서는 빈곤이 직접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곤여부별, 빈곤계층별 아동발달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경로를 설명해주는 적절한 모형을 찾기 위하여 가족과정모형을 근거로 기본 모형을 설정한 후, 최적의 모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빈곤의 직접적 영향은 대부분의부 변수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빈곤의 영향경로를 분석하기 위하여 설정된 모형은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좋은 편이었으나, 설명력이 너무 낮거나 본 연구에서 찾고자 하였던 빈곤의 영향경로를 보여주는 모형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빈곤의 영향경로를 설명해주는 적합한 모형을 채택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이 아동발달의 전 영역에 걸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불일치에 대한 요인분석도 국내 아동빈곤의 영향이 되는 기제들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데이터와 아동빈곤의 영향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적용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동복지패널 데이터는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삼아, 빈곤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청소년기와 다르게 빈곤의 영향이 미비하게 나타났을 거라 예상된다. 따라서 추후에는 아동의 발달단계별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빈곤의 결과를 예상해야 한다. 그리고 데이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들의 한계상, 아동빈곤의 영향경로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에 부합하는 다양한 변수들이 투입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가족과정 모델뿐만 아니라 아동빈곤의 영향경로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과 모델을 적용하여 매개변수, 경로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제6절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아동학대, 학교생활, 학업성적, 문제행동, 건강상태 등 아동의 발달과업인 신체·정서·인지 발달 등의 영역과 관련지어 살펴보았다. 또한 가족과정모델을 근거로 빈곤의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경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업성적과 외에 다른 변수에서는 빈곤의 직접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간접적 영향도 유의미한 경로를 찾을 수 없었다. 이러한 빈곤의 직접적·간접적 영향에 대한 결과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빈곤의 부정적 영향은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엄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빈곤의 직·간접적 영향이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의 기간은 오래되지 않아서 빈곤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것이라 유추되며, 빈곤이 장기화되고 빈곤집단이 형성된 외국의 사례들과 달리 현재 우리나라 아동빈곤은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아동의 빈곤화 현상은 진행되고 있으며, 반복빈곤과 장기빈곤은 우리나라 빈곤아동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빈곤의 악영향이 확산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아동빈곤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투입이 필요하다. 빠른 정책투입과 투자는 빠른 효과를 가져온다. 인적자본 투자 전략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투자는 조기에 이루어질 수록 최대의 효과를 거둔다. 따라서 빈곤아동에 대한 개입 및 투자도 아동기 초기에 이루어질수록 그 효과 및 효율성이 아주 높아진다. 즉, 빈곤문제에 조기개입 할수록 빈곤의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중재요인들의 작용으로 빈곤의 영향에서 보호막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가정환경 속에서 적절한 부모역할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빈곤가정의 부모는 장시간의 노

동, 스트레스, 양육지식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보인다. 특히 빈곤한 부모의 스트레스, 우울 등의 사회정서문제는 그대로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부모의 사회정서 문제들은 빈곤이 아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¹⁹⁾.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빈곤의 영향이 아동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가구주(부모)에게는 빈곤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다. 본 연구의 데이터에 따르면 빈곤가정의 가구주는 비빈곤 가구주보다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우울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⁰⁾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경로에서 보면 가정환경과 부모의 심리 변인이 중요한 매개요인으로 작용한다. 빈곤은 아동에게 뿐만 아니라 부모의 정서상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그 어떤 시기보다 주양육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아동은 이러한 부모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받게 된다. 비록 간접적 영향일 수 있으나, 부모의 심리와 정서는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 따라서 빈곤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와 가정환경에 동시에 개입하는 서비스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빈곤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빈곤아동뿐 아니라 빈곤가정의 부모 또는 가정환경에 대한 개입이 무척 중요하다. 따라서 빈곤아동의 문제를 단순히 아동의 문제로 보는 단선적 시각에서 벗어나, 아동의 부모와 가정환경으로 확대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빈곤아동지원에서 빈곤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서비스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의 연령단계별 부모-자녀관계의 발달을 지지해주는 프로그램이 세분화되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19) 허남순 외, 『빈곤아동과 삶의 질』, 학지사, 2007.

	빈곤	비빈곤	t값
가구주 우울	1.89(0.66)	1.37(0.42)	-6.087***
20) 가구주 자아존중감	2.74(0.49)	3.13(0.43)	6.716***

제6장 국내외 빈곤아동 지원정책

탈아동빈곤정책에는 공공부조 및 수당을 통한 소득지원(현금), 세제혜택, 현물지원(사회복지서비스), 노동시장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표 6-1 참조). 각 정책은 단독적으로 적용되기보다는 혼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다양한 탈아동빈곤 정책 중에서 공공부조, 아동수당, 노동시장정책, 사회복지서비스(각종 스타트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본 고에서 세제혜택에 해당하는 정책과 현물급여 중 조기교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외한 다른 유형은 포함시키지 않아, 이는 향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놓는다. 한국과 주요 외국에서의 각 제도의 주요 내용과 특성, 그리고 탈아동빈곤의 효과 및 시사점 등을 파악하여 우리 사회의 상황에 맞는 실효성 있는 탈아동빈곤정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표 6-1> 탈아동빈곤정책의 유형과 효과

구분	효과	유형
현금이전	자원증가	공공부조, 아동수당, 한부모수당 임금보조, 모성보조, 실업보험, 아동지원금
세제혜택	비용감소	세금면제, 세금공제 Child Credit, Earnings Credit
현물급여	소득력 증가	보육지원, 의료급여, 건강보험, 장애급여 조기교육, 고등교육, 대학교육, Vocational Training, 평생교육, <u>직업훈련</u>

주: 굵은 글씨체가 본 연구에서 다룬 유형임. 보육지원과 직업훈련은 노동시장정책으로 묶어서 소개하였음.

자료: Meyers, Marcia, Gornick, Janet, Peck, Laura, and Lockshin, Amanda, 'Public Policies that Support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Variation across US States,' *Child Well-Being, Child Poverty and Child Policy in Modern Nation: What Do We Know?*, Briston, UK: The Policy Press, 2003, p438.

제1절 현금지원 정책

1. 공공부조

공적이전소득 지원은 대표적인 탈아동빈곤정책이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도 공공부조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공적이전소득에는 자산조사를 통해 지원하는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와 보편적인 아동지원제도인 아동수당(Child Allowance), 가족수당, 편부모수당 등이 있다. 지원형태는 국가마다 상이하고 지원대상도 상이하다. 양자는 모두 빈곤을 감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적 이전소득은 특히 가구가 실업, 저임금, 가족적 위기(출생, 별거 등)에 처해 있을 때 매우 유용한 지원이 된다. 근로소득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로부터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완전고용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소득을 통해서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회에는 저학력, 저기술, 취약한 건강 상태 등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실업자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사람들이 빈곤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전소득이다. 이전소득의 수준은 충분하여 실업자나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빈곤선 이하로 소득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Vleminckx and Smeeding, 2003).

Solera(2003)은 자유주의 국가인 영국, 사민주의 국가인 스웨덴, 조합주의 국가인 이태리를 대상으로 공적이전소득과 시장소득 등의 아동빈곤율 감소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국가별 다양한 탈아동빈곤정책이 어느 정도 빈곤아동문제를 완화하는 지를 파악하였다.

스웨덴의 경우 아동수당은 매우 관대하여 1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제공되며, 액수로는 소득의 6%에 해당되고 이는 세금이 면제되는 급여이다. 아울러 모든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은 전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국가로부터 면제되는 부양선급금(advance

maintenance payment)을 받는다. 더구나 저소득 아동가구는 매월 역시 면세가 적용되는 주택수당(housing allowance)을 받는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취업한 상태이고 보편적인 급여 및 사회보험이 관대하기 때문에 스웨덴에서는 공공부조는 미미한 역할만을 한다(Bradshaw et al, 1996: Solera, 2003에서 재인용). 이로써 스웨덴의 이전소득의 아동빈곤을 감소 효과는 84%나 되고 있다(표 6-2 참조).

영국은 아동빈곤을 감소에 있어서 스웨덴보다 덜 효과적으로 나타났다(24%). 영국의 소득이전은 선택적으로, 이를 필요로 하는 대상을 선정하여 제공하는 잔여적 급여이면서 급여 수준이 낮은 편이다. 보편적인 이전소득이나 사회보험의 급여 수준은 높지 않고, 주로 공공부조(Family Credit²¹⁾, Income Support²²⁾) 중심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그런데 맞벌이 가족은 소득기준으로 인하여 Family Credit을 받기가 어렵다. 그리고 저소득층이 소득지원(Income Support)를 받지 않게 되면 다양한 혜택인 무료 학교급식 지원 및 우유, 주거비용 등도 모두 받지 못하게 되어 각종 수급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근로에의 참여를 막고 있다. 이와 같이 영국에서는 빈곤합정이 존재하고, 시장소득이 아동빈곤율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조합주의 국가인 이태리의 경우 양부모가족은 소득이전으로 오히려 빈곤율이 증가하였다. 이는 시장소득에 대한 세금이 과중하여 가족이 빈곤으로 전락함을 의미한다. 이태리에서 실업수당은 존재하지 않고, 보편적인 아동수당이나 일반적인 소득지원제도도 없다. 다만 가족수당이 존재하는데 그 액수는 낮고, 자영업자 가족은 제외되며 수당은 물가에 연동되지 않고 있다. 가족수당은 가처분소득의 약 5%의 수준이다. 이태리에서는 한

21) Family Credit(FC)은 full-time으로 일하고 있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족에게 제공되는 자산조사형 공공부조형 제도이다. FC의 주요 목적은 저소득 아동가구의 근로의욕을 유지하면서 가족을 지원하는데 있다(Solera, 2003).

22) 소득지원은 실업가구나 비정규직 가구에 대한 자산조사형 공공부조이다(Solera, 2003).

부모가족의 경우 빈곤감소율이 가장 높은 24.2%인데, 이는 유족 연금이나 개인연금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6-2> 소득이전이 아동빈곤율에 주는 효과(1990년대 초)

(단위: %)

	전체 아동가족	양부모가족 ¹⁾	한부모 가족 ²⁾
이태리			
소득이전 전 아동빈곤율	10.1	8.4	22.3
소득이전 후 아동빈곤율	10.7	9.8	16.9
아동빈곤 감소율	-6.0	-16.0	24.2
영국			
소득이전 전 아동빈곤율	26.9	16.8	79.3
소득이전 후 아동빈곤율	20.3	14.3	57.2
아동빈곤 감소율	24.5	14.9	27.9
스웨덴			
소득이전 전 아동빈곤율	17.3	11.9	36.7
소득이전 후 아동빈곤율	2.8	2.3	4.3
아동빈곤 감소율	83.8	80.7	88.3

주: 1) 양부모가족은 2명의 결혼한 성인이나 동거인과 1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구성된 가족.

2) 한부모 가족은 가구내 다른 성인 없이(성장한 자녀, 부모 등) 1명의 성인이 18세 미만의 아동 1명 이상을 돌보는 가족.

자료: Solera, Christina, 'Income Transfers and Support for Mothers' Employment: The Link to Family Poverty Risks', *Child Well-Being, Child Poverty and Child Policy in Modern Nation: What Do We Know?*, Bristol, UK: The Policy Press, 2003, p466.

이와 같은 공적 이전소득에 있어서의 복지국가 유형별 차이가 아동빈곤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스웨덴 같은 관대한 보편주의적 급여를 제공했을 때, 아동빈곤율이 가장 낮고, 자유주의적 국가인 영국의 경우는 자산조사형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하는 잔여적 급여 중심이어서 근로동기를 저해하며, 이태리도 근로를 통한 시장소득이 이전소득보다 빈곤율을 높이고 있어서 근로동기를 낮추고 있다. 아울러 영국과 이태리에서는 여성이

취업할 수 있기 위한 공보육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이 더욱 구비되어 있지 않다.

Solera(2003)에 의하면 다양한 소득이전이나 공공부조보다도 아동빈곤율을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여성의 취업에 있다. 스웨덴의 경우 아동빈곤율이 낮은 이유는 관대한 보편주의적 복지급여의 존재와 함께 한부모의 취업률이 80% 이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영국 한부모의 취업률은 39.3%, 이탈리아는 69.4%에 이르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확대가족제도가 발달되어 여성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즉, 친인척이 취업여성의 아동돌봄을 지원하고 있어 영국보다 한부모가족 여성의 취업률이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근로소득이 부족했을 때 가족을 빈곤화 하는 것을 막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급여이다. 여기에서는 최근 아동수당제도에 관한 관심제고와 함께 제기되고 있는 아동수당과 관련된 일부 논의에 대해 살펴본 후, 주요 OECD 국가의 아동수당제도에 관해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아동수당제도의 도입목적에 관한 것으로 아동수당제도 도입의 목적이 빈곤탈피인가, 출산율 제고인가? 하는 것도 아동수당에 관련된 쟁점 중의 하나이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수당제도 도입과 관련된 논의들은 출산율 제고 측면에서만 언급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즉, 아동수당의 도입여부는 출산율을 어느 정도 높여줄 수 있을 것인가, 출산결정에 미치는 효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출산율은 복합적인 사회, 경제적, 심리적 요인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수당 자체가 단기적으로 미시적 수준의 출산결정을 바꾸게 하여 출산율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너무 낙관론적이라 할 수 있다(김수정, 2006). 이와 같이 아동수당제도 도입의 목적을 출산율 제고에 둘 경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는 그 만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급여액을 제공해야 되므로 이는 바로 예산확보상의 문제와 결부되어 오히려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둘째,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논의 중의 하나는 아동수당 도입으로 여성의 성역할이 강화된다는 입장이다. 즉 아동수당 도입의 경우 여성의 양육자 역할을 보상, 강화할 것이라는 논리이다. 아동수당이 양육자 보상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성 개인에게는 가정 내에서 안주하도록 부추기고, 사회적으로는 여성이 양육자라는 이데올로기를 강화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아동수당의 급여액이 높은 스웨덴과 핀란드, 그리고 아동수당제도가 없는 미국의 경우 모두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높다. 또한 일단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된 국가의 경우 일정수준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고 있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속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국가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및 급여액 수준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설정하는 것 역시 무리라고 할 수 있다(김수정, 2006).

셋째, 공공부조급여(보충급여)인가, 보편적 급여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보편적인 급여형식일 경우 경제적 보충급여가 불필요한 고소득 계층에게도 지급되기 때문에 예산상의 낭비를 초래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 급여일 경우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분배하는 잇점이 있으나 공공부조 제도가 갖는 낙인효과와 2차 소득자의 소득제한을 발생시키게 되며, 아동수당의 목적인 현대사회의 공공재로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문제는 빈곤문제로 다시 축소, 환원될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김수정, 2006).

이에 비해 보편적 급여로서 아동수당은 동일 계층 내에서, 그리고 전 계층에서 아동이 있는 가구의 상대적인 경제적 불리함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아동수당을 통해 빈곤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동수당 도입 초기단계에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은 보편적 급여형식을 택하되, 예산상의 제약을 고려하여 연령을 한정하여 단계별로 도입하거나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방식 등으로 자산평가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보편주의의 대의를 살리는 방식의 절충이 가능할 것이다(김수정, 2006).

넷째, 아동수당이 도입될 경우 공보육 확대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는 공적보육시설의 확충과 아동수당은 대체재적인 성격을 가진 정책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갖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정책이 다른 정책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즉, 아동수당은 아동에 대한 추가적 투자를 통해 아동의 인적자본을 향상시킴으로써 미래 한국의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키는 것이고, 공적보육은 아동들에게는 동일한 출발의 기회를, 부모에게는 노동권을 보장해주는 정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윤홍식, 2006).

주요 선진국의 아동수당제도의 도입배경 및 현 제도의 운영방향은, 소득분배, 아동복지실현, 미래 노동력 확보, 여성지위 향상 등 다양한 정책적 요구와 관련되어 있다. 주요 OECD 국가들 중의 아동수당제도 실시형태는 보편주의적 형태와 소득과 연계된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보편주의적 아동수당제도는 가구소득이나 고용상태와는 무관하게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이며, 소득과 연계된 아동수당제도는 자녀가 있는 가족의 소득과 연계하여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이선주 외, 2006). OECD 국가의 아동수당 액수의 규모는 <표 6-3>에 제시하였다.

<표 6-3> OECD 국가의 아동수당 규모

(단위: 원, %)

국가	아동수당 (2인기준 원화환산)	DPI 대비	총소득대비
오스트리아	435,789	12.4	13.1
호주	481,813	16.1	13.4
벨기에	319,680	10.6	8.2
캐나다	196,197	7.9	7.0
체코	95,197	12.3	12.1
덴마크	311,145	18.5	6.6
핀란드	269,440	10.1	7.7
프랑스	140,693	5.3	4.4
독일	394,240	11.6	9.0
아일랜드	356,053	10.3	10.5
이태리	142,827	6.8	5.9
일본	81,300	2.9	2.4
룩셈부르크	589,760	13.7	13.7
멕시코	0	0.0	0.0
네덜란드	183,040	5.8	4.5
뉴질랜드	147,043	7.0	6.0
노르웨이	309,965	7.7	6.1
폴란드	71,040	5.5	5.0
슬로바니아	35,721	6.2	6.0
스페인	0	0.0	0.0
스웨덴	261,857	9.6	7.4
스위스	361,015	8.1	7.3
영국	229,779	6.4	5.2
미국	0	0.0	0.0
평균 (0인 국가 제외)	257,790	9.3	7.7

자료: OECD, 2006, Taxing Wages: 김수정, 「아동수당의 도입필요성과 도입방안」, 사회적 돌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2006, p45에서 재인용.

4. 시사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사회복지 분야의 대표적 지출로서 사회적 욕구 수준이 큰 반면, 한번 결정되면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고 수급권자에게 급부청구권이 발생하여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로서 국가재정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한다(임명현 외, 200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이후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이전 시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그 증가의 폭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빈곤감소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병구(2004)는 우리나라의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지적하였으며, 공적 이전지출을 포함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향후 공적이전 지출 정책은 절대 규모를 증대시켜 빈곤층의 보호를 확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임명현 외(2007)도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단순히 저소득층 보호차원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탈 수급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선정 시 아동유무를 고려하지 않으며, 단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만을 고려하고 있다. 즉,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녀를 키우는 빈곤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를 제도 안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의 경우에는 공공부조(TANF) 수급자 선정 시 피부양아동의 유무가 가장 기초적인 기준이 되며, 그 밖의 대부분의 나라들도 아동의 유무, 아동의 연령, 한부모 가정 여부 등을 소득기준과 함께 고려하여 공공부조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아동 수나 연령에 따라 추가적 급여를 제공한다(Bradshaw and Finch, 2002; 김은정 외, 2006 재인용).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급자 선정 시 아동유무 등을 고

려하여 공공부조 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인구가 지나치게 과소하여 빈곤계층이라 하여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빈곤계층이 상존하고 있으며, 보육서비스 지원 외에 빈곤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만 있으며, 아동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외 한부모 가족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가구를 약간 상회하는 소득계층의 가족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부조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을 보호·교육하는데 따른 부담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보기에 그 지급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들 가정에 지원하는 아동양육비용의 현실화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아동의 양육부담을 사회가 분담하고 아동이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의 소득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위에서 살펴본 외국의 아동수당제도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수당제도의 도입배경은 국가별 다양한 정책적 요구와 관련되어 있고, 실시형태 또한 보편주의적 형태와 소득과 연계된 선별주의적 형태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프랑스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동의 복지향상 및 양육자녀유무에 따른 경제적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소득분배 차원에서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아동수당제도는 각 국가마다의 정치·경제·사회적인 환경에 따라 그 목적이 변화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각 국가의 제도나 정책은 개별 국가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목적이 변화될 수 있으므로 한 가지 측면만을 고려하여 제도나 정책을 수행하기보다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은 저출산과 관련한 출산률 제고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적극적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

다. 즉, 아동복지권 실현과 자녀유무에 따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의 차이를 경감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미래의 질적인 노동력 확보라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제2절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아동빈곤에 대응한 전략으로 Whiteford와 Adema(2007)는 크게 급여를 제공하는 전략(Benefit Strategy)과 부모에게 근로한 기회를 주는 노동전략(Work Strategy)으로 나누었다. 두 전략은 모두 아동빈곤을 낮추는데 상이한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의 추세는 노동시장 전략에 더 주목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같은 경우는 공공부조를 통해서 아동빈곤을 낮추려는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높은 아동빈곤율이 지속되고 있다.

노동시장정책의 중요성은 다양한 연구결과에서 증명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취업은 탈빈곤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인구사회학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였고, 이혼의 증가로 인하여 더 이상 남성일인소득자 가족 유형은 지배적인 가족형태라고 보기 어렵게 되었다(Solera, 2003). 즉, 이전과 달리 남성이 전 가족을 부양하는 능력이 약화되었고, 이에 따라 가족이 빈곤에 처할 위험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특히 한부모 가족의 아동이나 실업가구 아동의 경우가 고위험군이다.

이에 따라 가구주 특히 여성을 위한 노동시장정책은 탈아동빈곤에 매우 핵심적인 사안이다. 전세계적으로 이인생계부양가구는 일인생계부양가구에 비해서 빈곤에 처할 확률이 낮다. Whiteford(2006)에 의하면 OECD 국가 중 아동빈곤율이 낮은 국가는 실업율이 가장 낮음을 발견하였다. <표 6-8>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구유형에 따른 빈곤율은 일인생계부양가구의 경우가 이인생계부양가구에 비해서 많게는 7.5배 적게는 1.5배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6-4> 주요국가의 생계부양형태에 따른 빈곤율

(단위: %)

국가	이인생계부양자	일인생계부양자	이인생계부양자	일인생계부양자
	가구비율 (연도)	가구 빈곤율 (2005년)	가구 빈곤율 (2005년)	가구 빈곤율 대비 이인생계부양자 가구 빈곤율
스웨덴	90.1(2002)	8.2	1.1	7.5배
영국	79.4(2003)	17.6	3.6	4.9배
캐나다	79.2(2001)	22.9	3.5	6.5배
한국	53.0(2003)	9.2	6.3	1.5배

자료: 윤홍식, 「사회투자국가와 한국복지국가의 과제」, 사회투자국가의 의미와 한국적 적용 가능성에 관한 토론회 자료, 2007, p60.

따라서 탈아동빈곤정책은 취업을 통한 가구소득이 있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여성의 취업을 통한 이인소득자일 경우 빈곤율은 매우 낮다. 주요 OECD 국가의 적극적 적극저거 노동시장 지출비율을 보면 <표 6-9>와 같다. 대체적으로 노르딕 국가인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경우 노동시장 지출 비율이 3% 이상으로 높은 편이고, 동시에 아동빈곤율이 낮다. 예외적으로 호주의 경우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 3.0%로 높은 편이나 아동빈곤율은 14.9%로 높다. 대륙형 국가인 프랑스,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는 노동시장 지출비율이 높으나, 아동빈곤율은 중간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외적으로 영국, 호주는 비교적 높은 노동시장 지출을 하고 있으나(2.6%), 아동빈곤율은 17.0%나 되고 있다. 기타 영미권 국가나 나머지 국가들은 노동시장 지출비율이 1.5% 이하로 낮고 아동빈곤율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지출 비율은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표 6-5> 주요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 비율

아동빈곤 율 수준	국가	중위소득 50% 이하 아동빈곤율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비율 (2000년)	GDP 대비 가족복지 지출비율 (2000년)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비율 (2000년)
저빈곤율 국가: 7% 미만	덴마크(2000)	2.7	25.8	1.6	3.7
	핀란드(2000)	2.8	21.3	1.0	3.1
	노르웨이(2000)	3.4	22.2	0.7	3.8
	스웨덴(2000)	4.2	28.8	1.3	3.3
	네덜란드(1999)	6.3	19.3	1.1	1.5
	벨기에(2000)	6.7	25.3	1.2	2.6
중빈곤율 국가: 7~10% 미만	오스트리아(2000)	7.8	25.3	0.5	2.9
	프랑스(2000)	7.9	27.6	1.3	3.0
	스위스(2000)	8.9	18.0	0.4	1.4
	독일(2000)	9.0	26.3	1.1	1.9
	룩셈부르크(2000)	9.1	20.4	0.2	3.2
	한국(2000)	9.8	5.1	0.4	0.1
고빈곤율 국가: 10~20% 미만	그리스(2000)	12.7	21.3	0.2	1.1
	호주(2001)	14.9	17.9	0.4	3.0
	캐나다(2000)	15.5	16.7	0.4	1.0
	아일랜드(2000)	15.8	13.6	0.8	1.8
	스페인(2000)	16.0	20.4	0.9	0.9
	이태리(2000)	16.6	23.2	0.5	1.2
	영국(1999)	17.0	19.1	0.4	2.6
최고빈곤 율 국가: 20% 이상	미국(2000)	21.9	14.6	0.2	0.7
	멕시코(2000)	26.9	5.8	0.1	0.7
	평균	11.2	19.9	0.7	2.1

자료: LIS data base(아동빈곤율), SOCX data, 2003. 한국 아동빈곤율: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분석(농어가 및 1인가구가 제외되어 아동빈곤율이 낮게 추정되었을 확률이 높음). 사회복지, 가족, 노동시장지출비율은 OECD SOCX data를 사용하여 추계함.

이를 통해 아동빈곤율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지출 비율은 대체적으로 반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노동시장정책 지출비율이 높은 국가의 아동빈곤율은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에 대한 지원인 직업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해서 가구주나 가구원이 취업할 하게 될 때, 가구의 소득을 통해서 아동빈곤율은 낮아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성이 취업할 수 있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보육정책이다. 여성의 취업과 관련된 요인으로 성문화, 경제상황, 직업 구조 같은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선행연구들은 저렴한 보육서비스는 여성의 취업률을 제고함을 증명하고 있다(Esping-Andersen, 1999; Fagnami, 1996; Gustafsson, 1995; Leibowitz et al, 1992; Solera, 2003에서 재인용). 보육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되면 여성은 취업하기보다는 집에 머물면서 자녀를 돌보게 된다. 따라서 노동시장정책과 함께 보육비용을 낮추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여성의 취업률을 제고시키는 요인으로 부성휴가와 탄력적 근무제도, 이진소득의 규모, 세율, 계약직 관련 공공정책 등이 있다(Solera, 2003).

제3절 현물지원 정책: 각종 start 사업

아동빈곤은 다차원적 현상으로 한 가지 정책으로는 이러한 다양성을 포괄할 수 없다. 이에 따라서 국가들은 아동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소득지원이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기는 하지만, 아동발달, 사회적 배제 감소, 조기교육, 보육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Whiteford and Adema, 2007). 특히 빈곤아동은 자원의 결핍으로 조기 교육기회가 적어 인지발달이 늦다. 늦은 인지발달은 평생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따라서 탈아동빈곤을 위해서는 소득지원 뿐 아니라 전인적인 개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Esping-Andersen에 의하면 어려서 인지발달이 늦고 이로 인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성인기가 되어서 불안정한 고용, 저임금, 실업 등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Vleminckx and Smeeding, 2003). 아동에 대한 투자는 아동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도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요인이다. 영국과 미국 등 선진 제국에서는 각종 스타트 사업을 통해서 어려서부터의 발달과 사회통합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민간에서 위스타트 사업을 실시하였고, 정부는 2005년부터 희망스타트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스타트 사업의 주요 내용과 효과를 통해서 탈빈곤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1. 한국: 희망스타트

희망스타트는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0~12세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보육(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보건복지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활용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여건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사회양극화 등에 따라 아동빈곤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본 연구에서 추정된 바에 의하면 상대적 빈곤아동은 약 100만명에 이른다. 빈곤은 아동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고, 부적절한 양육환경과 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한다. 따라서 아동빈곤에 대한 사회투자²³⁾는 빈곤세습의 고리를 단절하고 인적자본을 축적하여 사회통합 실현 및 향후 사회비용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와 같은 보건·복지·교육 등 개별적인 서비스 확대로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되며, 따라서 빈곤아동 개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정부의 책임하에 제공하는 집중적인 사회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투자 역점과제 중의 하나로 「희망스타트」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23)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는 취업률, 소득수준, 교육성취, 복지수급 등의 측면에서 \$1 투자에 대해 최대 \$7.14의 환원효과가 발생됨(미국 랜드연구소, 2005; 보건복지부, 2006 재인용).

가. 서비스 대상

희망스타트 시범사업의 서비스 대상은 임산부 및 0~12세 아동 및 가정으로서 기초수급가정 및 차상위 계층 가정 우선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전체 서비스 대상 아동규모는 국민기초수급대상 중 0~12세 아동 18만명(시설아동 2만명 제외)과 차상위가정 0~12세 아동 43만명을 포함하여 61만명으로 추정한다. 이 중 시범사업 서비스 수혜아동 규모는 읍·면·동 지역단위별로 300명 수준으로 16개소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경우 4,800명이 된다.

나. 시범사업 규모 및 예산

사업규모는 16개소로 2007년 시범운영 후 성과평가 등을 통해 전국 확대여부를 결정토록 한다. 2010년까지 234개소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토록 한다. 사업예산은 시범지역 운영비 지원에 1개소 당 300백만원씩 16개소에 4,800백만원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개발, 정보시스템 구축, 종사자 교육 등에 250백만원 등으로 총 5,050백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다. 운영조직 및 서비스 기능

운영조직은 『희망스타트』 전담팀, 『희망스타트』 사업수행기관, 『희망스타트』 지원센터, 『희망스타트』 사업지원단 등으로 구성된다.

2. 한국: We Start

We Start는 외국의 대표적 빈곤아동지원정책인 Start 사업들의 검토와 인적자본개발이론에 근거하여 출범하였다. We Start 사업은 0세에서 12세까지의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사례관리, 건강 지원, 보육과 교육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인적자본개발서비스의 한 형태이다.

1) 사업소개

We Start는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게 복지(Welfare)와 교육(Education)을 지원해 공정한 삶의 출발(Start)을 돕는 시민운동이다. We Start는 2004년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주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빈곤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범하였다.

We Start 운동은 종전의 사후대처적인 아동복지서비스와 달리 인적자본 개발과 사회투자적 관점을 바탕으로 아동기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복지·교육·건강서비스를 3대축으로 하여 아동과 가족의 욕구별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We Start 운동은 기존의 단발적인 시혜성 아동복지사업과 달리 일회성의 물질적 도움을 주기보다는 교육, 복지, 건강분야에서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해 근본적인 자활의지를 길러주는 활동을 한다. We Start 마을 센터가 중심이 되어 자원봉사자,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관, 학교, 사회단체, 기업, 보건소, 병원, 약국 등과 주민들이 힘을 합쳐 아동복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12세 이하의 빈곤 아동들을 돕고 있다.

2) 대상 아동

We Start 운동은 빈곤아동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와 가정을 동시에 개입하는 2세대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으며 부모의 자립 및 가족의 강화를 목표로 입체성 있게 지원한다.

We Start 운동의 표적 집단은 빈곤지역 저소득층 아동인구 300~500명 지역이다. 이는 공공부조 수급자와 근로빈곤층이며²⁴⁾, 태아기부터 12세 아동이 대상이며 그들의 부모 및 가정을 모두 포함한다.

24) 저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와 보육료 감면 혜택을 받는 차상위 계층을 포함

3) 수행체계

We Start 사업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의 지원에 이루어진다. We Start 사업을 총괄하는 We Start 운동본부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업수행체계로 We Start 마을 20곳²⁵⁾의 We Start 센터와 We Start 아동복지센터 3곳²⁶⁾이 있다.

We Start 마을 팀의 구성은 최소한 We Start 팀의 총괄을 담당한 사회복지사 1인(팀장), 간호사, 보육교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각 1인으로 한다. 공적 서비스 체계를 이용할 경우 We Start 팀은 외부위탁 형식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적 전달체계로 구성한다. 민간전달체계를 이용할 경우는 민간위탁 방식을 이용하되 공적 전달체계 자격기준에 상응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4) 재정

We Start는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지방정부와 민간자원의 재정지원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개 마을당 적정 예산규모는 300명 기준으로 연 2-3억원이며, 대상아동 300명 초과 500명까지는 적정예산규모를 4억원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산은 지역사정에 따라 도·광역시, 지자체, 민간자원으로 편성한다. 현재 We Start 운동의 주요사업인 We Start 마을은 전국 4개 시·도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도의 지자체의 지원과 팬택, C&M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25) 2007년 12월 31일 기준 : 강북(번2,3,5동), 강서(방화3동), 고양(주교동), 광명(하안3동), 구리(수택2동), 군포(산본1,2동), 군포제2(군포1,2동), 성남(야탑3동), 성남제2(산성동), 수원(우만1동), 안산(초지동), 안산제2(본오1동), 양주(회천2동), 양주제2(광적면), 속초(청호동), 정선(함백,예미), 철원(화지, 월화, 관점), 광양(광양읍), 장흥(대덕읍), 진도(고군면)

26) 청주 We Start 아동복지센터, 전주 We Start 아동복지센터, 부산 We Start 아동복지센터

5) 사업내용

We Start 운동은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하여 교육출발선 만들기, 건강지킴이, 후견인 맺기, 희망의 집 꾸미기 등의 사업을 5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We Start 운동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되는 「We Start 마을 만들기」는 We Start 마을센터를 만들어 전문가들이 아동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4개 광역 20개 지역이 We Start 마을로 지정되어 있다.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사회 저소득층 아동들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다.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은 We Start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사업표준안은 <표 6-8>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최근 2007년 3월부터는 'We Start 마을'사업의 새로운 실험인 '위스타터 파견사업'을 시작하였다. '위스타터 파견사업'은 빈곤 아동이 밀집된 지역에 한명의 위스타터(빈곤아동복지조정자)를 파견해 빈곤아동에게 교육, 건강, 복지 등의 입체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07년 3월 부산시 동구, 전주시 완산구, 청주시 상당구 세 곳에서 우선적으로 시작되었다. 위스타터 사업은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위스타터 한명이 지역사회에서 빈곤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찾아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 외에 「교육출발선 만들기」는 빈곤층 아동이 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과 후 교실을 활성화하고 무료교육을 실시하여 뒤쳐진 공부를 보충하는 한편 사랑의 책 보내기 운동 등을 펼쳐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지킴이」 사업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에게 건강지킴이를 통해 무료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후견인 맺기」는 빈곤층 아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후견인을 맺어주며, 「희망의집 꾸미기」는 방과 후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위한 재미나는 컴퓨터와 배움터를 만들어 주는 사업이다.

<표 6-6>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 소개

지역사회 저소득층 아동들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을 도모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아동(0-12세): 신체적 건강증진, 영양상태의 증진, 부모 혹은 주양육자와의 애착관계 증진, 안전의 증진, 아동학대와 방임의 위험감소 - 영·유아기 아동(0-6세): 인지능력의 향상, 정서적 건강의 증진, 또래관계 및 자존감의 증진 - 취학 아동(7-12세): 학습태도, 학교적응력, 학업성취도, 친사회적 행동의 증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생활습관 향상(음주, 흡연 감소) - 자아개념 증진(자기 효능감의 증진, 우울증상의 감소, 양육 스트레스의 감소) - 가정환경의 변화(물리적환경의 개선, 인지적 자극을 유도하는 환경의 증진) - 바람직한 자녀 양육방법의 증진(양육자신감 증진, 긍정적 양육태도 증진, 양육부담감의 감소, 적절한 훈육방법의 사용)
지역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발달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관계의 증진 - 지역사회 서비스 네트워크의 활성화 - 아동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인식의 증진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자원에 기반을 둔 서비스 체계의 구축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 문제해결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서비스 체계의 구축 - 복지·교육·보건 통합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통합사례관리 체계의 수립 -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 방안 강구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 목표 집단 : 학령기 아동 및 가족 • 주요서비스 내용 - 통합적 사례관리 - 학교사회복지 -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에서 초등학생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사업(주요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 목표 집단 : 3-6세 유아 및 가족 • 주요서비스내용 - 부모 및 교사교육 - 가정 및 지역 내 보육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 목표 집단 : 임산부, 0~2세 아동 및 가족 • 주요 서비스 내용 - 정기적인 가정방문간호를 통해 직접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영유아 영양관리, 모아 상호작용 증진 - 가정안전관리, 응급처치법 교육 - 보건소, 의료기관 등 기존 지역사회 내 서비스 연계

자료: 연구를 위하여 「We Start 마을 사업 표준안」과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연구자가 요약 및 재구성함.

다. We Start의 효과²⁷⁾

We Start 운동은 사업수행초기부터 본 사업의 장·단기 효과를 판단하기 위하여 평가표준안을 개발하고 논리모델을 사업의 평가틀로 설정하였다. 현재 We Start 마을에 대한 평가보고서는 경기도, 정선, 속초, 철원 의 네 개 지역에서 실시된 평가보고서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We Start 마을의 가장 표준마을의 형태인 경기도의 성과²⁸⁾를 바탕으로 그 성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We Start에 참여한 아동과 부모 및 가정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아동과 관련해서는 아동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특히 영유아의 영양상태가 호전되었다. 유아의 경우 위축, 사고문제, 비행성향이 감소하고 자신감이 향상되었으며 친사회적행동이 증가하여 사회정서적 기능면에서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학령기 아동의 경우 내재화, 외현화 문제가 감소하여 문제행동이 감소하고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였다. 또한 아동의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었다.

부모 및 가정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면, 가정에서 영유아의 인지발달에 필수적인 인지자극 활동이 증가하였고, 인지자극교재의 활용이 증가하였다. 학령기 아동의 경우 문화체험의 경험이 증가하였으며 부모와 아동간의 상호작용, 애착 정도가 증가하였다. 특히, 부모의 자녀 교육정도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였다. 부모의 건강측면에서는 부모의 우울증상이 감소하여 정신건강이 향상되었다. 그밖에 아동에 대한 관심 및 아동 활동에 참여도 증가, 방치시간 감소 등 부모 양육태도의 변화가 감지되었다.

사업의 목표 영역 및 항목별로 가장 긍정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것을 살펴보면, 아동의 건강 및 영양상태에서는 치과검진 경험유무, 영양제 섭취,

27) 자세한 사업평가모델, 평가방법, 연구설계 및 통계방법은 해당 보고서를 참고할 것.

28) 이봉주·김혜란·정익중, 2007, 경기도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 효과성·효율성 평가 연구 최종보고서. 경기도.

과자, 인스턴트 식품 섭취, 가정환경영역에서는 인지적 자극 교재 유무, 인지적 자극 활동여부로 나타난다. 부모와 가정요소에서는 음주, 흡연, 부모의 심리적 상태 및 기능과 아동양육방법에서는 주양육자의 효능감, 주양육자의 우울증상, 부모의 아동의 상황에의 참여도, 학업성취도에서는 전반적인 학업성적, 국어성적, 수학성적, 영어성적, 사회정서적 기능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반대로 부정적 결과를 보이는 것은 성장발달 지연 및 발달장애 유무와 주양육자의 훈육 및 통제 방법과 주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이다. 이러한 부정적 결과는 단순히 We Start의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이라는 해석보다는 사업초기에 이루어지는 인식과 관심의 증가에 의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즉, 성장발달 지연 및 발달장애의 발견이 높아진 것은 부모들의 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조기 발견율이 높아졌다고 해석되며, 주양육자의 훈육 및 통제방법과 스트레스는 아동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양육의 어려움을 많이 절감하게 되는 현상으로 파악될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 효과에 대한 장기적인 검증이 필요하며, 특히 부모의 아동에 대한 관심증가로 인한 양육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의 제공도 검토되어야 한다.

<표 6-7> We START 평가결과 요약

영역	세부항목	평가결과 요약	조사대상
건강 및 영양	• 주양육자가 평가한 지난 1년간 아동의 건강상태	+	모든 아동
	• 지난 1년간 입원한 경험	+	
	• 만삭아 여부	○	영아
	• 출생시 정상체중 여부	○	
	• 성장발달 지연 및 발달장애 유무	-	모든 아동
	• 시각문제 유무	○	
	• 청각문제 유무	○	
	• 치과검진 경험 유무	++	
	• 알레르기 질환 유무	○	
	• 예방접종 유무	○	
	• 음식섭취, 식욕, 고른섭취, 먹기거부 문제 유무	+	영아
	• 영양제 섭취	++	
	• 부모와 1끼 이상 식사 여부	○	유아, 취학아동
	• 매일 아침식사 여부	+	
	• 규칙적 식사	+	
	• 일정량 식사	+	
• 단백질, 채소, 유제품, 과일 섭취	+		
• 과자, 인스턴트 식품 섭취	++		
가정환경	• 인지적 자극 교제 유무	++	모든아동
	• 인지적 자극 활동 여부	++	
부모와 가정 요소	• 음주	++	주양육자
	• 흡연	++	
	• 부모와의 관계	+	취학아동
	• 주양육자의 훈육 및 통제 방법	-	주양육자
부모의 심리적 상태 및 기능과 아동양육방법	• 주양육자의 자기효능감	++	주양육자
	• 주양육자의 우울증상	++	
	• 주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	-	
	• 부모의 아동의 생활에의 참여도	++	취학아동
	• 부모의 양육태도(자녀에 대한 관심 및 긍정적인 양육방법의 사용)	○	
• 아동학대 및 방임의 위협정도	○		
학업성취도	• 전반적인 학업성적	++	취학아동
	• 국어성적	++	
	• 수학성적	++	
	• 영어성적	++	
사회정서적 기능	• 사회정서적 기능	++	유아
	• 문제행동 정도	+	취학아동

주: 평가결과의 표시 ○: 변화 없었음, +: 지역별로나 연령대별로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 ++: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변화가 있었음, -: 오히려 부정적인 변화가 있었음
 자료: 이봉주 외(2007). 경기도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 효과성·효율성 평가 연구 최종보고서

이러한 평가결과를 통하여 We Start 사업은 단기간에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아동과 가정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성과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미국: Head Start

가. 법적 근거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빈곤아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헤드스타트는 0~5세의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아동발달 지원사업으로 식품권(Food stamp), 의료부조(Medicaid), 학교급식(School lunch and breakfast program) 등과 함께 빈곤아동에게 제공되는 대표적인 현물급여의 하나이다. 미국의 헤드스타트(Head Start)는 아동빈곤의 근본적인 원인을 교육의 결핍에서 찾은 후 빈곤아동의 학습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조기교육 내실화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중심 지원사업이다. 헤드스타트를 시행하기 위한 최초의 법적 근거는 1964년 제정된 경제기회법(Economic Opportunity Act)이 효시이며 1981년 일괄예산조정법(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의 하위법으로 제정된 헤드스타트법(Head Start Act)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이후 몇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독자적인 법으로서 사업실행 근거가 되고 있다.

나. 대상아동

헤드스타트의 주 대상은 빈곤아동이며 총소득이 정부가 책정하는 빈곤선 이하인 가구의 의미한다.²⁹⁾ 아동의 연령은 만3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29) 미국 헤드스타트법은 대상아동을 가구총소득이 가구원수를 보정하여 정부가 책정한 빈곤선 이하에 있는 극저소득가정의 아동(children from very low-income families under official poverty line, Head Start Act, Sec. 637)으로 명시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정의한 빈곤아동과 개념이 같

이는 지역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조기교육 취학연령에 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3세 미만의 아동은 조기헤드스타트(Early Head Start Program)의 대상이 된다. 조기헤드스타트는 1994년 개정된 헤드스타트법에 의거하여 1995년 영유아가 있는 빈곤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헤드스타트 사업수행지침서에 따르면 대상아동 가운데 적어도 90% 이상은 빈곤아동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장애아동은 적어도 10% 이상 구성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에 빈곤아동과 장애아동의 수가 구성요구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반아동의 참여도 가능하다. 대상아동을 선정할 때 프로그램의 욕구가 큰 아동, 즉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우선순위를 둔다.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역을 포함할 수 있으나 가장 근거리에 있는 지역의 프로그램과 연계하도록 한다. 대상아동의 선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 ① 가장 우선시되는 기준은 가구총소득이다. 가구총소득이 빈곤선 이하이거나 이에 준하는 가정의 아동은 참여할 수 있다. 공적부조 가정의 아동이나 위탁가정의 아동은 자동적으로 해당자격이 된다.
- ② 아동의 연령은 만3세 이상이어야 하며 아동의 연령이 0~3세일 경우 조기헤드스타트에 해당된다.
- ③ 해당지역의 유치원이나 학교가 제공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
- ④ 적어도 10% 이상 장애아동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애유형 등 특성에 따라 개별교육계획(Individual Education Plan) 혹은 개별가족서비스계획(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s)을 수립하여야 한다. 장애아동이 많지 않으면 일반아동에게 기회를 부여한다.
- ⑤ 선정기준에 합당한 아동들이 많을 경우 대기자 명단에 올려 놓은 후 자리가 비는 즉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의 평균출석률이 85% 이하로 떨어지는 등 장기결석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

기 때문에 이를 통일하고자 함.

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가족문제가 원인인 것으로 판명되면 가정방문을 통하여 적절한 가족지원 대책을 마련해주거나 관련시설을 연계하는 등 즉각 개입하여야 한다.

다. 수행체계

헤드스타트 사업의 주관기관은 보건인적자원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 산하 아동가족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내의 전담부서인 헤드스타트실(Office of Head Start)이다. 헤드스타트실은 헤드스타트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영리기관 및 비영리기관에게 운영예산을 기금형태로 지원한다. 이들 기관들은 운영예산의 일부를 주정부로부터 지원받기도 한다.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헤드스타트 사업의 수행기관은 헤드스타트센터(Head Start Center)이다. 센터는 지역을 기초단위로 하여 설치되며, 군(county, sub-county), 읍(town), 대도시인구조사표준지역(census tract)을 지리적으로 구분하여 서비스 단위지역으로 한다. 지역마다 헤드스타트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어 아동 및 가족과 지리적으로 가장 근접한 센터에 대한 색인이 가능하다. 센터에는 직원이 상주하며 대상 아동 선정, 서비스기관 연계, 프로그램 진행 등 역할을 담당한다. 직원 외에 관련인력으로 부모, 자원봉사자, 지역사회 구성원, 교사 등이 있다. 부모의 상당수는 헤드스타트 대상이었던 경우이며 헤드스타트 교사의 대부분이 아동조기교육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라. 재정

헤드스타트에 투입되는 연방정부의 재정은 2005년 68억달러를 넘고 있다. 조기헤드스타트에도 2005년 7억달러를 투입하여 전국적으로 650개 사

업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참여한 3세 미만의 영유아는 62,000명으로 추산된다. 헤드스타트 사업이 최초로 시행된 1965년 이래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 2,300만 아동이 헤드스타트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1965년 참여아동은 약56만이었으나, 연방정부의 재정 삭감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던 1980년대 전후로 감소하였다가, 1990년대 이후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2005년 현재 약91만명의 아동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가운데 20% 정도는 요보호가족일시부조(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는 연도별 헤드스타트에 참여한 아동 수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표 6-8> 연도별 헤드스타트 수혜 아동 수 및 연방정부 재정지원 규모

연도	아동 수	재정지원(백만달러)
1965	561,000	96.4
1970	477,400	325.7
1975	349,000	403.9
1980	376,300	735.0
1985	452,080	1,075.0
1990	548,470	1,552.0
1995	750,696	3,534.1
2000	857,664	5,266.2
2005	906,993	6,843.1
2006	909,201	6,786.8

자료: Head Start Bureau, Administration of Children and Families, DHHS.

마. 사업내용

미국은 헤드스타트를 통하여 빈곤아동의 사회성, 학습능력, 건강수준을 증진하기 조기교육을 목표로 하며 이에 따라 빈곤아동 및 가족에게 다양

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때 아동 및 가족특성에 부합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아동의 발달단계 및 학습능력 등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자원과 헤드스타트 운영규모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표적인 프로그램과 서비스 영역은 다음과 같다.

- ① 장애: 장애아동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장애유형 등 아동의 장애특성에 따라 교육과 건강·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② 교육: 학교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취학준비를 지원한다. 교과목 영역에 따른 지식과 기술을 전수한다.
- ③ 건강: 아동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평가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구강·위생·영양의 생활습관을 지도하며 아동의 안전교육을 지도한다.

이와 함께 최근 2007년 5월 개정된 헤드스타트법이 전면에 내세운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6가지가 두드러지고 있다(edlabor.house.gov/issues/headstart.shtml).

- 교사수준 개선: 헤드스타트 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교사 임금 인상을 포함한 사업개선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새 기금을 동원하도록 함.
- 사업 확대: 조기헤드스타트(Early Head Start), 이주민자녀 헤드스타트(Migrant and Seasonal Head Start), 원주민자녀 헤드스타트(Indian Head Start)를 우선적으로 포함하여 1만명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2008년 일반예산 외에 추가예산을 통과시킴(4억5천만달러).
- 취학준비프로그램 강화: 아동의 읽기·쓰기능력과 어휘력 개발을 위하여 연구결과에 근거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하고, 아동의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지지할 수 있는 전문성과 현장실천을 강조함.
- 기금운용의 책임성 강화: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 통제력을 강화하고 이와 더불어 부진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은 재고하거나 철회하는 방식을 선택함.
- 프로그램 관리운영과 부모 참여도 제고: 부모정책심의회와 운영위원회 사이에 상호제어구조를 형성하게 하여 헤드스타트에 참여하는 빈곤가정의 부모에게 권한을 부여하며 지역 요구에 반응하는 프로그램을 개진하도록 함.

- 포괄적 건강·영양서비스 강조: 빈곤아동 및 그 가족의 정신보건 욕구에 대한 조기진단과 아동비만 감소에 초점을 두도록 함.

바. 헤드스타트 효과

빈곤은 아동을 부족한 영양, 불충분한 보건의료, 열악한 주거환경, 부적절한 양육, 질 낮은 보육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Brooks-Gunn & Duncan, 1997; Korenman, et al., 1995). 1965년 헤드스타트가 최초 시행된 지 40년 이상 경과하는 동안 헤드스타트가 주요 목표로 삼았던 것은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헤드스타트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일은 헤드스타트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빈곤아동 및 가족에게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빈곤아동에 대한 헤드스타트의 효과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하나는 조기교육 개입을 통하여 헤드스타트가 주요 목표로 삼았던 아동의 인지적 발달과 학습능력 증진에 기여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다음은 아동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였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즉 헤드스타트를 통하여 빈곤의 완화를 넘어 아동의 삶의 질이 어느 정도 증대하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한 정책적 및 학술적 연구는 상당량 이루어진 상태이다.

1) 교육 효과

빈곤아동에 대한 조기개입을 통하여 헤드스타트가 획득한 단기적 및 장기적 교육효과는 여러 연구에서 발견된다. 초기에 진행된 연구에 의하면 헤드스타트 조기교육을 이수한 아동은 사업이 종결된 시점에 이르러 인지 및 사회·정서적 영역에서 개선을 보여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Barnett, 1995; Currie & Thomas, 1995; Garces, et al., 2002). Barnett(1995)는 헤드스타트에 참여한 아동의 인지력이 현저하게 발달되었으며 이는 학업성취 정도나 특수학급 배정에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Garces 등(2002)은 헤드스타트가 참여아동의 성취동기와 사회행동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스타트는 아동에게 조기교육을 실행함으로써 이상에서 밝혀진 단기적인 효과 외에 학령기 내내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장기적 효과를 분석한 몇몇 연구에 의하면 헤드스타트 조기교육을 이수한 아동은 취학 후 학업성취도 향상, 유급 비율 감소, 학교진학률 증가, 특수교육 등록 등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Reynolds 등(2001)은 헤드스타트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하여 시카고 헤드스타트에서 3~4세 아동에게 취학전 교육을, 6~9세 아동에게 초등교육을 제공한 후 이들의 연령이 20세에 이르기까지 헤드스타트가 가진 장기적인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조기교육 및 초등교육 참여아동 모두가 유비율과 특수교육 수혜비율이 낮아짐을 발견하였다. Reynolds 등(2007)은 또 다른 연구를 통하여 헤드스타트 조기교육을 1~2년 받은 3~4세 아동들은 통제집단의 아동들에 비해 성장 후 고등학교 졸업비율이 높았으며, 학업이수연도가 더 많았으며, 학교중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아가 여아에 비해 학교중퇴율이 낮아 학력 취득에 더 효과적임을 밝혀주었다.

2) 성장발달 효과

헤드스타트가 초기부터 빈곤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아동의 건강수준 증진 혹은 신체적 발달에 대한 효과성을 들여다 본 연구는 많지 않다. Currie·Thomas(1995)는 1980년대

중반의 연구로부터 헤드스타트 참여아동이 통제집단 아동에 비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수혜하여 보건상태가 개선되고, 영양이 좋은 식사를 하여 운동신경과 신체가 더 발달된 사례를 들었으며, 자신들의 독자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헤드스타트에 의한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수혜아동의 면역률을 8~9% 증가시킨 것을 보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조기헤드스타트의 경우, 최근 수행된 연구에 의하면 전국 17개 사업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3000여 가구를 조사한 결과, 조기헤드스타트 수혜아동이 3세에 다다랐을 때 통제집단의 아동에 비해 인지력과 언어력이 더 발달되었으며, 부모와 더 많은 정서적 교감을 하며, 장난감에 대한 집중력이 높은 반면, 공격적 행동은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기헤드스타트 참여부모들은 통제집단에 비해 정서적으로 더 지지적이며 자녀에게 보다 많은 어휘와 학습동기를 제공하고 책을 더 자주 읽어주며 체벌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가서비스와 센터서비스의 혼합된 제공유형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Love, et al., 2005).

3) 사회경제적 효과

이밖에 헤드스타트는 다른 측면에서도 간접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우선 헤드스타트로 인하여 아동범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Garces 등(2002)에 의하면 헤드스타트에 참여한 흑인아동의 경우 범죄로 인하여 체포되거나 구금되는 비율이 12%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Reynolds 등(2007)도 헤드스타트 조기교육을 1~2년 받은 3~4세 아동들은 통제집단의 아동들에 비해 성장 후 범죄 혹은 폭력으로 인한 구금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헤드스타트 아동의 부모들은 학업지원에서부터 정책결정에 이르기까지 유료 혹은 무료 방식으로 헤드스타트에 관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임파워먼

트를 획득하고 있다. 1992년 94%에 해당하는 부모가 헤드스타트로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았으며, 일단의 부모는 헤드스타트에 참여함으로써 아동양육 기술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흥미로운 점은 참여부모의 고용측면이라 할 수 있는데, 1992년 헤드스타트 전체 직원의 35%가 이전에 헤드스타트의 조기교육을 이수했던 아동이거나 헤드스타트 참여아동의 부모였던 것으로 나타났다(McCall, 1993, Devaney, et al., 1997, p.104 재인용). 이러한 헤드스타트의 고용창출은 빈곤아동이나 빈곤 가정의 부모들이 빈곤을 탈출하는 기회가 되고 있어 크게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헤드스타트가 시행한 조기교육의 효과로 인해 아동이 성장한 후 빈곤의 대물림이 차단되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 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우 대상이 되는 빈곤아동을 상당수 포함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2006년 상대아동빈곤율을 10.6%로 산정하였을 때 대상이 되는 아동은 약 100만명으로 추산되었다. 이들 아동 가운데 현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수는 대략 20만명³⁰⁾을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전체 대상아동의 20% 밖에 되지 않는다. 더욱이 가족해체,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핵가족화의 가속화 등은 빈곤아동의 복지욕구와 조기개입의 필요성이 늘어남을 의미한다. 증가하는 빈곤아동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확대방식은 연도별, 지역별, 연령별 등 다양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프로그램 및 서비스 내용의 충실도를 제고해야 한다. 빈곤아동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 규모는 전체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그 내용도 체계적이지 못

30) 김종해·문혜진(2006)은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저소득층 아동으로서 방과후 교실 이용은 18만 5천명(2007년 기준), 지역아동센터 이용은 44천명(2005년 기준)으로 제시함.

하다. 각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아동 및 그 가족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로서 빈곤아동의 발달단계별 맞춤형 조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빈곤아동에 대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은 소규모 민간기관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 빈곤아동을 위하여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서비스, 복지관 아동프로그램, 보육시설의 방과후 보육사업, 초등학교의 방과후 교실 등이 있으며, 헤드스타트 형식의 위스타트 프로그램과 희망스타트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등이 있다. 이들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에는 유사성과 공통점이 발견되나 매우 파편화되어 있으며 기관들 간에 연계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동시에 이들 기관이 현재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과 인력 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 방과후 교실과 희망스타트를 제외하고 모든 기관이 민간기관으로서 공간의 협소와 부족을 겪고 있으며 충분한 전문인력과 지원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공간문제는 공간 확보가 용이하고 접근성이 높은 학교, 동사무소, 공립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함으로써 해결하도록 한다. 빈곤아동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전문성 및 전문인력의 부족도 큰 문제의 하나로 지적받는다.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급식제공, 학습지도, 아동 및 부모상담, 사례관리 등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전문성이 부족함을 지적되고 있다(김미숙, 2006).

4. 영국: Sure Start

가. 개요

Sure Start 프로그램은 정부 주도하에 아동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퇴치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Sure Start란 빈곤층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동이 인생을 어려서부터 확실하게(Sure) 출발하도록(Start) 돕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신노동당(New Labour's Party)이 중심이 되어 시작한 것으로 어려서부터의 박탈은 성인기의 사회적 배제로 이어진다는 논리에서 출발한 것이다. 어려서부터의 교육에 주력함으로써 아동이 성인이 되어 학교중퇴, 비행 및 일탈, 실업, 10대 임신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빈곤한 아동은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성인이 되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인간의 인적 자본에 투자함으로써 아동이 성인이 되어 취업을 하게 되어, 결국에는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든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정책은 프로그램 당 400~800명을 포함하는 자치단체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설계되어 있다. Sure Start는 1998년 4세 이하의 아동과 부모에게 양질의 보육, 아동보호, 놀이, 산전 및 기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와 더불어서 부모들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아동이 지식을 습득하거나 학교에 갈 준비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4세 이하 아동에 대한 서비스는 종종 간과되기 쉬운 영역인데, 영국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Sure Start를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모든 아동이 태어나서부터 필요가 충족되어 바른 인생의 출발을 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갖고 있다. 사업의 목적은 아동의 사회적 및 정서적 발달, 건강 증진, 학습능력 향상, 가족의 역량 강화 등에 있다.

나. 전달체계 및 재정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11개의 부처가 된다. 아동과 관련한 부처들이 합동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직은 보건부 장관이 맡고 있고, 교육 및 노동부(교육 및 기술부로 바뀜)에 새로운 기구가 추가로 설치되었다. 새 기구는 관련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설치되고 있는데, 담당자는 일시적으로 근무하기도 하고 영구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기도 한다.

지방정부는 모든 가족에게 센터를 홍보하도록 하고 있다. 센터는 지역에 사는 가족들이 자녀를 유모차를 태워서 이동이 가능한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도록 권장한다. 아울러 센터는 기존의 서비스가 많이 제공되지 않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2004년 현재 Sure Start는 524개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정부는 5억 파운드를 지원하였다.

다. 서비스 수혜 대상

Sure Start의 대상 아동은 5세미만 아동, 특히 저소득층으로서 사회적 지원으로부터 배제된 아동 및 가족을 주요 표적 집단으로 하고 있다. 5세 미만 아동의 3분의 1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다. 영국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역을 단위로 하고, 보편적인 서비스로 확대하여 서비스 대상이 낙인을 갖게 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서비스의 수혜 대상을 점차적으로 늘려서 현재는 청소년까지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의 취업, 미혼모의 경우 아동 및 미혼모 지원, 빈곤아동의 부모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펴가고 있다.

라. 서비스 내용

Sure Start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며(사업의 이름을 Sure Start Local Programmes으로 함: SSLPs), 다양한 기관이 영국의 가장 취약한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계획되었다. 사업의 최종적인 목적은 0-4세 아동의 복지와 삶의 기회보장 및 성취에 있다. 이를 위해 아동과 함께 가족을 돌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Sure Start 서비스는 어느 지역에서나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 outreach와 가정방문
- 가족과 부모에 대한 지원
- 양질의 놀이와 학습, 아동을 위한 케어 경험 지원
- 아동건강 및 발달과 가족건강에 대한 지역의료 보호와 안내
- 특별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지원

Sure Start는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보육, 조기교육, 건강, 가족지원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센터는 지역의 필요와 부모들의 욕구에 기반하여 지역마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들은 서로 연계하여 정보를 주고받고 부모나 보육사를 지원하며, 보건 서비스, 가족지원, 취약가족에 대한 취업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는 기존의 다양한 보육 관련시설(Sure Start local programmes, neighbourhood nurseries, early excellence centers)로부터 발전한 것이거나 이러한 시설을 세우는 것 대신 Sure Start Children's Centre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기존의 시설들이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센터는 이러한 시설들과 연계하여 협조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즉, 기존에 존재하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러한 시설들을 센터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마. 프로그램 수행기관

Sure Start는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Primary Care Trust(PCT), 자발적 결사체(voluntary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즉, 모든 지역에서 프로그램은 다양한 기구와 입법기구, 자발적 결사체가 합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17개 이상의 다양한 유형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지역에 Sure Start Children's Centre를 설치하여 이 기구를 중심으로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Sure Start Children's Centre는 새로 설치된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기존의 기구를 기반으로 해서 시설이 변경된 경우가 많다. 특히 지역 Sure Start 프로그램, 지역 보육시설(neighbourhood nurseries), 조기영재센터(early excellence centres), 공보육시설(maintained nursery school), 학교(schools), 가족센터(family centres), 지역센터(community centres), 보건소(health centres), 자발적 및 사적센터(voluntary and private provision) 등 Sure Start Children's Centres로 변경된 경우가 많다.

지방정부는 센터의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을 위한 서비스 내용을 만들어서 센터에 제공한다. 센터는 '보육10개년계획'(Government's ten year child-care strategy), 부모의 선택(Choices for Parents), 아동을 위한 최선의 시작(The Best Start for Children) 등 영국 정부가 수립한 다양한 계획을 실행하는 기구이다. 아울러 센터를 통해서 '모든 아동이 중요하다'(Every Child Matters: 안전, 건강, 즐거움, 경제적 풍요를 주요 목표로 함)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아동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센터는 아동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로 삼고 있다.

바. Sure Start 프로그램 평가³¹⁾

영국에서는 Nation Evaluation of Sure Start(NESS)를 설립하여 그동안 수행해온 Sure Start 사업의 효과성, 문제점, 보완점 등을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Sure Start의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정착되자 학자들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1) SSLP의 보건복지 효과

기존의 Barnes(2006: 백선희, 2006에서 재인용)가 실시한 평가결과를 아동인구, 가족박탈, 아동보건, 아동복지, 지역서비스(아동보육)를 중심으로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전체적인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표에 제시하였다. Barnes를 중심으로 한 University of London의 ‘아동·가족과 사회이슈 연구소’는 Sure Start의 성과에 대해서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260개의 SSLP 실시지역과 영국의 미실시 지역의 보건복지 상의 비교를 했을 때, Sure Start를 실시한 지역에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아동인구상에서는 SSLP 실시 지역에서 영국 전체에 비교했을 때 0~3세 아동수가 증가하였다. 가족 박탈측면에서는 SSLP 실시지역의 경우 직업이 없는 가구, 소득지원 가구, 구직수당 수급가구 등에 사는 0~3세아가 줄어들었다. 즉, SSLP 실시를 통해서 직업활동 등에 의해 가족이 빈곤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Sure Start가 소기의 목적대로 사회적 배제를 완화한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다.

아동보건측면에서는 심한 상해를 입은 0~3세 아동의 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즉, 통합적인 전문가를 통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의 건강상

31) 이 부분은 백선희(2006), 「영국의 국가아동보육전략 연구를 통한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발전 방안 모색: Sure Start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27집(12), 2006, pp.79-114를 참조하였음.

태가 주기적으로 체크되고 이로 말미암아 신체적인 상해율이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표 6-9> 영국의 Sure Start Local Programmes 사업효과

영역	주요지표	SSLP 실시지역		영국 전체		SSLP 대 전체 변화
		2003/04 평균	2001/2~ 2003/4 변화	2003/04 평균	2001/2~ 2003/4 변화	
아동 인구	0~3세아	15.3	+0.9**	10.4	-0.3	**
	인구1천명당 출생률	16.1	+0.1	12.0	+0.5	-
가족 박탈	직업이 없는 가구에 사는 0~3세아	40.4	-3.8**	22.0	-1.2	**
	소득지원 가구에 사는 0~3세아	37.2	-1.8**	19.8	0.5	**
	구직수당 수급가구에 사는 0~4세아	3.1	-1.1**	1.5	-0.5	**
아동 보건	위장염이 있는 0~3세아	12.8	-0.3	9.3	-0.7	-
	저 호흡증의 0~3세아	24.6	+0.5	19.5	+1.6	-
	심한 상해를 입은 0~3세아	13.0	-2.1**	10.0	-0.3	**
아동 복지	0~4세, 아동보호등록률	80.5	+1.1	37.8	-0.8	-
	0~4세, 연간등록률	100.0	+81.4**	48.5	+7.1	**
	돌보고 있는 0~4세아	79.0	+18.9	43.0	+1.5	-
지역 서비 스	0~7세 1천명당 가정보육 정원	33.6	+2.3*	71.5	+4.2	-
	0~7세 1천명당 종일보육 정원	50.6	+3.3	102.0	+16.2	-
	0~7세 1천명당 반일보육 정원	24.2	-5.4**	61.3	-2.6	**
(아동 보육)	0~7세 1천명당 방과후 보육정원	37.4	+4.2	73.1	+6.0	-
	0~7세 1천명당 Creche 정원	12.7	+3.1*	8.7	-1.1	-

자료: Barnes, J et al., 2006; 백선희, 2006, p100에서 재인용. *, **: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발생.

아동복지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었는데, SSLP 실시지역의 경우 0~4세아의 SSLP 연간등록률이 제고되어 해당 지역의 모든 아동이 SSLP에 등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Sure Start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의 효과성이 높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특히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을 통해서 아동의 인지능력을 제고하고 미래의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가족에 대한 자활지원

을 통해서 아동가족이 빈곤으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해 준다.

마지막으로 아동보육에 있어서도 매우 뚜렷한 향상을 보이고 있는데 가정보육, 반일보육, Creche 등에서의 정원이 유의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보육을 증가는 아동의 인지적 발달 뿐 아니라, 가족친화적 정책으로서 여성의 취업을 도모하게 되는 이중의 효과가 있다.

2) 사회적 효과

위에서 제시한 것 이외에 Sure Start의 효과는 다양한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백선희, 2006) Brown과 Dillenburger(2004)에 의하면 Sure Start는 행동장애 아동 가족에 대한 개입을 통해서 아동의 행동을 개선시켰다. Morrow와 Malin(2004)에 의하면 Sure Start를 통해서 부모의 임파워먼트가 제고되어 역량강화와 실천기술의 개발되었고, 지역사회내에서 다양한 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아울러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게 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아울러 전문가와 민간 간, 즉 교육, 보건, 복지, 심리 전문가와 민간단체와의 공동작업이 보다 효과적이 되었다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다(Morrow, Malin and Jennings, 2005).

한편, Belsky와 그의 동료들(2006)은 SSLP가 가족박탈이 덜한 가족의 아동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반면 가족박탈정도가 높은 미혼모 자녀, 한부모 자녀, 실업가정 아동에게는 효과가 별로 없었다. Rutter(2006)에 의하면 가족박탈이 심한 가족의 아동에게 SSLP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SSLP의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사업의 성패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결론내릴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향후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성패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4절 국내외 빈곤아동 지원정책의 시사점

국내외 탈빈곤아동지원 정책 중에서 본 고에서는 현금정책인 공적이전 소득과 아동수당, 노동시장정책, 그리고 현물정책인 각종 스타트 사업만을 집중해서 살펴보았다. 모든 정책은 아동빈곤율을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특히 사회복지서비스는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아동의 전인적 발달과 인지능력 향상에 초점을 둔 새로운 탈빈곤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스웨덴과 같은 노르딕 국가에서는 보편적 아동지원과 함께 이미 공보육과 같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서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을 이루어 결과적으로 매우 낮은 아동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하고, 탈빈곤지원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아동빈곤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빈곤가정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여기서 아동복지 철학을 달리하는 연구자나 정책입안자에 따라 빈곤가정의 소득보장 방식으로 현금급여 확대, 아동수당제 도입, 자활사업 확충,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 다양한 주장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보장만으로 아동빈곤을 경감하고 아동빈곤의 폐해를 해결하는데 충분치 못하다. 이는 앞서 아동빈곤의 결정요인 분석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아동빈곤이 가구의 소득·소비 특성뿐만 아니라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보장 급여수준, 거시적 복지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소득 이외에 충족해야 할 아동의 기본적 욕구로 급식, 의료, 주거, 그리고 교육영역이 있다. 이들 영역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빈곤이 발생하지 않으며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완화시키며 아동이 기초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영역에서 빈곤아동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검토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가정환경 속에서 적절한 부모역할이 제공되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아동빈곤수준을 저하하고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빈곤아동에 대한 조기개입의 요구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요구는 빈곤아동에 대한 포괄적인 프로그램과 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도 따라서 커지며 빈곤아동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아동빈곤율을 감소하고 아동빈곤의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 소득, 주거, 의료 등 여러 영역에서 포괄적인 정책적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교육프로그램이며 아동연령 초기에 개입할수록 그 효과가 큼을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바 있다. Brooks-Gunn·Duncan(1997)에 의하면 빈곤의 시간성이 매우 중요하며, 아동이 미취학이거나 저학년일 때 빈곤을 경험한 경우 고학년 아동이거나 청소년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률이 더욱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제7장 주요 빈곤아동 지원정책의 빈곤완화효과

본 장에서는 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 등 기타사회보장수혜, 생
활비보조 등 공사적 소득이전의 빈곤감소효과, 아동수당 도입시 빈곤감소
효과, 가족내 생계부양자 1인 증가시 빈곤율 감소효과를 살펴보았다. 1998
년부터 2006년까지 통계청 도시가계데이터 원자료를 사용하여 공사적 이
전소득의 아동빈곤 감소효과를 살펴본 후, 2006년 최근 자료를 사용하여
아동수당 도입시 아동빈곤율의 감소효과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아동수당
제도 도입시 예산을 추계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혼여성을 위한 취업정책이
아동빈곤율 완화에 주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제1절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율 감소효과

1. 분석방법

공사적 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는 양적·질적 측면에서 빈곤의 규모와
정도를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들을 기준으로 분석할 수 있는 데 본 연구에
서는 절대빈곤율을 기준으로 공사적 이전소득 전후의 빈곤율을 비교함으
로써 빈곤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공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PR(\pi) = \frac{q}{n}$$

$$PRRE(x) = \frac{PR_{pre} - PR_{post(x)}}{PR_{pre}} \times 100$$

(PRRE: 빈곤율 감소효과, PRpre: 이전전 빈곤율, PRx: 이전후 빈곤율)

제2장에서 소개하였듯이 통계청의 도시가계데이터에서 제공하는 소득구분 방법을 보면 다음의 <표 7-1>과 같다. 소득이전 전의 절대빈곤율은 공식적 소득이전 전 개별가구의 1차소득을 기준으로 절대빈곤율을 측정하는 수치이다. 절대빈곤율 감소효과는 이러한 1차소득 기준 절대빈곤율이 공공적부조가 이전된 후의 소득을 기준으로 얼마나 감소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표 7-1> 도시가계조사 소득항목에 따른 시장소득 및 이전소득 구성

통계청		OECD				
소득	경상 소득	근로소득	급여소득	1차소득 (PI)	시장소득 (MI)	총가구 소득 (DI)
			상여금			
		사업 및 부업소득	사업소득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이전 소득	사적이전	생활비보조			
			연금			
		공적이전	기타사회보장수혜			
비경상 소득	경조소득, 폐품매각대금 등					

자료: 통계청, 「1998 도시가계연보」 1999. OECD(1995).

2. 아동빈곤율 감소효과

빈곤층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 공적 이전소득이다. 가계조사에서는 공적이전소득으로 공적 연금과 기타 사회보장수혜를 포함시켜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표 7-2>에 제시된 것과 같이 공적이전소득은 지난 9년간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2002년의 경우는 상승폭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이때 아동빈곤율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적이전소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공적이전소득과 마찬가지로 2002년의 경우 규모가 그 이전이나 이후에 비해서 상당히 큰 편이다.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규모면에서는 모든 년도에 있어서 사적이전소득이 공적이전소득보다 2배에서 5배 가량이나 더 많았다. 2 유형의 이전소득의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표 7-2> 아동가구의 소득 및 이전소득(자영업자 제외)

(단위: 원)

년도 및 지역	1차소득 (A)	공적이전 소득 (B)	사적이전 소득 (C)	공적 vs 사적 이전 소득 비율 (C/B)	총이전 소득 (D=B+C)	총가구 소득 (A+D)	아동 빈곤율
1998 도시	1,971,285	7,320	38,000	5.2	45,410	2,016,605	8.0
1999 도시	2,046,671	8,458	47,622	5.6	56,108	2,102,779	8.8
2000 도시	2,173,779	7,513	41,736	5.6	49,250	2,223,028	6.7
2001 도시	2,415,955	12,606	40,621	3.2	53,228	2,469,183	5.4
2002 도시	2,548,587	23,248	54,228	2.3	77,576	2,626,164	4.4
2003 도시	2,805,357	11,795	47,857	4.1	59,652	2,865,009	5.3
2003 전국	2,755,390	13,396	47,450	3.5	60,847	2,816,237	5.9
2004 도시	2,950,737	17,696	74,139	4.2	91,836	3,042,573	7.4
2004 전국	2,977,761	26,520	79,119	3.0	105,639	3,083,400	8.5
2005 도시	3,036,800	27,829	88,234	3.2	116,064	3,152,864	5.7
2005 전국	2,999,559	29,388	86,036	2.9	115,424	3,114,983	6.1
2006 도시	3,218,544	32,046	81,934	2.6	113,980	3,332,524	4.8
2006 전국	3,182,656	33,416	82,714	2.5	116,130	3,298,786	5.0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데이터』, 『가계조사데이터』, 각 연도, 원자료 분석

<표 7-3> 공·사적 소득이전에 의한 아동빈곤율 감소효과 (자영업자 제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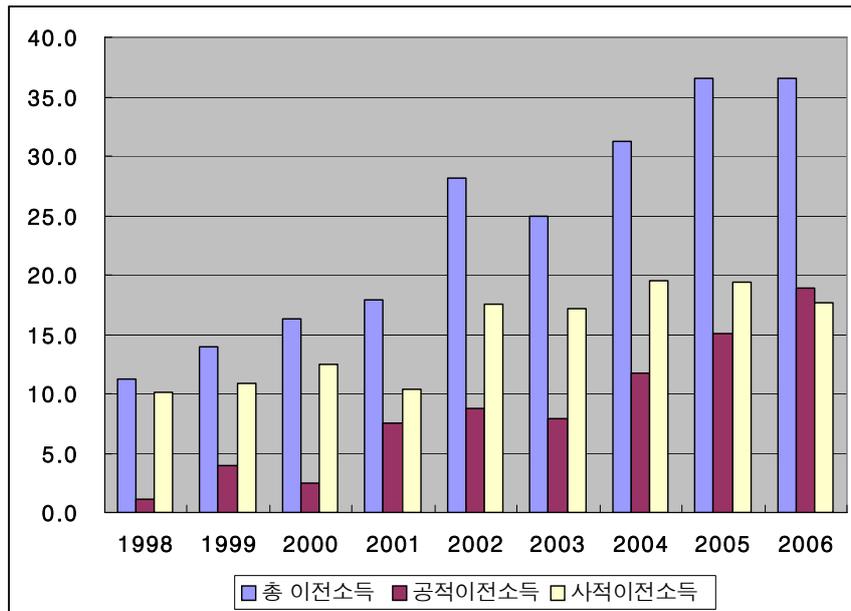
분석결과 이전소득 유형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절대 빈곤율	감소 효과																
소득이전 전	8.9	-	10.1	-	8.0	-	6.7	-	5.7	-	7.6	-	7.7	-	9.3	-	7.4	-
											8.4	-	8.1	-	9.8	-	7.8	-
총 이전소득	7.9	11.2	8.7	13.9	6.7	16.3	5.5	17.9	4.1	28.1	5.7	25.0	5.3	31.2	5.9	36.6	4.7	36.5
											6.4	23.8	5.5	32.1	6.3	35.7	4.9	37.2
공적이전소득	8.8	1.1	9.8	3.0	7.8	2.5	6.2	7.5	5.2	8.8	7.0	7.9	6.8	11.7	7.9	15.1	6.0	18.9
											7.7	8.3	7.2	11.1	8.3	15.3	6.3	19.2
①공적연금	8.9	0.0	10.1	0.0	8.0	0.0	6.7	0.0	5.6	1.8	7.6	0.0	7.6	1.3	9.2	1.1	7.3	1.4
											8.3	1.2	8.0	1.2	9.7	1.0	7.7	1.3
②기타사회보장수혜	8.8	1.1	9.8	3.0	7.8	2.5	6.3	6.0	5.3	7.0	7.0	7.9	6.9	10.4	8.0	14.0	6.1	17.6
											7.7	8.3	7.3	9.9	8.4	14.3	6.4	17.9
사적이전소득	8.0	10.1	9.0	10.9	7.0	12.5	6.0	10.4	4.7	17.5	6.3	17.1	6.2	19.5	7.5	19.4	6.1	17.6
											7.0	16.7	6.5	19.8	8.0	18.4	6.3	19.2

주: 1996-2002년 근로자가구 기준(1인가구, 농어촌지역 제외) 3) 2003-2006년 전가구 기준(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데이터·가계조사데이터, 각 연도, 원자료 분석 (음영부분은 전국수치임).

<표 7-3>과 [그림 7-1]은 공사적 이전소득에 의한 아동빈곤율의 감소효과를 연도별로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바와 같이 총 이전소득의 효과는 증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아동빈곤율 감소효과는 사적이전소득이 공적이전소득보다 더 컸으나, 2006년의 경우는 오히려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율 감소효과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에도 사적이전보다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율 효과가 더 많을지에 대해서는 추이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림 7-1] 공사적 이전소득의 도시아동빈곤율 감소효과 비교(자영업자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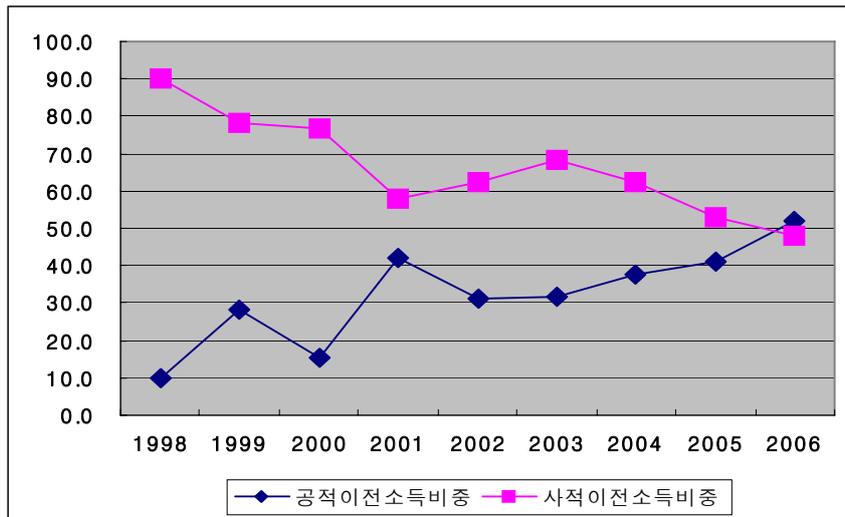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데이터』, 『가계조사데이터』, 각 연도, 원자료 분석

[그림 7-2]에서는 공적 및 사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율 효과상의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율 감소효과 상의 비중은 1998년에는 10%대에 불과하였지만 점차 상승하여 2001년

에는 40%를 상회하였고, 그 이후에는 약간 감소하여 30%대를 보이다가 다시 점차 상승하여 2006년에는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역으로 사적이전소득은 빈곤감소의 대부분의 비중인 90% 이상을 차지하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에는 공적이전소득의 비중보다 낮게 나타났다.

아동빈곤율이 감소하기 위해서는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더욱 상승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형태의 현금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형태나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향후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7-2] 공사적이전소득의 아동빈곤율 감소효과 비중(자영업자 제외)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데이터』, 『가계조사데이터』, 각 연도, 원자료 분석

제2절 아동수당제도의 빈곤율 감소효과

세계 88개국 이상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가 아동수당제도이다. 아동수당은 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양육비에 대해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소득

보충적 보편적인 현금급여이다. 아동수당은 국가마다 대상연령, 급여수준이 다양하고, 명칭도 가족수당으로 불리워지기도 한다. OECD 국가의 평균 아동수당 급여수준은 평균 가처분소득의 7.7% 정도 된다(제6장의 <표 6-3> 참조).

<표 7-4> 아동수당(1인당 월 10만원) 도입시 연간 소요예산(2006년 기준)
(단위: 명, 백만원)

연령	인원 (명)	각 연령별 지원시 소요예산	6세미만 지원시 연간 소요예산	12세 미만 지원시 소요예산	18세 미만 지원시 소요예산
0세	442,831	531,397	대상아동수: 2,980,232 소요예산: 3,576,278	대상아동수: 6,903,004 소요예산: 8,283,605	대상아동수: 10,903,869 소요예산: 13,084,643
1세	450,503	540,604			
2세	477,116	572,539			
3세	491,176	589,411			
4세	528,586	634,303			
5세	590,020	708,024			
6세	620,543	744,652			
7세	618,915	742,698			
8세	638,887	766,664			
9세	663,612	796,334			
10세	683,897	820,676			
11세	696,918	836,302			
12세	703,218	843,862			
13세	702,077	842,492			
14세	687,901	825,481			
15세	660,569	792,683			
16세	631,160	757,392			
17세	615,940	739,128			

자료: 연령별 아동인원 - 통계청, 『인구추계』, 2008(통계청 홈페이지). 소요액수 - 보사연 추계.

우리나라의 2006년 현재 가구규모를 고려하여 산출한 가처분(중위)소득은 1,343,390원이다. 이 소득에 OECD 아동수당급여 평균인 7.7%를 곱하면 약 10만3천원 정도가 된다. 이를 천단위 이하를 절삭하여 10만원으로 하고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절대아동빈곤율이

4.8%에서 3.4%로 29%나 감소하고, 상대아동빈곤율은 8.4%에서 4.8%로 절대아동빈곤율보다 더 많은 43%가 감소한다. 연간 소요예산은 연 13조가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다(표 7-4 참조).

제3절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빈곤율 감소효과

최근 일련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노동시장정책이 탈아동빈곤에 효과적이다(Adema & Whiteford, 2006; Solera, 2003). 공사적 이전소득에 비해서 가족내 생계부양자가 증가할 때 탈빈곤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OECD, 홈페이지, 2007). 앞의 <표 7-5>에서도 제시되었듯이 OECD 국가내 양부모가족에 비해 한부모가족, 특히 모자가족의 빈곤율은 2~6배 이상이나 되고 있었다. 아울러 가족내 생계부양자 수와 아동빈곤율과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2인생계부양자 가족에서는 일인생계부양자 가족보다 아동빈곤율이 4분 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Forster and d'Ercole, 2005). 즉, 기혼여성의 사회진출은 가족내 빈곤을 완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Solera, 2003).

<표 7-5> 생계부양자 증가의 아동빈곤감소효과(2006년, 자영업자 제외)

(단위: %)

구분	전체	1인생계부양자 (A)	2인생계부양자 (B)	2인생계부양 빈곤감소 효과 [(A-B)/A×100]
절대아동빈곤율	4.8	5.6	1.5	73.2
상대아동빈곤율	8.4	9.0	3.2	64.4

주: 분석을 위해 1인생계부양자 가족은 일반 부부+아동가족만을 포함시킴.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데이터』, 2006.

<표 7-5>에 제시되었듯이 1인생계부양자와 2인생계부양 가족의 절대아동빈곤율은 각 5.6%와 1.5%로 생계부양자가 가족에 1명 증가함으로 빈곤율이 73.2%나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상대아동빈곤율도 9.0%에 3.2%로 64.4%나 감소시켜 가족성원의 경제활동참여,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은 아동빈곤을 줄이는데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제고하기 위한 일자리 제공, 교육훈련과 함께 보육인프라가 잘 구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제4절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주요 탈아동빈곤정책인 공적이전(공적연금과 사회보장수혜비), 아동수당, 여성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아동빈곤율을 낮추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정책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절대아동빈곤율을 낮추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노동시장정책(73%)이었고, 그 다음이 아동수당(29%) 그리고 공적이전소득(19%)은 아직까지는 가장 미약한 기여만을 하고 있다. 사적이전소득을 포함하게 되면 총 아동빈곤감소 효과는 약 37%에 달한다. 공적이전소득은 액수로 평균 3만원에 불과해 사적이전소득 8만원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동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한 정책만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책들은 동시에 강화하거나 도입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보육제도도 공고화 되어 기혼여성들이 자녀양육에 대한 불안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양적으로 확충하도록 한다.

제8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이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아동빈곤실태와 빈곤아동을 위한 지원정책의 유형과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도시 절대아동빈곤율은 1998년에는 8.0% 정도이었는데 2006년에는 4.8%로 상당히 떨어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중위소득 50% 이하 상대아동빈곤율의 경우는 지난 9년간 비교적 안정적인 추이인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아동빈곤율은 비아동가구에 비해서 1990년대 말에는 더 높다가 최근에는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수로 환산하면 도시의 절대빈곤아동수는 약 52만명(전국: 55만명), 상대빈곤아동수는 116만명(전국: 92만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구 특성별로는 조손세대인 노인가구가 가장 빈곤율이 높았고, 모자가구도 높은 편에 속한 반면, 맞벌이가구는 빈곤율이 가장 낮았다. 아울러 여성가구주와 저학력일수록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직업별로는 가구주가 임시 및 일용노무자이거나 자영업인 경우가 빈곤율이 높았고, 저출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많지 않아 아동수가 많은 가구의 빈곤율이 높았다.

국제비교를 통해서 파악된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 수준은 OECD 국가 중 중간 수준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데이터의 한계를 감안할 때 빈곤율 수준이 고수준일 가능성이 높다.

빈곤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가구주의 직종이 유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아동가구의 가구주가 저학력의 고령인 사별여

성, 보육아동이 있는 다자녀가구, 조손가정이나 모자가구, 취업인원수가 적거나 단순노무직이나 서비스 및 판매직에 종사하는 경우 빈곤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살펴본 결과, 빈곤한 아동이 비빈곤 아동에 비해 학업성적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선행연구들과 달리 다른 변수들에서는 빈곤의 직접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다. 빈곤의 간접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부부폭력, 아동학대, 부·모의 우울변수를 매개로 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빈곤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 보았다. 아동빈곤의 간접적 영향의 주요 매개변수가 부·모의 심리적 특성인 우울임이 판명되어, 빈곤아동지원뿐만 아니라 가구주 및 빈곤가구에 대한 통합적·입체적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빈곤아동을 위한 지원정책으로는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으로 나누어서 살펴 보았다. 현금지원에는 공공부조와 아동수당과 같은 공적이전소득 지원이 있고, 현물에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통합적 아동발달지원인 각종 스타트 사업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아동수당제도는 도입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각 사업의 주요 내용과 탈빈곤 혹은 빈곤완화 효과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탈아동빈곤에 효과적인 정책은 공공부조보다는 아동수당이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임이 대부분의 연구 결과이다. 본 고에서 분석한 결과도 이와 유사하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탈빈곤효과가 60~7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아동수당으로 30~43%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공적이전소득은 19%의 효과를 보이고 있어 사적이전소득에 비해 효과가 낮았으나, 최근에는 다소 역전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본 고에서는 탈아동빈곤정책은 소득지원이나 소득보전을 위한 정책만이 아니라 아동의 건강 및 영양, 정서, 인지 등의 총체적인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통합적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특히 미국과 영국의 예에서 증명되고 있듯이 스타트 사업은 아동의 전인적 발달에 매우 효과

적이며 이는 향후 사회적 비용도 경감시켜 매우 효과적인 탈아동빈곤정책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희망스타트사업의 확대되어 신규 사회적 위험이 모두 완화될 때 참다운 의미에서의 탈아동빈곤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제2절 정책적 함의

Esping-Andersen(2003)은 아동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사회 전체가 혜택해 질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빈곤아동 문제는 사회 전체가 분담해야 우리 사회의 미래가 밝을 수 있다. 더구나 아동의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빈곤아동 대책은 매우 시급히 요청되는 사회적 과제이다. 아동빈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미래 사회에서 매우 경쟁력 없는 노동력이 배출된다. 이로 인해 사회의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고 이는 국가 전체의 발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아동은 미래의 연금 제공세대가 된다.

가족은 더 이상 복지를 제공해 주는 곳이 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가족들이 자원이 부족하여 가족성원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해 질 것이다. 이로 인해 아동은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현상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보편적인 아동수당이나 가족수당의 부재와 가족친화적 정책의 낮은 적용율은 가족의 빈곤을 예방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되 가구주의 직업 활동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상태가 안정되어야 하고,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며, 부모들이 안심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육제도가 공고해 져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지금까지의 탈아동빈곤정책에서 결핍된 것을 보완하려는 정책이 시도되고 있다. 아동빈곤을 자체를 낮

추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아동의 통합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사회서비스 지원을 함께 하는 것이다. 이는 탈아동빈곤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며,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의 일환이다.³²⁾ 아동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미래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고, 아동빈곤으로 인해 과생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사전에 줄인다는 전략이다 (Esping-Andersen, 2002). 현재 희망스타트 사업을 시작하였고, 아동을 위한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등 각종 사회서비스를 바우처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비용은 절대빈곤아동에게만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차상위층과 같은 잠재적 빈곤아동은 해당되지 않는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차상위층의 가구특성이 주로 모자가정, 조손가족, 임시직·일용직과 같은 고용상태의 불안정, 보육아동으로 대표되며, 사교육비를 포함한 교육비 지출비중이 빈곤층에 비해서도 그리 낮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현금급여로부터 배제되어 실제로 차상위층 아동이 더 열악한 가정경제와 성장환경을 경험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잠재적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 누락은 역차별 문제를 대두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차상위층 아동에게까지 지원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제3절 향후 연구과제

아동빈곤은 아동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결핍되거나 기회로부터 배제됨을 의미한다. 아동빈곤은 아동이 부족한 영양, 불충분한 보건의료, 열악한 주거환경, 부적절한 양육, 그리고 질 낮은 보육 등에 노출됨으로써 건강한 성장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32) 아동은 미래의 시민노동자이므로 사회의 미래를 위해 아동에 대해 교육, 보육, 의료 등의 종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김연명, 2007).

지적받는다(Brooks-Gunn & Duncan, 1997; Korenman, et al., 1995). 아동 빈곤을 경감하기 위하여 우리가 탐구하여야 할 주제는 아동빈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아동빈곤과의 관련요인 분석과 원인파악,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영향, 그리고 국가적 아동빈곤 정책의 효과 분석인데, 본 연구에서 이러한 주제를 다루었다.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각종 정책 중 EITC, 양육수당지원 등의 효과성에 대한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선진제국에서 빈곤아동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정책인 Child Tax Credit 등의 정책의 내용과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타진하는 작업도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보다 자영업직종을 포함하고 농어촌 가구도 포함된 포괄성 있는 데이터분석을 통해서 객관적인 빈곤율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희경(2003), 「빈곤가족에서의 학령기 아동의 자존감-제주도내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아동간호학회지』, 제9권(3), pp.301~308.
- 곽금주·유제민·김정미(2007), 「빈곤 아동에 대한 보호요인과 탐색요인 탐색」 - 만3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국 심리학회지, 제20권(1), pp.1~19.
- 구인회(2002),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48권, pp.82~12.
- 김광혁(2005), 「빈곤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총』, 제20집, pp. 109~125.
- 김광혁(2006a), 「빈곤이 아동의 학구적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분석」, 『한국사회복지학』, 48(4), pp.265~289.
- _____(2006b), 「아동기 빈곤이 학구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 빈곤의 시기와 기간, 정도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1, pp195~217.
- 김광혁, 차유림(2007), 「가구빈곤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분석: 부모의 교육적 관여(투자)와 부모-자녀 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8(1), pp.29~51.
- 김기환(1997), 「아동의 빈곤화 현상과 아동복지의 방향」, 『연세사회복지 연구』, 41, pp3~30.
- 김교성(2002),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및 빈곤이행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48권(3), pp.113~149.
- 김미숙(2006), 「지역사회 빈곤아동 지원정책: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제114호, pp.78~90.

김미숙·배화옥(2007), 「한국 아동빈곤율 수준과 아동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보건사회연구』, 제 27권(1), pp.3~26.

김안나·김은희·유진영·김순환·권민경·김광익(2005), 『2005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연명(2007), 「사회투자정책과 한국 사회정책의 미래」, 한국사회의 미래와 사회투자정책 세미나 자료, 보건복지부, 2007년 2월.

김중해·문혜진(2006), 「아동 돌봄의 사회적 지원 방안—취학전 아동 및 취학 아동의 보호를 중심으로」, 『사회적 돌봄을 위한 정책 토론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06년 9월.

박현선·정익중·구인회(2006), 「빈곤과 아동의 사회 정서적 발달 간의 관계」—성인역 부담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2), pp.303~330.

배병렬(2007), 『Amos 7에 의한 구조방정식 모델링』, 청람.

석재은(2004), 「한국의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실증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56권, pp.167~194.

안중범·김철희·전승훈(2002), 「빈곤과 실업의 원인과 복지정책의 효과」, 『노동경제논집』, 제25권(1), pp.75~95.

오경자·김은이·도레미·어유경(2005), 「빈곤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임상』, 제24권(1), pp.53~71.

오경자·문경주(2006), 「빈곤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가족위험요인과 부모자녀관계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임상』, 제26권(1), pp.59~76.

- 윤현선(2006), 「사회경제적 배경이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사회적 자본이론과 가족매개모델의 비교검증」, 『청소년학연구』, 제13권(3), pp.107~135.
- 윤홍식(2004),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 수준 및 빈곤상태와 공·사적소득이전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제56권 제2호, pp.5~28.
- 윤홍식(2007), 「사회투자국가와 한국복지국가의 과제」, 사회투자국가의 의미와 한국적 적용가능성에 관한 토론회 발표자료, 2007년 2월 15일.
- 이경혜·John C. Lebalnc·심희옥(2006), 「빈곤아동의 학업수행 부진 발생 요인의 예측과 조기중재모형 개발」, 『정서·행동장애연구』, 제22권(1), pp.175~196.
- 이봉주(2006), 「인적자본과 불평등,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 2006년 4월.
- 이봉주, 김혜란, 정익중(2007), 『경기도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 효과성·효율성 평가연구 최종보고서』, 경기도.
- 이순아(2005), 「아동의 빈곤상태와 공·사적 소득이전에 의한 빈곤감소 효과— 가구유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전북대학교.
- 이현주·김미곤·노대명·강석훈·손병돈·유진영·임완섭(2006), 『우리나라 빈곤상태와 정책적 함의— 구조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백희중·신영석·김안나·박능후·이선우·홍경준·황덕순·유진영·김계연·이승경·황정하·임완섭·전혜숙·정순영·박신영(2005), 『차상위계층 실태 분석 및 정책제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세희(2007), 「장기빈곤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부모 자녀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1, pp55~78.
- 정익중·김혜란·홍순혜·박은미·허남순·오정수(2005), 「사회복지서비스 이

- 용이 빈곤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3), pp.105~131.
- 황덕순(2002),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정진호 외(편),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pp.88~124.
- 허남순·오정수·홍순혜·김혜란·박은미·익중(2005), 『빈곤 아동과 삶의 질』, 학지사.
- Adema, Willem & Whiteford, Peter(2006). "Fighting child poverty across the OECD: is work the answer?", Paper presented to the Joint OECD/Korea Regional Centre on Health and Social Policy, 2006.
- Barnett, W. S., "Long-term effects of early childhood programs on cognitive and school outcomes", *The Future of Children*, Vol.5, No. 3, Winter 1995, pp.25~50.
- Belsky, J.(1993), "Etiology of child maltreatment—a developmental-ecological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Vol.114, pp.413~434.
- Brody, G. H., Z. Stoneman, D. Flor, C. Mcgray, L. Hanstings, and O. Conyers.(1994), "Financial Resources, parent psychological functioning, parent co-caregiving, and early adolescent competence in rural two-parent", *Child Development*, Vol.65, No.2, pp.590-605.
- Brooks-Gunn, J., & Duncan, G.(1997),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Vol.7, No.2, pp.55~71.
- Chung, I.-J.(2004), "A conceptu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overty and antisocial behavior"— Focusing on psychosocial mediating mechanism,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24, pp.355~380.

- Conger, R. D., K. J. Conger and G. Elder. (1997). "Family economic hardship and adolescent adjustment: Mediating and moderating process", 288-310. in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edited by G. J. Duncan and J. Brooks-Gunn. New-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Conger, R. D, Ge X, Elder G. H, Lorenz F. O, and R. L. Simons. (1994), "Economic stress, coercive family process, and developmental problems of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Vol.65, pp.541~561.
- Currie, J., & Thomas, D.(1995), "Does Head Start make a differ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85, No.3, June 1, 1995, pp.341~64.
- Devaney, B. L., Ellwood, M. R., & Love, J. M.(1997), "Programs that mitigate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Children and Poverty*, Vol.7, No.2, Summer/Fall, 1997, pp.88~112.
- Devaney, B. L., Ellwood, M. R., & Love, J. M.(1997), Programs that mitigate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_Children and Poverty*, Vol.7, No.2, Summer/Fall 1997, pp.88~112.
- Downs, S. W., et al.(2004), *Child Welfare and Family Services – Policies and Practice*, 4th Ed. Pearson Education, Inc.
- Duncan, G., J. Brooks-Gunn & P.K. Klebanov.(1994), "Economic deprivation and early-childhoo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Vol.65, No.2, pp.296~318.
- Eamon, M. K. (2001).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s sociomotional development" – An ecological systems approach, *Social Work*, Vol.46, No.3, pp.256~266.

- Felner, R. D., Brand, S., Dubois, D. L., Adan, A. M., Mulhall, P. F., & Evans, E. G. (1995), "Socioeconomic disadvantage, proximal environmental experiences, and socioemotional and academic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Investigation of a mediated effects model", *Child Development*, Vol.66, pp774~792.
- Fight Crime—Invest in Kids. Head Start improves achievement and reduces crime. A research brief, 2007
(www.fightcrime.org/reports/HeadStartBrief.pdf에서 내려 받음).
- Forster, Michael & d'Erocole, Marco (2005),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in the Second Half of the 1990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2.
- Garbarino, J. (1997), "The Human Ecology of Child Maltreatment— A Conceptual Model for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39, No.4, pp.721~735.
- Garces, E., Thomas, D., & Currie, J. (2002), "Longer-Term Effects of Head Star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92, No.4, pp.999~1012.
- Heckman, J.J. and L. Lochner (2000), "Rethinking myth about education and training: understanding the sources of skill formation in a modern economy" In *Securing the future: Investing in children from birth to college*, Sheldon Danziger and Jane Waldfogel, eds. New York: Russell Sage.
- Hill, Martha S., Sandfort, Jodi R. (1995). "Effects of childhood poverty on productivity later in life: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7(2), pp91~126.

- Korenman, S., Miller, J. E., & Sjaastad, J. E.(1995), "Long-term poverty and child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Results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Youth",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17, No1/2, pp.127~56.
- Lempers, J. D., Clark-Lempers, D. & Simons, R. L.(1989), "Economic hardship, parenting, and distres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Vol.60, pp.25~39.
- Love, J. M., Kisker, et al.(2005), "The effectiveness of Early Head Start for 3-year-old children and their parents"— lessons for policy and program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41, No.6, pp885~901.
- Mayer, S.(1997), "What money can't buy?"— Family income and children's life chance, Cambridge, MA:Harvard University Press.
- McLoyd, V. C. (1998), "Socialeconomic disadvantage in the ability to concentrate in first-grade Israeli pupils of low and high socio-economic statu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Vol.153, pp.5~17.
- Mcloyd, V. C. (1990).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1, pp311~346.
- National Evaluation for Sure Start, NESS, 2007.
- OECD(2007). Social Expenditure Data.
- Reynolds, A. J., et al.(2001), "Long-term effects of an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on educational achievement and juvenile arrest"— A 15-year follow-up of low-income children in public schools,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Vol.285, pp.2339~2346.

- Reynolds, A. J., et al.(2007), "Effects of a school-based,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on adult health and well-being" – A 19-year follow-up of low-income families, *Archives of Pediatrics and Adolescent Medicine*, Vol.161, pp.730~739.
- Reynolds, A. J., et al.(2001), "Long-term effects of an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on educational achievement and juvenile arrest – A 15-year follow-up of low-income children in public schools",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Vol.285, pp.2339~2346.
- Sidebotham, P.(2001), "An ecological approach to child abuse – a creative use of scientific models in research and practice", *Child Abuse Review*, Vol.10, pp.97~112.
- Solera(2003), "Child Poverty and Child Policy in Modern Nations – What do we know?", Koen Vleminckx, and Timothy Smeeding (Eds), Briston – *Policy Press*, pp.527~546.
- Taylor, Gooby(2006), "Social investmnet in Europe" – Bold plans, slow progress and implications for Korea, 한국사회의 미래와 사회투자정책 발표자료, 서울, 2007.
- Vleminckx, Koen & Smeeding, Timothy(2003), "What have we learned and where do we go from here? Child Well-Being, Child Poverty and Child Policy in Modern Nations" – What do we know?, Koen Vleminckx, and Timothy Smeeding (Eds), Briston – *Policy Press*, pp.527~546.
- Whiteford, Peter(2006), "Child Poverty, Joblessness and Welfare Reform" – An OECD Perspective, OECD power point Material.

Whiteford, Peter, & Adema, Willem(2007), "What Works Best in Reducing Child Poverty" – A Benefit or Work Strategy?,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edlabor.house.gov/issues/headstart.shtml

www.acf.hhs.gov/programs/hsb/about/fy2007.html

Fight Crime: Invest in Kids. Head Start improves achievement and reduces crime. A research brief (2007) (www.fightcrime.org/reports/HeadStartBrief.pdf에서 내려 받음).

<부표 1> 주요변수들의 상관계수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a															
b	-.314**														
c	-.437**	.700**													
d	-.396**	.618**	.672**												
e	-.241**	.377**	.478**	.292**											
f	-.271**	.540**	.584**	.447**	.608**										
g	-.030	.796**	.776**	.681**	.578**	.778**									
h	-.216**	.354**	.383**	.293**	.361**	.416**	.404**								
i	.573**	-.238**	-.436**	-.280**	-.331**	-.329**	-.190	-.209**							
j	-.231**	.437**	.381**	.305**	.319**	.308**	.384**	.263**	-.249**						
k	.423**	-.121**	-.252**	-.121**	-.114**	-.155**	-.033	-.064	.419**	-.143**					
l	.399**	-.159**	-.205**	-.190**	-.132**	-.102**	-.043	-.084*	.318**	-.213**	.187**				
m	-.109**	.165**	.158**	.113**	.231**	.135**	.160**	.177**	-.249**	.194**	-.023	-.183**			
n	-.100**	.033	.069	.068	.018	.039	.022	.021	-.059	.091*	-.155**	-.183**	.081*		
o	.071	.011	-.034	.017	-.056	-.009	.018	.014	.040	.008	.109*	.053	-.05.	-.419**	

* $p < 0.5$, ** $p < 0.01$, a=자아존중감, b=우울/불안, c=주의집중, d=위축, e=비행, f=공격성, g=사회정서발달, h=아동학대, i=학교적응유연성, j=또래애착, k=친구의 비행경험, l=학교폭력, m=학업성적, n=문제행동(일반비행), o=건강상태

